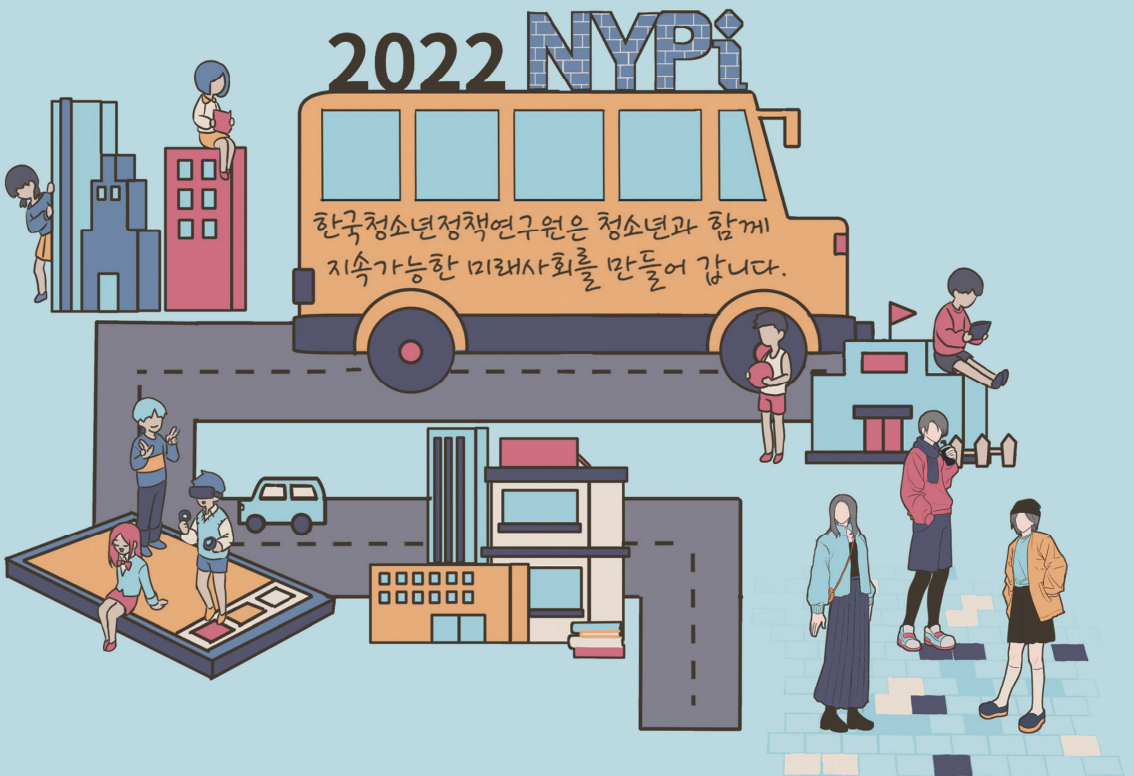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임지연 · 김정주 · 한지형 · 문세진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저 자 임지연, 김정주, 한지형

연구진 연구책임자_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정주(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교수)
_한지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_문세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를 펴내며

본 연구는 가족변화와 청소년지원의 핵심 사항이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생애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소통이 가능한 접근방식과 지원방식으로 다가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가족변동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상가족' 모델의 해체를 보여 주고 있다. 연구결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환경의 변화로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청소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사에서 친부모, 친·외조부모, 친형제·자매, 새부모, 새형제·자매, 어머니의 남자친구, 아버지의 여자친구, 친척, 새할머니 등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가족형태를 경험하고 있다. 한 명의 청소년이 부모와 자녀가 주로 고정된 가족형태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은 가족문제에 관하여 대처를 하지 못해 무기력하거나 외부와 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가족 정책은 다양한 가족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과 생애과정의 비전형적 형태를 배제하지 않는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가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가족형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집필진과 관련 전문가, 연구진께 감사의 말을 올린다.

2022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임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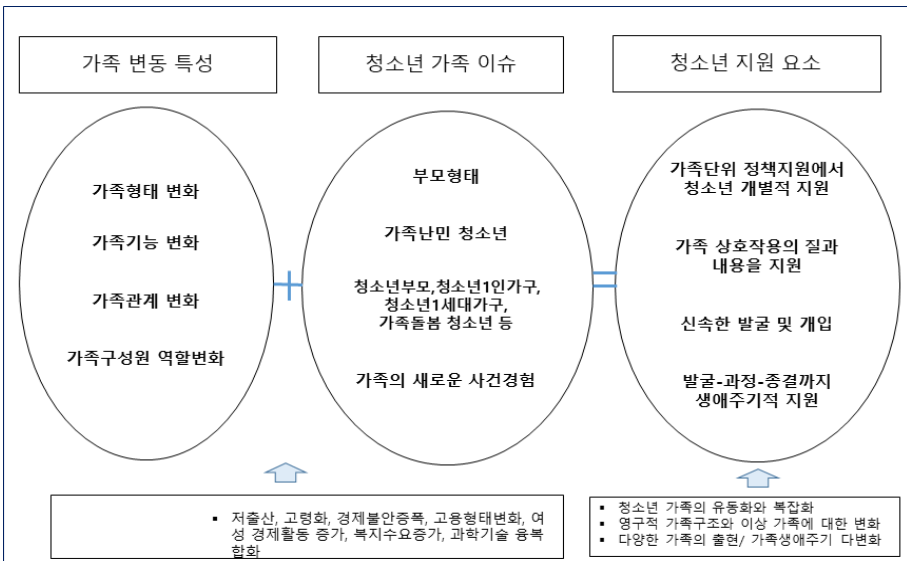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급변하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보다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 가족환경 다변화와 청소년 지원방식 관련 국내외 문헌고찰,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지원방식에 대한 인식조사,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청소년요구와 필요 파악,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방식 재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본 연구의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 파악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의 가족의 변화와 청소년, 가족환경 변화와 청소년지원 선행연구,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청소년지원 현황,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 파악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을 살펴보았음.

● 모바일 설문조사

-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생애주기별로 만9-24세(초중고대 연령) 학교 안팎의 청소년 총 2,042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함. 설문 응답자의 분포는 지역, 경제수준, 부모학력, 행복도, 가족지지 기반에 있어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냄. 설문조사의 내용은 ① 가족관계(가족내 상호작용), ② 학교 및 사회관계, ③ 가족형태 및 가족구성원, ④ 가족기능, ⑤ 청소년서비스기관 이용경험/인지도, ⑥ 가족환경 변화 경험/어려움, ⑦ 가족 서비스 요구사항, ⑧ 삶의 행복도, ⑨ 배경정보 영역임.

● 면담조사

- 2022년 7월 28일 부터 8월 22일까지 초등학생(초등방과후아카데미), 중학생(중등방과후아카데미), 고등학생(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등연령(학교밖 꿈드림센터), 대학생(전문대/4년제)(18-24세), 청소년부모(청소년부모 지원단체)(16-24세) 총 28명을 대상으로 ZOOM을 이용한 1:1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함. 면담조사의 내용은 ①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② 대처가 어려웠던 이유, ③ 제공 받은 서비스, ④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도움이나 서비스, ⑤ 가족 지지와 의미 영역임.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의 어려움, 가족의 힘든 상황이 인지될 때 선생님에게 말한 이야기나 행동 등 조사도구 개발과 정책 제안에 활용함.

● 정책세미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함.

- 가족변화와 청소년,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재편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문헌고찰

- 앞으로의 가족 정책은 가족 단위 정책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의미와 요구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가족의 외형적 다양성을 넘어 가족 내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에서 부양, 보호 등의 차별적이고 다양한 환경에 보다 관심이 필요함.
- 법률혼과 정상가족, 이상가족에 대한 향수가 짙을수록 미래 사회에 가장 크게 변화하는 영역으로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늦추어질 수 있음. 현재와 미래의 청소년들은 가족환경의 변화를 극심하게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청소년 가족정책이 표준가족으로 만들려는 노력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사각지대 가족환경에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급속하게 증가될 수 있음.
- 청소년기 성인 이행 경로의 탈정형화는 단일한 경로로 성인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의 약화 내지는 부재를 의미함.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청소년지원을 위한 제도현황 및 재편 방향에 대해 논의됨.
- 해외의 경우, 아동청소년 가족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보호시설에 배치 되는 아동의 수를 감소, 가족기반 위탁제공이 증대되도록 가족서비스를 적극 제공, 아동보호개혁과 탈시설화 정책이 범유럽에 활성화, 가족환경 어려움의 초기발견, 초기대응과 전문기관으로 연결, 원스탑서비스 방식을 중요시함.

● 설문조사 결과

-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초중고대 연령, 전국 16개 시도별로 분포함. 경제수준이 보통(72.4%), 부모학력은 대졸이상(70.9%), 학업수준은 중위권 이상(83.7%), 행복도는 중(33.8%), 상(56.8%), 가족지지기반은 평균이상(51.6%)으로 나타났음. 이와같이 응답자의 특성은 초,중,고,대학교, 연령별, 지역별로 경제수준별, 행복도별, 가족지지 기반별 등에 있어 특정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적인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함. 가족구성원의

주요 연구결과

형태 조사에 의하면 친부모, 친외조부모, 친형제·자매, 친척 및 새부모, 새형제·자매, 부모의 여자 또는 남자 친구 등 다양하게 존재함.

-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가족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가족지지 기반(정서+의식주)이 낮은 집단에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가족환경의 다양한 사건 및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사와 입원 등 일상적 생활 사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정신질환, 이혼, 가출, 폭행, 재혼, 알코올중독, 자살, 빚독촉 등에서 비교적 차이가 두드러짐.
- 가족문제로 고민시 대처 방안으로 무기력증, 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에 대한 조사결과, 행복도별 차이가 가족지지기반별, 경제수준별, 성별, 연령 학교급별, 학업수준별 차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남. 행복도가 낮을수록 무기력증과 외부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을 가족환경 변화로 고민할 때 대처방안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이는 정책지원으로 자존감, 인정, 소통을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의 지원방식 재편이 필요함. 또한 고등학교와 청소년부모 집단의 절반 이상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청소년부모의 '스스로 자해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면담조사 결과

- 면담조사대상은 초등학생(초등방과후아카데미) 7명, 중학생(중등방과후아카데미) 5명, 고등학생(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명, 고등연령(학교밖 꿈드림센터) 5명, 대학생(전문대/4년제)(18-24세) 5명, 청소년부모(청소년부모 지원단체)(16-24세) 3명으로 총 28명이며, ZOOM을 이용한 1:1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함.
- 이사,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어려움의 지원을 원하고 있음.
- 가족 내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 정보 경로를 몰라 어려움에 처함.
- 가정적 어려움을 청소년들이 먼저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음.
- 초등생은 집안일과 형제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고등학생은 인터넷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학교밖청소년은 검정고시, 대학생은 전문상담진료, 청소년부

주요 연구결과

모는 서비스지원 신청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며 가족내 지지기반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가족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스스로 부인하거나 외부의 자원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음.
- 가족환경은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발달된 청소년기에 무기력증이 심하게 나타남.
- 가족 환경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 초기대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핵심 정책제언

주요 연구결과		
● 청소년기의 가족변화 대응 정책과제		
정책 방향	청소년기의 가족변화 대응력 강화	
정책 과제	가족단위 정책지원 에서 청소년 개별적 지원	1. 청소년의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편
		1) (가칭)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대행 및 현장연결 실무자의 인력배치 2) 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 재편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지원	2. 가족환경 변화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로 지원내용 재편
		1) 가족내 갈등해결 사회프로그램을 재편 2) 청소년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재편 3) 이사, 재혼과 이혼 가정의 적응 서비스 개발
	발굴-과정-종결까지 생애주기 적 특성에 따른 지원	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현장연결을 주도하는 중추 지원조직으로 재편
		1) 상황별 대처 가능한 전문기관 연결 및 실행을 위한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 2) 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4. 초기대처를 위한 관련 기관담당자의 직무재편
		1) 위클래스, 방카, 상담센터 등의 기능을 상담 중심에서 청소년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서비스 실행연결로 직무 재편 2) 가족 내의 성인과 청소년관계에서 청소년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지원하는 초기대처 서비스개발
		5. 청소년기 연령에 따른 특성 서비스로 재편
		1)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로 재편 2) 생애주기별 연속성 위한 부처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절적 서비스 지원체계 연결
		6. 24시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재편
		1) 오프라인과 연결된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개발 및 구축운영 2) 가족지지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의 접근 친화적 시스템 운영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연구보고22-기본0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9
4. 연구방법	10

II.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의 변화와 청소년	19
2. 가족환경 변화와 청소년지원 선행연구	31
3.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청소년지원 현황	41

III. 가족환경 생활 설문조사

1. 조사개요	65
2. 조사결과 분석	69
3. 요약 및 시사점	96

IV. 가족환경 생활 면담조사

1. 조사개요	109
2. 조사결과 분석	11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36

V. 정책방안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145
2. 정책방안	151
3. 추진로드맵	172

참고문헌	175
------------	-----

부 록

1. 청소년 가족환경 실태조사지	191
2. 청소년 가족환경 심층면담 조사지	201
3. 가족환경 생활 실태조사 상세 결과표	202

표 목차

표 II-1. 평균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변화 추이 (1990~2020)	25
표 II-2.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연령집단별 가구형태 (2015, 2020)	27
표 II-3. 청소년모 현황	43
표 II-4. 청소년한부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43
표 II-5. 청소년부모를 위한 부처별 지원제도	45
표 II-6. 청소년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46
표 II-7.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50
표 II-8.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제도	51
표 II-9. 가족환경 관련 청소년이용서비스	53
표 III-1. 가족환경 설문 조사지 구성	66
표 III-2. 기관 유형 및 세부 응답자 유형	67
표 III-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0
표 III-4. 가족지지 측정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72
표 III-5. 부모님(또는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서 밤에 잠을 잔 날	73
표 III-6.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배경 정보 (성별, 학교급, 학업수준) ..	74
표 III-7.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배경 정보 (부모학력, 경제수준)	75
표 III-8.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학교 및 사회관계 인식	77
표 III-9.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가족구성원 및 현재동거인 (다중응답) 78	
표 III-10.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 형태 (다중응답)	80
표 III-11.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가족에 대한 생각	82
표 III-12. 가족환경 변화로 인한 사건 경험 (다중응답)	83
표 III-13.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 (다중응답)	85
표 III-14.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 방법 (다중응답)	87
표 III-15. 청소년 서비스 기관 인지도	90
표 III-16.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음	92
표 III-17.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 (다중응답) ·	93

표 Ⅲ-18.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지원 받는 방식 (다중응답)	94
표 Ⅲ-19. 메타버스 서비스 지원방식 필요성 및 활용 의향	96
표 Ⅲ-20. '매우 그렇다'에 따른 메타버스 서비스 지원방식 필요성 및 활용 의향	96
표 Ⅲ-21. 가족환경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04
표 Ⅳ-1. 가족환경 면담대상자 특성	111
표 Ⅳ-2. 가족환경 면담 조사내용	112
표 Ⅳ-3. 면담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37
표 Ⅴ-1. 추진로드맵 : 청소년기의 가족변화 대응 정책과제	173

그림 목차

그림 Ⅰ-1.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 파악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	6
그림 Ⅱ-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분절적 보호체계	56
그림 V-1.	가족구성원 및 현재동거인 (N=2,042, 다중응답)	146
그림 V-2.	청소년기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형태 (N=2,042, 다중응답)	147
그림 V-3.	행복도와 가족지지에 따른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방법 (N=2,042)	148
그림 V-4.	청소년기의 가족환경 변화의 사건과 경험 (다중응답)	149
그림 V-5.	본 연구의 정책방향 및 과제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151
그림 V-6.	지역사회로부터 받고 싶은 서비스 지원 방식	153
그림 V-7.	청소년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안내서	155
그림 V-8.	행복도에 따른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방법 (다중응답)	157
그림 V-9.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 (다중응답)	158
그림 V-10.	가족기능(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매우 그렇다'의 비율	158
그림 V-11.	아동보호절차(초기발굴-초기대응-연계-후속 조치까지 중추지원조직 역할 사례)	161
그림 V-12.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 (다중응답)	164
그림 V-13.	청소년 서비스 기관 인지도 및 이용 경험(%)	164
그림 V-14.	연령별 학교급에 따른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방법 (다중응답)	167
그림 V-15.	학교급-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방식 필요성 및 활용 의향	169
그림 V-16.	행복도 -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방식 필요성 및 활용 의향	170
그림 V-17.	메타버스 선거교육 플랫폼 사례	171
그림 V-18.	메타버스 다양한 가족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및 중추지원조직 역할 사례	172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가족변동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강력하게 자리 잡은 이른바 ‘정상가족’ 모델의 해체를 보여주고 있다(박복순, 박선영, 김영란, 정다은, 류민희, 2019a).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정상가족의 이념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혼인과 출산 등은 개인의 생애주기를 표준화하는 정상화의 전개과정이었다(박복순 외, 2019a). 가족에 대한 의미와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동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64.4%),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62.5%)로 나타났다(박복순, 박선영, 김정혜, 정다은, 성정숙, 2019b). 여성가족부(2021d)에서 실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91.4%,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87.0%,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46.6%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비혼 출산, 동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019년도 가구 구성은 ‘부부+미혼자녀’는 22.5%, ‘1인가구’는 30.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족은 2000년 이후에 산업화, 경제위기, 개인화, 생애과정의 다양화를 겪으면서 기존의 가족 개념과 가치관 변화로 인한 가족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박복순 외, 2019a, 송효진 외, 2021). 우리사회 가족변화 및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파트너 관계의 결합에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보편혼의 쇠퇴와 동거, 비혼 출산 등

1) 본 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임지연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함.

새로운 친밀성과 파트너십은 법률혼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킨다(송효진 외, 2021). 해외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며, 기존의 법률혼 형태만을 고수하고 있지 않다. 엄격한 혼인제도만으로는 변화하는 가족과 사회에 조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 변화에 대응해온 각국의 사회적 노력과 입법 사례들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송효진 외, 2021: 247).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사회정책이 법률혼을 통한 정상가족을 경유하기 때문에 가족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사회적 제도를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동거가족 등 가족의 변동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박복순 외, 2019b).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양육환경 실현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생애과정의 다양화를 반영한 비혼출산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설정, 비혈연 관계의 아동양육에 대한 폭넓은 승인, 위탁가정 등 사실상 친자관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박복순 외, 2019a).

정책적 관점에서 가족(가구)은 많은 정책과 제도의 작동 단위로서 가족의 급격한 변동은 제도의 안정성, 형평성, 정당성 등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다(박종서 외, 2020). 미시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가족의 구조, 기능 등의 변화는 가족 지원 정책의 대상과 범위, 사회보험의 부과 및 급여 지급 기준 등과 관련이 있으며, 거시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사회주체 간의 책임 분담 방식이나, 복지체제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종서 외, 2020). 가족의 변화를 인구학적 변화, 경제활동 변화, 부양기능의 변화, 관계의 변화, 문화의 변화라는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세대관계와 젠더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박종서 외, 2020: 11).

이에 1인가구를 비롯한 가족 다변화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 가족 관련 접근에서 성인에 비해 간과되어 왔던 청소년의 욕구와 시각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서비스 지원의 중요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다양한 가족 내에서 청소년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지원 방식의 효과성 검토 및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정책 지원에 대한 청소년의 욕구 및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 정책 지원방안 도출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지원의 기본 단위가 되었던 ‘가족’의 정의 범주에 따른 변화에 따라 가족 중심 지원에서 청소년 지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가족의 지원이 중단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보 및 대처 교육과

인식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족의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도움을 준 대상은 친구 또는 선후배(67.4%)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지원기관(청소년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의 도움을 받은 위기청소년은 37.8%,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청소년은 11%로 나타났다(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본 연구에서는 가족 관련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외형적인 가족형태 뿐 아니라 가족과 단절, 상호작용이 없어서 실질적 가족의 지원이 중단된 청소년을 의미한다(서용석, 최호진, 정다혜, 2011; 송효진 외, 2021; 야마다 마사히로, 2019; Pearce, Hayward, Chassin & Curran, 2017).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다양한 여건 조성을 강조하면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 체계 및 환경 조성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e).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가족 가치관, 인식의 변화 등에 따른 가족생애주기 다변화로 인해 기존에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미혼자녀’가구 중심의 지원은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고, 세대 간 위계구조 없는 평등한 가족관계 구현을 위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욕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 측면에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김영란 외, 2021b). 이에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1인가구 등에 대한 정책 반영의 중요성, 가족관련 접근에서 성인에 비해 간과되어 왔던 청소년의 욕구와 시각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 내에서 청소년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존 청소년지원 방식의 효과성 논의와 서비스지원체계의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급변하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보다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지원 방식 재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등에 따른 지원 방향을 살펴보고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과제를 도출하고, 가족의 개념 및 가족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지원이 어떻게 달라지고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재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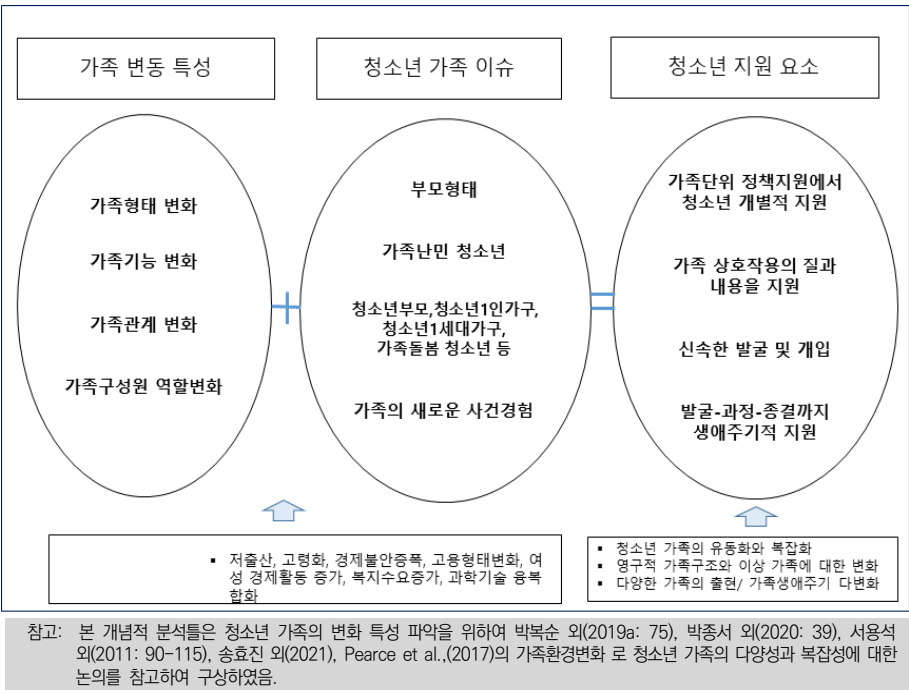


그림 1-1.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 파악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

비혼, 동거, 한부모, 이혼, 재혼, 동성 양육, 조부모 등 제도 안팎의 다양한 가족관계 스펙트럼에서 가족변동과 청소년 이슈가 교차하는 지점의 탐색적 연구가 구체적 정책과제로 연결되도록 본 연구의 개념 틀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 파악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하기 위해서 박복순 외(2019a: 75), 박종서 외(2020: 39), 서용석 외(2011: 90-115), 송효진 외(2021), 야마다 마사히로(2019), 황준원(2022), 히라야마 료, 후루카와 마사코(2016), Pearce et al.,(2017) 등 청소년 가족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문헌을 참고하였다. 가족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동인은 저출산, 고령화, 경제불안증폭, 고용형태변화, 여성경제활동증가, 복지수요증가, 과학기술 융복합화로 볼 수 있다. 가족의 변동 특성과 청소년 가족 이슈를 파악하는 것은 구체적 정책과제로 연결되는 청소년지원 요소와 연결됨으로 중요하다. 청소년 지원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청소년 가족의 유동화와 복잡화, 영구적 가족구조와 이상 가족에 대한 변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가족생애주기의 다변화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 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변동의 특성은 가족형태, 가족기능, 가족관계, 가족구성원 역할의 변화로 볼 수 있다(서용석 외, 2011; Pearce et al., 2017). 가족형태의 변화는 1인가구, 가족규모 축소, 비혈연가족, 원거리 네트워크 가족을 의미한다. 가족기능의 변화는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 증대, 경제적 지지 기능 약화,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약화를 의미한다. 가족관계의 변화는 부부중심, 부부관계 지속성 약화, 가족응집력 약화, 가족분화증대를 의미한다. 가족구성원 역할의 변화는 형제자매 유대감 상실, 양육자 부양자로서 역할 축소, 정서적 조력자로서 역할증대로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 가족 이슈는 부모형태, 가족난민 청소년, 비전형적 생애경로에 있는 청소년, 가족의 새로운 사건경험으로 볼 수 있다. 부모형태는 비혼, 동거, 한부모, 이혼, 동거, 동성 양육, 조부모 등으로 다양하다. 가족난민 청소년은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가족의 지원이 중단된 청소년을 의미한다. 비전형적 생애경로에 있는 청소년의 증가는 ‘청소년부모’, ‘청소년1인가구’, ‘청소년1세대가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을 의미한다. 가족의 새로운 사건경험은 사망,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투옥, 추방 등을 의미한다.

셋째, 청소년지원을 위한 요소는 가족단위 정책지원에서 청소년 개별적 지원, 가족 상호작용의 질과 내용을 지원, 신속한 발굴 및 개입, 발굴-과정-종결까지 생애주기적 지원이다. 가족단위 정책지원에서 청소년 개별적 지원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요구에 기반한 청소년 개인중심의 요구지원이다. 가족 상호작용의 질과 내용지원은 정서적 심리적 물리적 지원을 의미한다. 신속한 발굴 및 개입은 신속하고 접근이 용이한 원스탑 지원체계이다. 발굴-과정-종결까지 생애주기적 지원은 다양한 가족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족과 생애과정의 비전형적 생애경로에 있는 청소년들을 배제하지 않는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가족의 의미(박복순 외, 2019; 송효진 외, 2021; Pearce et al., 2017)를 혼인·혈연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공동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고, 함께 살지 않더라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관련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외형적인 가족형태 뿐 아니라 가족과 단절, 상호작용이 없어서 실질적 가족의 지원이 중단된 청소년을 의미한다(서용석 외, 2011;

송효진 외, 2021; 아마다 마사히로, 2019; Pearce et. al., 2017). 가족의 지원이 중단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보 및 대처 교육과 인식의 향상이 필요하다.

가족의 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점 더 한부모, 새부모, 생물학적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살게 되며, 새형제자매, 조부모와 함께 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후기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은 일정 기간 동안 부모의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이사를 갔다가 돌아온 ‘부메랑’ 후기청소년이 있는 가족은 적절한 자치권 부여 및 독립 구축을 협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환경 생활방식의 변화가 커지고 있다(Pearce et al., 2017). 가족의 다양화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속에서 이혼율의 급증으로 가족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가족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정책목표 속에서 법률혼을 중심으로 한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에 따른 유형별 접근을 통해 법과 정책 영역으로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책적 개입의 방향을 정상가족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가족의 다양성을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가족의 다양화 논의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박복순 외, 2019a). 이에 혼인과 혈연 외의 가족구성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박복순 외, 2019a).

법률혼과 정상가족, 이상가족에 대한 향수가 짙을수록 미래 사회에 가장 크게 변화하는 영역으로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늦추어질 수 있다. 현재와 미래의 청소년들은 가족환경의 변화를 급속하게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청소년 가족정책이 표준가족으로 만들려는 노력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사각지대 가족환경에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급속하게 증가될 수 있다(서용석 외, 2011; 송효진 외, 2021; 아마다 마사히로, 2019; 황준원, 2022; 히라야마 료, 후루카와 마사코, 2016, Pearce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을 논의하기 위하여, 표준가족으로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가족의 변화와 다양성을 포용(박복순 외, 2019a)하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청소년 가족변동 특성을 가족형태, 가족기능과 관계, 가족구성원의 역할 변화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가족환경으로 인한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청소년 지원방식 재편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입장에서 가족환경 다변화의 의미를 연구틀과 쟁점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청소년 입장에서 가족환경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청소년지원방식 재편을 위한 단기, 중장기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주요 연구 내용

1) 가족환경 다변화와 청소년지원 방식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의 가족의 변화와 청소년, 가족환경 변화와 청소년지원 선행연구,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청소년지원 현황과 재편방향을 분석하고,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 파악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2) 가족변화와 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내용은 ① 가족관계(가족내 상호작용), ② 학교 및 사회관계, ③ 가족형태 및 가족구성원, ④ 가족기능, ⑤ 청소년서비스기관 이용경험/인지도, ⑥ 가족환경 변화 경험/어려움, ⑦ 가족 서비스 요구사항, ⑧ 삶의 행복도에 대한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만9-24세(초중고대 연령) 학교 안팎의 청소년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애주기별로 청소년기 가족변화 실태와 청소년지원 방식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3) 생애주기별 가족내 청소년 요구 파악을 위한 면담조사

면담조사의 내용은 ①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② 대처가 어려웠던 이유, ③ 제공 받은 서비스, ④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도움이나 서비스, ⑤ 가족 지지와 의미에 대한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만9-24세(초중고대 연령) 학교 안팎의 청소년 약 30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기 가족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4)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방안 도출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면담조사, 정책포럼, 전문가 자문 등의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기의 가족변화 대응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가족단위 정책지원에서 청소년 개별적 지원, 가족내 어려움 대처에 신속한 발견 및 대처, 생애주기적 초,중,고,대 특성에 따른 지원, 법제도 기반의 3가지 영역에서 6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가족환경 변화의 의미, 청소년의 가족환경 특징, 가족 개념의 변화, 가족단위에서 가족구성원인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지원 논의, 가족환경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제도와 재편방향,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의 국내외 정책 및 사업 등 최신 동향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 파악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도구와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전달체계, 전달방식 등에 대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가족부 관련 담당자들과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법령, 정책, 그리고 사업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가족, 청소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시설, 가족센터, 한국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1) 설문조사

-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생애주기별로 만9-24세(초중고대 연령) 학교 안팎의 청소년 총 2,04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분포는 지역, 경제수준, 부모학력, 행복도, 가족지지 기반에 있어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 표집은 전국의 생애주기별로 만9-24세(초중고대 연령)를 대상으로 소외계층에 한정되지 않은 일반적 특성을 가진 학교 안팎의 청소년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소년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표집하였다. 이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경제적 소외계층만 참여하는 기관이 아닌 학교안팎에서 일반적 특성을 가진 다양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성격을 가진 방과후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 대학학생상담센터, 청소년부모지원단체를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요소	설문조사	비고
조사대상	청소년서비스기관 전국 만9-24세	NYPI 통합 조사 참여
조사대상 기관목록	2021년 청소년서비스기관	
표본수	초등 방과후아카데미 (초 4-6학년) 500명 중등 방과후아카데미 (중 1-3학년) 500명 고등 상담복지센터 (고등 1-3학년) 300명 고등 꿈드림 센터 (학교밖 고등연령) 200명 대학교/전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청년 18-24세) 450명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50명	
표집방법	확률표집	
조사방법	모바일 설문조사	
조사시기	6-8월	

(2) 심층 면담조사

- 심층면담은 생애주기별로 9-24세(초중고대 연령) 청소년서비스기관 이용자 약 40명을 대상으로 줌을 활용한 1대 1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 면담대상은 전체 설문조사 기관 중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을 소개받을 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해당기관의 협조를 받아 생애주기별(초중고대 연령별로 약3명씩) 총 7개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28명을 선정하였다. 소개받은 청소년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본인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수합하였고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동의서 수합이 완료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모더레이터 배정 및 진행 일정을 협의하였다. 인터뷰 진행 2시간 전, 최종적으로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자료 수집은 ZOOM을 이용한 1:1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방식으로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모더레이터는 아동복지학,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이상의 경험이 있는 인터뷰 전문가 3명을 선정하여 연구진

이 사전에 모더레이터와 워크숍을 진행한 후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당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자료분석들은 5개 면담내용 영역별로 가족지지 유무, 생애주기별, 성별로 분석하였으며, 반복적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요소	면담조사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전문가 네트워크, 설문조사 대상 중 섭외
면담참여자 수	약 40명 청소년 9-24세 (약28명) / 기관종사자 (약12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생애주기별(초/중/고/대 연령대) 청소년서비스기관 이용자(설문대상)
면담방식	줌(ZOOM)을 활용한 1대1 심층면담(청소년) 소그룹화상회의(기관종사자) 반구조화된 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1시간, 1-2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취
면담자	연구진, 면담전문가

○ 양적·질적 조사도구 개발과정

본 연구는 실행계획 단계에서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방향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가족 환경 변화의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사항임을 확인하고, 국내외 문헌조사, 본 연구의 가족환경 변화와 청소년 개념틀 구안을 통해 조사도구 초안을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과 현장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양적·질적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① 가족관계(가족내 상호작용), ② 학교 및 사회관계, ③ 가족형태 및 가족구성원, ④ 가족기능, ⑤ 청소년서비스기관 이용경험/인지도, ⑥ 가족환경 변화 경험/어려움, ⑦ 가족 서비스 요구사항, ⑧ 삶의 행복도, ⑨ 배경정보이다(표 III-1 참조).

면담조사의 내용은 ①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② 대처가 어려웠던 이유, ③ 제공 받은 서비스, ④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도움이나 서비스, ⑤ 가족지지와 가족의 의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VI-1 참조).

양적 질적 조사도구의 현장 전문가 5명(청소년서비스기관에 근무)의 검토와 현장 예비

조사를 통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현장 예비조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생(4-6학년) 10명, 청소년부모(18-24세) 3가정을 조사하였다. 조사도구 개발과정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초안작성, 현장전문가검토, 예비조사, 전문가자문, 연구회의로 질문의 로직과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여 확정하였다. 모바일 설문조사, 화상 면담조사를 병렬적/동시적 통합 방법설계로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 조사실시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을 확정하였고 가족환경 실태조사지를 개발하고, 협조공문 발송을 통하여 조사섭외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관은 방과후아카데미, 상담복지센터/꿈드림, 대학교/전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청소년부모 지원단체이다(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IRB 승인을 받았음. 승인번호 202206-HR-고유-015).

① 방과후아카데미 (초등/중등 연령)

■ 모바일/웹 설문조사

초등 방과후아카데미	중등 방과후아카데미
○ 대상 : 초4-6 청소년 총 500명	○ 대상 : 중1-3 청소년 총 500명

■ 면담조사 ※ 줌(ZOOM)을 활용한 1대 1 면담 (현장 상황에 따라 대면 가능)

초등 방과후아카데미	중등 방과후아카데미
○ 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종사자 총 10명 ■ 청소년(초4-6학년) : 5명 ■ 종사자 : 3명(※기관 경력포함 5년 이상)	○ 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종사자 총 10명 ■ 청소년(중4-6학년) : 5명 ■ 종사자 : 3명(※기관 경력포함 5년 이상)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등 연령)

■ 모바일/웹 설문조사

고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대상 : 고1-3 청소년 총 300명	○ 대상 : 고등연령 청소년 총 200명

■ 면담조사 ※ 줌(ZOOM)을 활용한 1대 1 면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종사자 총 5명 ■ 청소년(고1-3학년) : 5명 ■ 종사자 : 2명(※기관 경력포함 5년 이상)	○ 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종사자 총 5명 ■ 청소년(고1-3학년) : 5명 ■ 종사자 : 2명(※기관 경력포함 5년 이상)

③ 대학교학생상담센터 (대학 연령)

■ 모바일/웹 설문조사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대상 : 대학생 총 250명	○ 대상 : 대학생 총 200명

■ 면담조사 ※ 줌(ZOOM)을 활용한 1대 1 면담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전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대상 : 대학생 및 학부모, 종사자 총 5명 ■ 대학생(18-24세) : 5명 ■ 종사자 : 2명(※기관 경력포함 5년 이상)	○ 대상 : 대학생 및 학부모, 종사자 총 5명 ■ 대학생(18-24세) : 5명 ■ 종사자 : 2명(※기관 경력포함 5년 이상)

④ 청소년부모지원 킴메이커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

모바일/웹 설문조사	면담조사
○ 대상 : 청소년부모(-24세 이하) 총 50명 ○ 방법 : 웹/모바일 링크를 이용한 웹조사	○ 대상 : 청소년부모, 종사자 총 4명 ■ 청소년부모(16-24세) : 3명 ■ 종사자 : 2명(※기관 경력포함 5년 이상) ○ 방법 : 줌(ZOOM)을 활용한 1대 1 면담

4) 정책세미나 및 정책실무협의회

○ 여성가족부 정책실무협의회(1회) 및 외부전문가 자문(조사도구 구성 및 연구내용 관련 각 1회), 정책세미나 및 포럼(2회)을 개최하여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횟수	내용	자문진	비고	
1회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향을 위한 정책실무협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등	2.14.	 청소년지원체계변화모색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지원 체계 변화 모색 주요 내용 1. 청소년 지원 정책방향, 향후 주요 정책·제도 방향 2.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 3. 관련 정책·제도 현황 및 과제 4.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 참고 문헌 1. 청소년 지원 정책방향, 향후 주요 정책·제도 방향 2.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 3. 관련 정책·제도 현황 및 과제 4.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 청소년지원체계변화모색 보고서 주요 내용 1. 청소년 지원 정책방향, 향후 주요 정책·제도 방향 2.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 3. 관련 정책·제도 현황 및 과제 4.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 참고 문헌 1. 청소년 지원 정책방향, 향후 주요 정책·제도 방향 2.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 3. 관련 정책·제도 현황 및 과제 4. 청소년 지원 정책 방향
1회	조사지 개발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4.7.~15	
2회	(가족변화와 청소년) 전문가 정책세미나 개최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정부부처 담당자	4.27	
	(가족변화와 청소년) 청소년정책포럼 개최		5.27	
1회	생애주기별 발굴-과정-종결 단계별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9.27. ~28	

청소년지원체계변화모색 보고서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의 변화와 청소년
- 2. 가족환경 변화와
청소년지원 선행연구
- 3.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청소년지원 현황

1. 가족의 변화와 청소년²⁾

1) 청소년, 가족, 생애과정

청소년과 청소년기는 근대사회에서 만들어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범주이다(Jones & Wallace, 1992). 아동, 청년, 노인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범주로서 청소년 역시 명확하게 한계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일관된 연령기준을 통해 각 생애국면을 구분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일의 어려움은 자주 지적되어 왔다. 연령 기준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위치를 중심으로 청소년기를 정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과 학교, 청소년과 국가, 청소년과 노동시장,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 등을 관찰하면서, 일반적인 청소년과 청소년기의 특징을 도출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청소년(기)을 보호가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로 볼 것인가, 주체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볼 것인가는 이러한 제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각 제도들의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는 청소년의 계층, 젠더 등 불평등체제에서의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와 성격을 파악하는 일은 이러한 변화와 차이를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을 정의하고 청소년의 고유한 필요와 정체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은 물론 청소년과 관계맺는 여러 사회제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청소년(기)이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회제도이자 일상적 생활세계로서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고, 청소년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족과 청소년은 친숙한 주제이지만, 가족 연구에서 청소년은 주변적인 존재였고, 청소

2) 본 절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자료회의 및 청소년정책세미나(2022.4.27.)의 발표와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최선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함..

년 연구에서도 가족은 주변적인 주제였다. 가족 연구에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지만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되며, 미시적인 부모-자녀 관계나 중범위적인 세대간 관계 및 규범 등을 다루는 경우에도 아동과 성인의 관계,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 등에 연구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청소년의 시각에서 가족의 특성과 변화를 바라보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에게 가족은 당연한 생활환경으로서 이해될 뿐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청소년의 다양한 가족환경을 검토하여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는 접근은 일반적이지만, 이때 청소년과 가족은 문제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편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가족과 부모로부터 이동하여 차츰 또래집단, 학교, 대중문화, 상품시장 등에서의 활동 비중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관련 연구들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과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가족 외부의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을 고찰해왔다.

가족 연구와 청소년 연구는 이처럼 소원한 관계에 있었지만, 최근 '생애과정의 구조변동'과 관련하여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는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애과정의 구조변동은 첫째, 성인 이행의 지연, 즉 청소년기의 연장으로 나타나고 있다(Furstenberg, 2010). 교육기간의 연장,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지연, 결혼/출산 시기의 지연과 후퇴 등은 청소년기가 생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도록 만들고 있다.³⁾ 둘째, 생애과정의 형태가 '탈정형화'(destandardization)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사이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생애사건의 정형화된 시점과 순서로부터 벗어난 탈정형화된 생애과정이 늘어나고 있다(Arnett, 2007; Buchmann, 1989).

지금까지 청소년기의 주요 목표가 성인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을 위한 준비였다면, 이행의 지연이나 탈정형적 생애유형은 청소년기의 실패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생애과정의 구조변동은 청소년정책에서 이행을 비롯한 생애과정 시점과 순서의 비전형적 특성을 실패나 이탈이 아니라 다양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를 제기한다(김선기, 정준영, 채태준, 강보배, 송효원, 2019; 이정봉, 2021).⁴⁾

이 장에서는 생애과정의 변화와 관련된 가족규범과 가족행동의 변화를 통해, 가족과

3) 성인 이행의 지연을 청소년기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과 새로운 생애단계로서 '청년'(young adulthood)의 출현으로 간주하는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Hendry & Kloep, 2007).

4) 이러한 생애과정의 변화는 청소년과 구분되는 범주로서 청년(young people; emerging adulthood)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법적 성인연령과 학령을 제외한 가족 및 사회적 맥락에서 청년과 청소년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와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청소년 각각이 본질적으로 이질적이며, 점점 더 이러한 이질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가족의 변화와 자녀로서 청소년

청소년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는 가족 내 자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라는 위치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청소년의 다양한 정체성 중 하나를 조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은 청소년에게 일차적인 관계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적, 정서적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가족의 변화와 한국 가족의 자녀중심적 특징을 고찰하고, 최근 이러한 가족과 청소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1) 20세기 한국 가족과 자녀 중심 핵가족

20세기 동안의 가족 변화는 핵가족화로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다(Goode, 1963; Therborn, 2004). 핵가족화는 함께 사는 친족의 범위가 부부와 미혼자녀로 단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외형적인 핵가족화와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생활단위가 단순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강조되지 못했던 부부간의 애정과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가족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가치의 변화를 모두 일컫는다. 이러한 핵가족화는 전통적인 친족질서에서 남성 연장자와 여성 및 연소자 사이의 위계적 관계가 약화되고 수평적이고 정서적인 관계가 강조되는 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를 초래한 사회의 현대화는 근대적인 노동시장의 발달, 근대 교육제도의 발달,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 등과 직접적/간접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위계와 통제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의 전통적인 양상을 수평적이고 소통적이며 정서적 친밀성을 중요시하는 가족으로 변형하도록 만드는 압력이 되었다.⁵⁾

외형적 핵가족화는 산업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가족변동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이 되었지만, 핵가족 가치의 확산은 사회에 따라 다른 양상을

5) 가족 내 위계의 희생자인 여성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각종 개혁운동이 등장하며,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부계적 친족질서로부터 핵가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비공식적이고 미시적인 실천들도 나타나게 된다.

나타내었다(Therborn, 2004). 북서유럽과 북미 등에서 발달한 현대 핵가족은 가족관계의 중심을 부부관계로 단순화하고 부부관계를 역할분리에 기초한 애정적 결합으로 재구성했다. 사랑에 기초한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이러한 부부중심성이 결혼한 커플을 기존의 친족관계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단위로 구축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다(Coontz, 1992; Coontz, 2005; Shorter, 1975).

이와 달리 한국의 20세기 핵가족화 과정에서 가족관계의 중심을 차지한 것은 부부중심성이 아니라 자녀중심성이었다(이재경, 1999). 점차 배우자선택의 자율성과 연애문화 등이 발달하였지만 핵가족생활에서 부부중심성은 친족의 영향력과 타협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생계부양과 자녀양육 및 교육 등 각종 도구적인 기능이 부부간의 성애적이고 정서적인 기능을 압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함인희, 2001). 이러한 특성은 핵가족단위의 생활공동체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도, 노인 부양이나 아동 양육 등의 역할이 가족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다(장경섭, 2009).

한국 핵가족에서 아동·청소년은 독특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한국사회의 현대적 변화과정에서 가족이 수행한 역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 핵가족에서 자녀중심성은 세대관계에서 자녀 위치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세대에 대하여 자율성과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연소노동력과 가족 내 어린 자녀(주로 딸)는 아동노동을 통해 가족경제에 기여해야 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사이의 격차가 컸으며, 교육기회를 통한 계층상승기회를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불만이 컸다.

1970년대 이후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확대에 따라, 청소년기는 학교제도에 거의 완전히 포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은 교육비 부담을 비롯하여, 상급학교 진학과 직업 지위 향상 등의 뚜렷한 ‘교육’ 목표를 제공했다. 현대적인 ‘청소년기’는 ‘국가-학교-가족의 동맹적 관리체제’(장경섭, 2009: 164) 안에서 형성되었다. 이 삼각동맹에서 가족(부모)은 청소년기의 독자성이나 자율성을 인식하기보다는 지위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을 활용하였다.

1990년대 민주화와 소비자본주의의 확산, 그리고 핵가족화에 의해 청소년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개인통신 수단의 확산과 10대 중심의 대중문화산업 발달은 청소년이 학교와 가족의 양대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경쟁체제는 광범위한 사교육시장

의 발달을 따라 오히려 팽창하고 강화되었다. 정보통신산업과 대중문화산업은 청소년을 소비주체로 호명했으며, 청소년의 행위성(agency)이 산업의 확산과 대중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획일적인 성인이행의 경로와 입시 경쟁 등으로부터 청소년기의 다양성을 발전시키는 힘이 되지는 못했다(장경섭, 2009).

(2) 21세기의 가족과 청소년

서구가족과 한국가족의 차이는 20세기의 핵가족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변화 양상과도 관련된다. 서구 가족에서는 이혼, 동거 등 부부의 성적 결합과 관련된 변화가 가족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한국 가족에서는 일정 수준의 이혼율이 유지되면서도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 등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실천 변화는 미미하다.

21세기 첫 20년 동안 한국 가족의 변화에서 관찰되는 두드러진 특징은 가부장주의의 약화와 젠더관계의 변형, 그리고 자녀중심성의 고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과거부터 전승되어온 관습이나 관행이 새롭게 정당화될 것을 요구받는 탈전통화(detraditionalization)의 성격을 갖는다.

2000년대 초까지도 다수의 한국인들, 특히 20세기 초·중반에 태어난 장년세대와 노인 세대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을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으로서의 도리로 정당화했다. 또한 성인자녀가 결혼 이후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의 노후 부양을 책임지는 일도 세대간 필요의 합의에 따른 것보다는 주로 장남의 역할과 도덕적 책임으로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부계중심적 가부장주의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약화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크게 위축되었다. 현대적인 부성(父性)은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가족구성원을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성과 수평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부성으로 변모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의 의미도 크게 변화하였다. 최근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제 결혼과 출산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성인 자녀 사이에 고르게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온전한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분담되어야 할 의무로 간주한다(박종서 외, 2020).

21세기 가족의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족 내의 여성의 역할이 변화한 것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하여 현재 대학진학률에서 남녀의 차이는 사라진 지 오래이다.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임신·출산·육아기의 경력단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 연령대에서 여성의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 변화는 현실보다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더 극적이다. 여성은 물론 남성도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은 함께 일하고 함께 기르는 공동부양 공동양육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박종서 외, 2020).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 강조는 가족 내 여성의 위상을 변화시키고, 가족 내 젠더 및 세대 간 역할의 재편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압력이다.

가부장주의의 약화와 젠더관계의 변화는 21세기 가족의 변화를 이루는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흐름이지만,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족 내 권력의 위계와 불평등한 분업 등은 여전히 문제이며, 가족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과거에는 억압적이라든가 자명한 규범이 존재하여 순응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오늘날에는 젠더와 세대로 구분되는 상이한 위치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이라고 말해주는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적인 갈등과 긴장이 가족생활을 지배하며, 타협과 협상의 과정이 가족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올리히 벡은 20세기 후반 이후 가족, 생애과정을 포함한 사회변동의 특성을 논의하면서, 그것은 근대적인 것으로부터의 단절이라기보다는 근대성의 심화와 급진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Beck & Beck-Gernsheim, 2002; Beck, Bonss & Lau, 2003). 이러한 시각을 동원하여 21세기 한국 가족의 변화를 이해한다면, 뒤에서 살펴볼 인구학적 급진성(저출산, 비혼, 1인가구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둘러싼 가치와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근대적인 원리와 가치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이 급진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 핵가족의 역설적인 자녀중심성이 그러하다. 21세기 첫 20년간 한국사회에서 관찰된 현상은 지난 20세기 후반의 자녀중심성이 더욱 심화되고 고도화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자녀중심성의 고도화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시장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과 청소년의 관계는 계층적으로 차별화되며, 자원을 동원할 수 없는 가족에서는 부모-자녀 관계 자체가 위기를 경험할 개연성이 커진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성인 이행기를 경유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커질 수 있다.

3) 생애과정의 구조변화와 청소년기에 대한 도전

(1) 가족의 외형적 변화

20세기 후반부터 가족실천에서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했다. 주로 가족인구학적 행동과 관련된 변화가 크다.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결혼율이 떨어졌으며, 출산율도 크게 하락했다. 1인가구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이 당연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삶에서 가족이 차지했던 필수불가결성도 상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는 주목을 요한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혼자 사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가족이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규범도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생애시기에 따라 가변화되고 대체로 축소되는 경향이다.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1990년 3.77명에서 2020년 2.40명으로 감소했다(박종서 외, 2020). 또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9.0%에서 2020년 30.3%로 증가했다.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990년 58.1%에서 2020년 20.7%로 대폭 감소했다.

표 II-1. 평균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변화 추이(1990~2020)

(단위: 명, %)

구분	평균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1990	3.77	9.0	13.8	19.1	29.5	28.6	100.0
2000	3.12	15.5	19.1	20.9	31.1	13.4	100.0
2010	2.69	23.9	24.6	21.3	22.5	7.7	100.0
2020	2.40	30.3	28.0	21.0	15.8	4.9	100.0

* 출처: 박종서 외(2020).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p. 47.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특정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가족생활을 하고 있을지 기대할 수 있는 전형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러한 기대를 벗어나는 생활유형, 즉 비전형적인 생활유형이 늘어났고 전형적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이 전체 가족·가구 유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1인가구의 증가는 기대여명의 상승에 따라 노년기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혼인과 출산의 감소, 혼인연령의 상승, 이혼·별거 등에 따른 증가도 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원진, 김현경, 오옥찬, 함선유, 한겨레, 2021; 황정미, 김수정, 변수정, 이순미, 2020). 현재의 1인가구 증가를 비롯한 가구형태의 단순화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과거처럼 가구형태의 표준 또는 전형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소년 포함가구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청소년 포함가구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즉 현재 전반적인 가구유형의 변화는 청소년 포함가구의 비중 감소이지, 청소년 포함가구 자체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표 II-2〉는 24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가구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대부분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로 살고 있다. 조부모를 포함하는 3세대 가족까지 합하면, 2020년 현재 15세 미만의 99.8%, 15-19세의 95.4%, 20-24세의 77.2%가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하나의 가구를 이루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가구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족의 비중이 크고, 1세대 가족이나 1인가구의 비중은 극히 낮다. 전체 인구의 가구형태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24세 미만 청소년 포함가구에서 1인가구의 비중은 제한적이다.

아동·청소년 포함가구의 특성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가구 세대의 크기보다는 가족구성원의 다양성이다. 생애주기의 특성상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거하면서 부양과 보호를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부양자가 부모인가, 조부모인가, 부모는 양친이 모두 함께 동거하는가, 아니면 한부모인가 등은 과거보다 더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현재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전형적 핵가족의 비중은 15세 미만의 76.6%, 15-19세의 66.2%, 20-24세의 49.3%에 불과하다. 대신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로 인한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15-19세에서는 16.7%, 20-24세에서는 16.9%를 차지한다.⁶⁾

6) 이 수치는 2세대 한부모가족만을 나타낸 것이다. 한부모가족 중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3세대 이상 가족에 포함된다.

표 II-2.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연령집단별 가구형태(2015, 2020)

(단위: %)

연령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가구	비친족 가구
		계	부모 동거	한부모 동거	조부모 동거	기타			
〈2015〉									
15세미만	0.1	86.5	71.7	11.7	0.7	2.4	13.4	0.0	0.0
15~19세	0.9	85.5	63.5	18.1	1.0	3.0	11.4	2.0	0.2
20~24세	3.8	72.9	50.8	17.5	1.0	3.6	8.5	13.3	1.4
〈2020년〉									
15세미만	0.1	89.7	76.6	10.4	0.8	1.9	10.1	0.0	0.1
15~19세	0.8	86.3	66.2	16.7	0.9	2.5	9.1	3.4	0.3
20~24세	3.3	70.4	49.3	16.9	1.1	3.1	6.8	17.6	1.8

* 주: 이 수치는 '일반가구원'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임.

* 출처: 통계청(2015b, 2020e).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

생애과정의 한 국면으로서 청소년기는 성인기와 달리 가족환경에 대한 의존정도가 강하다. 그러나 아동기와 달리, 청소년기의 가족의존성은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가족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과 완전한 자율성 사이의 스펙트럼에 위치한다(전상진, 2006). 이러한 스펙트럼 내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청소년과 가족이 놓인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의 외형적 다양성을 넘어 가족 내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에서 부양, 보호 등의 차별적이고 다양한 환경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난 시기는 1997-98년 외환위기였는데, 이때, 결혼이 감소하고 이혼이 증가하였으며, 가족규모도 축소되었다.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위기는 이후 경제위기의 극복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 이후 전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불안정노동의 확산은 한국사회의 곳곳에 영향을 미쳤고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혼과 출산의 감소, 1인가구의 증가 등은 외부적 상황에 대해 가족이 가족의 영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장경섭, 2018). 그러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등은 개인들이 가족 바깥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지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혼인과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기도 했다(김혜경, 2002). 새롭게 가족 관계를 확장시키거나 창출하는 것은 신중을 요구하는 일이

되었고 그에 따라 인구학적 위축이 나타났지만, 일단 맺어진 가족관계 내에서는 정서적 측면과 도구적 측면 모두에서 가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박종서 외, 2020).

(2) 생애과정의 변화: 성인 이행기간의 연장과 탈정형화

앞서 살펴본 가족의 외형적 변화는 가족 그 자체의 변화보다는 가족관계와 가족규범을 상대하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미시적 행동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개인의 의사결정은 전통적인 시간·연령규범을 벗어나서 주요한 생애 이행의 시점을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조정하는 양상이다. 학교를 졸업하는 시기, 부모가족으로부터의 독립시기, 노동시장 진입 시기, 결혼시기, 출산시기 등 사회적으로 성인됨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춰졌으며, 집단화되기보다 개별화되고 있다(이상직, 2022).

이러한 변화는 단지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결혼연령의 상승경향은 최근 들어 성인됨과 결혼을 분리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택적 태도와 더불어, 결혼이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20대, 30대의 시각이다. 취업도 마찬가지다. 취업시기가 늦어지기도 했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추는 일은 쉽지 않아졌다. 일자리에 진입한다고 해도 성인됨(경제적 자립)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취업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부모집을 떠난 후 다시 되돌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목표인 '성인 이행'에서 성인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김선기 외, 2019; 이정봉, 2021).

청소년기(adolescent) 또는 청년기(youth)는 근대 산업사회의 가족, 학교교육, 노동시장의 제도적 배치(institutional arrangement)에서 나온 역사적 구성물이다(Smelser & Harper, 1978). 19-20세기의 근대화 과정은 인간의 생애를 노동준비기간-노동기간-은퇴기간과 같이 노동을 중심으로 재편성하였다(Kohli, 2009). 생애시간의 근대적 제도는 가족에 통합되어 있던 다양한 기능이 학교교육제도와 노동시장제도, 복지제도(은퇴제도) 등으로 분화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중요성이 축소되거나 가족의 역할이 사소화된 것은 아니었다. 가족은 근대화라고 불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쳐가면서 아동·청소년의 가족 내 가치를 새롭게 구성하고, 부모-자녀의 규범적 관계, 부모 및 자녀의 역할을 구축하였다.

20세기 근대화과정에서 생산공동체로서 대규모 가족은 성인 남녀의 역할분리와 자녀 규모 축소를 통한 핵가족으로 변형되었다. 생계수단을 확보하는 기능은 주로 남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의존하게 되었고, 가족은 생산적 기능을 상실하고 소비에 기초한 일상적 재생산과 자녀돌봄 및 사회화의 기능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가족에서 아동·청소년은 직접적인 생산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아닌 미래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과거 가족농에서 아동·청소년은 성인 부모와 함께 가족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이었다. 이는 곧 아동·청소년과 같이 특정한 연령이나 생애단계가 성인과 구별되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아동·청소년은 가족·친족 관계에 의해, 즉 자녀라는 친족적 지위에 의해 규정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사회화는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훈육과 훈련 등은 부모의 통제력에 달린 문제가 되었다. 이와 달리 산업사회의 근대가족에서 아동·청소년은 더 이상 가족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적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된다. 부모의 시각에서 자녀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긴 교육기간과 교육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의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는 세대간 부의 흐름(intergenerational wealth flow)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기간이 장기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드는 부담의 증가는 자녀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가족의 계층적 위치에 따라 장기적인 자녀교육투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 계층 가족의 청소년은 일찍 성인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짧은 반면, 중산층 가족에서는 청소년기의 길이가 길고 상대적으로 늦게 성인이 된다. 중산층의 청소년기는 인적자본투자가 집중화되는 시기로 자리매김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계층적 분화는 청년 노동시장의 계층적 분화, 그리고 하위계층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이 중산층으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는 선진 산업국가 하위계층 청년들의 주요한 일자리로서 생산직 일자리가 사라지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실업률을 높이고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점을 지연시켰으며 안정된 일자리에 진입하기까지의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Jones & Wallace, 1992).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확산되었다. 안정되고 보상이 높은 일자리와 불안정하고 보상이 낮은 일자리 사이의 격차가

켜졌다. 대기업의 사무직, 생산직 일자리의 비중이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가족의 대응은 기존의 입시경쟁을 넘어 취업경쟁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성장과 성숙의 과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에 종속되었고 더욱 획일화되어 왔다(장경섭, 2009).

4)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로

성인 이행 경로의 탈정형화는 단일한 경로로 성인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의 약화 내지는 부재를 의미한다. 현재의 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가족제도는 모든 청소년에게 성인이행의 전망을 제공하는 데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소년기의 이행 과업에 대한 시각은 성공적인 이행과 실패한 이행으로 이분법적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Schoon, 2015). 특히 청소년 연구의 주류적 시각인 이행기적 관점은 심리사회적 발달과 직업획득을 청소년기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간주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서 성인과업을 내면화하고 성공적으로 상급학교와 직업세계에 진입하는 청소년을 이상적인 모형으로 간주하여 왔다(전상진, 2006). 이러한 틀에서는 청소년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나 이질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고, 이질성을 다루더라도 불리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구조의 일반적인 희생자나 외부적 통제에 의해 교정되어야 할 ‘문제 청소년’으로 간주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청소년의 청소년기 역시, 성인들의 사회적 삶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제약과 개인적 행위성의 조합이 낳은 산물이다(MacDonald et al., 2001). 따라서 제도적 한계 내에서 성인이행을 모색하는 청소년들의 생애경로나 청소년기의 활동 등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이분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불리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역시 자신들의 주어진 조건(경제적 자원, 지역 문화, 동년배 네트워크 등)에서 자신들의 생애를 복잡하게 구축해나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청소년 정책은 이행기로서 청소년기의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choon, 2015).

청소년과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의 의존성은 성인세계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일수록 청소년의 현재성은 존중받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청소년의 자율성은 미래지향성을 강요하거나 지원하는 성인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현재지향성과 연관된다(전상진, 2006). 가족의 계층적 위계는 청소년의 의존성과 자율성을 가르는 일차적인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결정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개인생애와 가족생애의 유동성이 커지고 비전형성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이행경로가 존중받고 의존성과 자율성이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다양한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원, 그리고 존중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가족의 직접 지원에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과의 갈등’이 집을 나온 이유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을 이용한 청소년은 부모-자녀 관계 경험이 부정적이었고,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경험도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72.1%가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황여정 외, 2022). 가구형태 상으로는 전형적인 4인 핵가족에 속하더라도, 가족 내 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부모의 보호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청소년의 의존성(이행기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는 소수더라도 전형적이지 않은 생애경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청소년 1인가구, 청소년 1세대 가구, 청소년 부모가구 등 비전형적 생애경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습권이나 노동권, 사회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이행기이다. 다양한 가족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이행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생애과정의 비전형적 형태를 배제하지 않는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2. 가족환경 변화와 청소년지원 국내외 선행연구⁷⁾

1) 가족환경 다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통계청(2015a)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구조적 측면에서 가족 형태를 부부, 부부와 미혼 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친, 부부와 양친과 자녀, 기타 가족으로 구분하였고. 통계청(2021)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1인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으로 부상함에 따라 가족유형에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1인가구를 추가 제시하였다. 한편 통계청(2016) 장래가구특별추계(2017-2047년)에서는 가족형성과 해체의 변화를 추세를 반영하여 비친족(혈연)가구를 추가한 가족현황을 제시하였다.

7) 본 절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함.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김영란 외, 2021b)에서는 2020년 기준 평균 가구원 수가 2.3명으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2015년 대비(44.2%→31.7%) 12.5%p 크게 감소한 반면, '1인가구'는 30.2%로 두드러지는 증가 추세로 나타나, 주된 가족유형으로 부상함에 따라 '1인가구'의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가족형태별 생애주기를 반영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여성가족부, 2021e)에서는 기존의 가족 유형별 부분적 지원 정책이 자칫 특정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다른 가족을 배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부 가족 유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모든 가족과 그 가족 구성원을 고려하는 포괄적 방식으로 지원정책 개선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가족이 이전과 다른 발달적 맥락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이는 가족 내의 청소년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과 가족의 연결 접점을 파악하여 다양한 가족환경과 사회환경에 맞는 적절한 청소년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가족환경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송효진 외, 2021),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박종서 외, 2020),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박복순 외, 2019a),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그리고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김영란 외, 2021b),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2020) 등이 있다.

그동안 가족 관련 법은 양성평등의 제고 및 아동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여 온 가족의 다양한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가족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정형화된 가족형태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시대상황에 놓여 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가족이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어떠한 차별도 따르지 않도록 현재 다변화되고 있는 가족의 다양화 현상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박종서 외, 2020; 박복순 외, 2019b).

개인들이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생애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매우 많아지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소규모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줄어들고 자녀가 있는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돌봄자원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자녀 양육과 돌봄을

위한 공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송효진 외, 2021). 다른 한편 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된 가족정책의 범위에 포괄되지 못하는 ‘1인가구’나 ‘부부가구’가 증가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범위나 지향점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의 안정성, 가족 단위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으로부터 가족구성원 선택의 자율성과 경제적 자립을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송효진 외, 2021: 92).

더불어 송효진 외(2021) 연구는 1인가구의 증가를 기존의 가족관계의 변화와 연결된 흐름에 주목하였다. 1인가구 비율이 높음에도 출산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의 객관적 데이터들은 개인을 중심에 두는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적절한 돌봄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족의 재생산과 돌봄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정된 가족 규범을 절대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전통에 고착된 가족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1인가구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적 시선, 편견과 고정관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인식개선의 노력 및 문화적 접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송효진 외, 2021: 104). 다른 관점으로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개인 모델의 차이에서 돌봄 영역에서 강력한 국가개입이 필요하다(송효진 외, 2021: 111) 가족주의에서 개인화 경향으로의 이동에서 유럽 사회정책의 변화동향은 아동돌봄 서비스를 가정 밖으로 확대를 보여준다(송효진 외, 2021: 89).

한편 박복순 외(2019b) 연구는 다양한 가족환경에서 법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차별 제거와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박복순 외(2019b)는 가족의 개념을 혼인과 혈연을 넘어 정서적 유대, 생계, 공동주거, 친밀한 관계 등으로 확대되면서 동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여성가족부, 2021e)에서도 다양한 가족 정책은 ‘부모+자녀이외의 다른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에서 시작하였다. IMF 경제위기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한국의 인구학적 형태의 변화와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노인 단독가구, 동거가족 등 가족의 형태적 내용적 다양성을 증가시켰다(박복순 외, 2019b). 유엔의 가구 유형별 통계에서도 아이가 있는 커플 가구(38%), 확대가구(27%), 커플가구(13%), 1인가구(13%), 한부모(8%), 비친족가구(2%)로 나타났다(박복순 외, 2019b: 35-29). 건강가정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와 같이 가족정책과 가족 법제도를 제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담론은 가족 해체, 가족위기담론이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관계부처합동, 2020b)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과제로서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환경 다변화시대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삶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대로의 가족을 포용하고 어떠한 형태를 한 가족이든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박복순 외, 2019b). 이에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 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가족 개념 및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 심사 중에 있다(박복순 외, 2019a; 송효진 외, 2021, 여성가족위원회, 2020.12.). 가구구성원의 욕구를 생애주기 별(연령별)로 구분하는 등 개인특성을 반영한 급여체계를 도입하여 사회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송효진 외, 2021).

다양한 가족을 위한 차별없는 양육환경 실현을 위해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어떠한 아동도 가족형태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은 포용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박복순 외, 2019a: 87). 소득계층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특히 고소득 계층의 맞벌이 비중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정책적으로 노동시장 성평등 기초와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직장에서의 경력관리의 성평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박종서 외, 2020: 5). 또한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 아동의 돌봄노동시간 확보와 더불어 돌봄노동에서의 젠더 균형적 시각을 담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가족의 변화 특징으로, 박종서 외(2020)는 가족의 변동을 크게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주제 영역에서 변화의 과정과 주요 양상을 파악하였다. 첫째로, 가족형태 및 속성이 한국적 핵가족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외환 위기 이후 점차 다양화 혹은 유연화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둘째, 경제활동의 영향으로 가족의 생계부양모델이 남부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전환하였다고 보았고 셋째, 돌봄주체가 여성과 가족에서 그 대상이 다원화 되고 있으며, 넷째, 가족관계 측면에서는 그 속성이 권위적/위계적 관계에서 평등적/민주적 관계로 변화하고, 다섯 번째, 문화적 측면에서는 차등주의에서 평등주의로, 배타성은 유연성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서용석 외(2011)는 미래 가족환경 변화의 주요 동인(driving force)을 저출산·고령화 추세,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복지수요 증가, 과학기술 융복합화로 제시하고, 미래 가족환경 변화의 영역을 가족형태, 가족기능, 가족관계, 가족구성원의 역할로 제시하였다. 사회문화 영역의 정책과제로 가족지원체계의 정비 및 인식 개선, 사이버 공간 확산 및 물리적 공간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생애주기적 아동·청소년·여성·가족 서비스에 대한 연구

대부분의 가족 관련 연구들이 가족구성원 중 부모, 성인의 입장에서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녀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가족 구성원 개인 권리와 욕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평등한 가족관계 구성을 위해 당사자인 ‘청소년의 욕구와 시점’에 기반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23개 중앙행정기관의 400여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공공포털사이트(bokjiro.go.kr) 복지로⁸⁾에 따르면, 생애주기별로는 임신·출산·영유아기 지원서비스 219건, 아동·청소년기 지원서비스 242건, 청년기 지원서비스 267건, 노년기 지원서비스 186건이다. 이 중 아동·청소년기 연령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242건의 서비스는 일부 보편적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주로 차상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탈북이주배경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거나 소수의 위기가정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족 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울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청소년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기반한 정책 및 서비스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생애주기적 아동·청소년·여성·가족 서비스에 대한 연구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2020), 아동·청소년·여성·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이원희 외, 2016), 지역사회 청소년·가족서비스 연계 시범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서정아, 201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아동·청소년 지원(복지로, 보건복지부, 2021), 여성·청소년·가족정책 효율화 및 연계기반 구축-돌봄과 안전(장혜경, 홍승아, 장미혜, 황정임, 정수연, 2012)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경제

8) 복지로, 복지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elfareInfo/moveTWAT52000M.do>에서 2022년 1월 11일 인출.

이완을 통해 지역사회 가족기능의 역할 보완으로 임신·출산부터 아동 양육,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청소년기까지 연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돌봄의 가족-지역사회-국가역할 연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사회의 적절한 개입 결여로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장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적 접근(Life Cycle Approach)방식의 돌봄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가족 안정성은 돌봄 관련 정책부문간의 시너지 확대에 의한 그 정책성과로 좌우될 수 있으므로 돌봄의 관련 주체들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 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장혜경 외, 2012).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2020)에 따르면, 향후 국가(시도, 지자체 포함)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로 '고용/취업'(44.9%) 서비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인돌봄'(43.3%), '아동돌봄'(40.7%),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3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남성은 '보건의료·건강관리'와 '주거'를, 여성은 '성인돌봄/상담'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주거/교육'과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확대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받고 싶은 '아동보육 및 보호서비스'로는 58.8%로 '방과 후 돌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44.1%), '베이비시터 이용'(39.5%), '학교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2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보육 및 보호서비스 관련 성별 서비스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남성은 '방과 후 돌봄/어린이집', 여성은 '베이비시터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도 요구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저소득 가구의 경우 '장애아동돌봄'을, 중위소득 가구는 '학교부적응'과 '위기청소년 지원', 고소득 가구는 '어린이집'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2020).

3) 기존 청소년지원 방식의 효과성 검토와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2020년 가족실태조사(김영란 외, 2021b)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균형 잡힌 식사,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대처, 가사, 문제나 걱정거리 등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정책들로 주택안정, 돌봄서비스 지원, 심리정서·사회 관계망 지원, 가사서비스 등의 다양한 지원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2020)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9.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은 10명 중 1명꼴로 저조한 편이었으며, 이와 반대로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도는 긍정에 대한 응답 비율이 70%를 상회하며 서비스 확대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용자 니즈와 정책 현장과의 괴리는 현재의 지원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편 논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보면 교육지원, 생활지원, 심리정서지원, 신체건강지원, 보호돌봄 등의 기초적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었고, 지원 대상 또한 가족 내 문제가 발생한 개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⁹⁾, 다양한 가족 환경 내에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족환경과의 관련성이 면밀히 고려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차원의 가족청소년 지원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2021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21a)’와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21b)’ 간의 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 분절된 정책 간 상호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방식으로의 재편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재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또 다른 배경에는 청소년의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급여형태의 구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의 급여 지원방식에는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물급여 방식은 이용자의 효용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현물급여는 이용자의 기초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목적에 맞게 현물로써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 때문에 기초욕구 보장 측면의 보편적 욕구에 해당되는 ‘교육’과 ‘건강’ 영역은 대체로 현물방식의 구성이 많고, 개인의 기호와 선호에 큰 차이를 보이는 ‘식생활’과 ‘의생활’ 영역은 현물급여 방식으로 구성되기도 하며, 보편·선별 양가적 특징을 보이는 ‘주거’와 ‘돌봄’ 영역의 경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개인욕구의 충족에 부합하도록 혼합급여 방식으로 급여의 비중을 논의하는 등(이현주, 김진, John Hudson, Stefan Kühner, 전지현, 2018), 이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지원

9) 복지로, 복지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fareInfo/moveTWAT52000M.do>에서 2022년 1월 11일 인출.

방식도 변화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것이 정부가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효용극대화를 존중하는 최적의 사회적 조합(김진, 2019: 2)을 둘러싼 지원 체계의 재편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국내 가족청소년지원 관련 법 및 정책 현황

‘가족’ 관련법과 정책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가족지원정책’,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다문화 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관계등록법, 아동복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가족친화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수당법, 장애아동복지법 등이 있다. 관련 규정 및 조례¹⁰⁾로는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강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가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경기도 가정박 청소년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유관기관으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있고, 정부 부처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법무부 등이 관련이 있고, 가족청소년지원 정책 동향은 가족다양성 포용정책,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강화, 지역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확대(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있다. 특히, 2021년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청소년복지법’의 개정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지원의 기본 단위가 되었던 ‘가족’의 정의 범주에 변화가 있었고, 가족 중심의 지원에서 청소년지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1인 청소년가구, 영케어러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청소년 지원 방향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과제를 도출하고 청소년지원이 어떻게 달라지고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볼 수 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 유형별 지원에서 “1인가구”를 대상에 포함하며, ‘지역사회’ 역할이 강화된 지역 기반 가족유형별 돌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인가구’

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외에도 ‘초등돌봄서비스’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취약·위기가족의 일상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이 강조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모델’을 제시하여 사회적 돌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은 ‘청소년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와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정책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5) 해외 가족청소년지원 관련 법 및 정책 현황

해외 가족청소년지원 관련 법 및 정책 현황으로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정책 추진기구의 공통점은 여성아동가정 또 가족 업무를 한 부처에서 아우를 수 있도록 추진 기구를 배치하고 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대상을 살피고 이에 따른 업무를 밀접하게 배치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조직 배치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정부 부처, 추진기구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타부처와의 협조관계를 작동시키는 기제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실행력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로 파트너 관계의 변화에 대응한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개인화에 따라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온 외국의 가족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PACS(동거계약 또는 연대계약) 관련 법제와 스웨덴의 동거법제,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만, 영국의 시민 파트너십 법률을, 독일의 생활동반자 관계법을 제정시행 등 가족에 대한 기능적구조적 변화 다양성 등에 대한 법제적 대응을 알 수 있다(송효진 외, 2021; 조경호, 문미경, 진종순, 한승주, 유수동, 2021).

현재와 미래의 청소년들은 가족환경의 변화를 극심하게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청소년 가족정책이 표준가족으로 만들려는 정책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사각지대 가족환경에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급속하게 증가될 수 있다(아마다 마사히로, 2019; 히라야마 료, 후루카와 마사코, 2016; Pearce et al., 2017). 가족의 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점점 더 한부모, 새부모, 생물학적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살게 되며, 새형제, 새자매, 조부모와 함께 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후기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은 일정 기간 동안 부모의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으며, 이사를 갔다가 돌아온 ‘부메랑’ 후기청

소년이 있는 가족은 적절한 자치권 부여 및 독립 구축을 협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환경 생활방식의 변화가 커지고 있다(Pearce et al., 2017).

오늘날 가족의 변화에 대한 세계적 현상은 가족의 단일한 형태만을 취하지 않으며, 친밀한 파트너십의 변화로 결혼을 지연시키고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르면, 혼인 외 관계도 가족생활에 포함되고 보호의 대상이 되며, 동거관계의 규율에는 크게 3단계(혼인, 등록 동거, 현상 자체로서의 비등록 동거) 설계를 하게 된다(박복순 외, 2019a). 가족다양성 중 동거관계의 보호 관련 해외사례로는 1960년대 이후 혼인율을 비롯한 인구변동과 가족변화를 겪으면서 사법부가 재산법 상 부당이득이나 공평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건별로 동거커플을 보호한 사례가 있으며, 국가에서 비등록 동거에 일정한 요건하에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고 등록 파트너십으로의 법제화와 점차적으로 동성 커플의 인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가 가족다양성에 대한 개인들 관계의 선택지를 넓힘으로써 생애사에서 혼인외에도 가족생활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한 과정이다(박복순 외, 2019a).

허민숙(2020)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부부) 또는 청소년 미혼부를 정책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청소년 부모가 정부 지원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청소년 부모를 위한 1:1 사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방문간호사 제도를 통해 출산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을 넘어서 청소년 산모일 경우, 청소년 부모 상황에 맞는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가족간호사파트너십(FNP)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일랜드 정부기관 TUSLA는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부모 및 그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청소년 부모를 직접 면담한 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허민숙, 2020: 10-12).

해외사례로서 아동청소년 가족서비스는 부모 가족들과 분리되기 전에 사전 예방으로 적극적으로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 가는 일을 예방하는 탈시설화 캠페인이 범유럽에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가족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보호시설에 배치되는 아동이 줄어들고 가족 기반 위탁 제공이 증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아동 보호 개혁과 탈시설화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여한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17). 해외의 아동보호절차 관련 사례로는 아동 청소년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나이, 인종, 민족, 종교, 문화, 성적 취향, 능력 및 사회적 차이가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의 보살핌과 보호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필요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환경 어려움의 초기발견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어디로 연결시키는지가 핵심사항이다(Hotchkiss, 2017).

3.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청소년지원 현황¹¹⁾

1) 가족환경 변화와 청소년지원제도 현황

(1) 맞벌이 부모와 청소년지원제도

맞벌이 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정책은 크게 아동 돌봄정책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시간정책으로 구성된다(김영란, 배호중, 선보영, 성경, 류연규, 2021a: 15). 이러한 지원이 충분치 않을 때 일-가정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녀돌봄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수향, 윤현철, 2022).

돌봄서비스는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방과 후 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방과후아카데미) 등 기관을 통해 직접 돌봄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김영란 외, 2021a: 16-17).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급간식비의 일부를 자부담할 수 있다.

이상의 자녀돌봄서비스는 방과후아카데미를 제외하면, 만12세 미만 즉, 초등학생 대상 서비스라는 점, 서비스 제공기관별 이용시간의 제한,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¹²⁾ 중에서 2021년부터 교육복지센터, 청소년센터와 협업하여 긴급돌봄지원사업 ‘마음품애(愛)’ 사업을(교육, 문화체험) 실시하여 돌봄 및 교육 취약 청소년을 지원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준 중위소득, 서비스의 종류 및 아동의 나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부모의 양육공백 사유(맞벌이나 한부모 등)와 소득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돌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 내 돌봄지

11) 본 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자문 및 청소년 정책포럼(2022.5.27.)의 발표와 논의사항을 토대로 배영미(서울여대 겸임교수)가 작성함..

12) 용산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1년부터 교육복지센터, 청소년센터와 협업하여 긴급돌봄지원사업 ‘마음품애(愛)’ 사업을(교육, 문화체험) 실시하여 돌봄 및 교육 취약 청소년을 지원했다. <http://www.wsnews.co.kr/67452>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원과 시설이용을 통한 자녀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4.14.)¹³⁾.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의 돌봄인프라 정도, 가족 소득이나 특성에 따른 학습격차가 더욱 커지고, 빈곤·한부모·조손가구 등 취약가정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김선숙, 2021).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적 돌봄체계에서의 돌봄보다 사교육을 더욱 선호하고, 부모의 고용형태와 지역 인프라에 따라 돌봄 공백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최세림, 2021: 36). 가족유형별로 보면, 1인 양육자 가정, 미혼부나 미혼모에게 자녀돌봄은 돌봄시간과 비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어려움이 증첩되며, 자녀가 성장하더라도 어려움이 감소하기보다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동하게 된다(변수정, 정희선, 최선영, 조성호, 2020). 따라서 가구특성과 욕구에 기반한 돌봄서비스의 제공방식과 인프라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최세림, 2021).

(2) 청소년부모 지원제도¹⁴⁾

“청소년부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한 포괄적 용어로 ‘청소년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은주희, 임고운, 2019: 3).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한부모”는 만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정의된다. 동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건강·교육·자립·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¹⁵⁾.

즉,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수급요건을 갖춘 청소년부모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비혼의 미혼모·부로 제한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부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여성가족부, 2022d: 331-334), 청소년부부가¹⁶⁾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한부모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은주희, 임고운, 2019: 6).

13) 이동선(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녀돌봄과 학업지원을 이유로 퇴직을 고려하게 된 여성이 10명 중 7명이었으며, 같은 조사에서 초등학생 10명 중 3명은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14) 본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2022) ‘가족변화 속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청소년한부모 지원의 사각지대 현황 및 개선방향” 배포은 대표 발표 원고 일부를 발췌하여 반영하였음.

15) 청소년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로 연령과 중위소득 72%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에 한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2c: 39).

16)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이기에, 법적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수의 청소년부모는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한다.

청소년부모 현황은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미혼모·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령별 청소년모의 출산현황은 15세 미만 11명, 15세부터 19세 사이 907명, 20세부터 24세 사이 9,612명이다(통계청, 2020a)¹⁷⁾.

표 II-3. 청소년모 현황

(단위: 명)

구분	15세 미만	15-19세	20-24세	계
계	11	907	9,612	10,530

* 출처: 통계청(2020a).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현황.

① 청소년한부모 지원제도

법적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로 인정된 가구(가구원)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의 급여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비를 제공한다.

표 II-4. 청소년한부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단위: 원)

지원대상/연령기준	지원내용	
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학습지원비	연 154만원 이내(최장 2년 지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중위소득53%~60%	고교생교육비	연 500만원 이내

주1)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산정

주2) 학습지원비의 경우 2022년부터 재학중인 경우 교복, 교통비를 지원하고, 검정고시 준비 학원을 다니는 경우 학원비 지원 등으로 확대

* 출처: 여성가족부(2022d).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2, 54-55.

17) 2019년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부모 315명 중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부모는 103명이었으며, 그 주된 사유로는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36명, 35%), 임신사실을 알고 학교다니기 어려움(34명, 33%), 출산으로 학업 계속하기 어려움(11명, 10.7%) 등이었다(은주희, 임고운, 2019).

다음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기관은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131개소(생활시설 122개소, 이용시설 9개소)이며, 이곳에서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¹⁸⁾(여성가족부, 2022d: 225). 그러나 시설입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이같은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22년부터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자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나, 청소년한부모 중에는 상기 기술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제도활용도가 낮은 편이다(허민숙, 2021a).

②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역량강화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비지원사업이 있고, 지자체 중 서울시에서¹⁹⁾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는 취약위기가족 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2022년부터 청소년부모를 지원²⁰⁾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2.22.). 이 사업은 위기가족역량강화사업 내 사업별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등이 상이하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유사사업 및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당사자의 이용성과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류정희 외, 2021: 126).

18) 이외에도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구직, 직업훈련, 근로) 제도 및 활용 가능한 제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이 있다(허민숙, 2021a).

19) 지자체 중 서울시에서는 청소년부모 지원의 적격성을 완화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서울신문(2022.3.31.). 청소년 부모 위한 지원정책 근거 마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62311?sid=102>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뉴스핌(2022.4.20.). 서울시, 전국 첫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마련한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20000229>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20)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사업 :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미만 청소년부모(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대상 청소년부모 멘토 파견(청소년부모 및 자녀의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긴급일시돌봄, 자녀양육지도 등), 심리상담, 법률지원서비스, 자원연계(주거지원, 생계지원, 양육지원 등 외부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

표 II-5. 청소년부모를 위한 부처별 지원제도

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여성 가족부	청소년부모 가족 역량강화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 중위수 득 기준 100% 이하	청소년부모멘토파견: 청소년부모 및 자녀의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긴급일시돌봄, 자녀양육지도 등) 심리상담지원,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자원연계(주거, 생계, 양육 등 자원 연계)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저소득돌봄취약 청소년부모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보건 복지부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사업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산부,영유아의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출처: 국민행복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youth.do>에서 2022년 5월 11일 인출.
보건복지부(2022b). 2022 모자보건사업 안내. pp.27-28.
여성가족부(2022a). 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 pp.63-64.
G-health (2020.8.5.).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https://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U00182&nttId=411884&menuNo=200460&lang=&searchCndSj=1&searchCndCt=1&searchWrd=&pageIndex=3&vType=>에서 2022년 5월 11일 인출.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방식으로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b: 27-28).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²¹⁾ 초기에는 시설입소자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지원 연령을 만 18세(2012년)에서 만 19세 이하로(2021년) 확대하고, 2022년부터 지원 항목을 확대하였다²²⁾.

건강권 차원에서 청소년모 의료비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하나(송효진 외, 2021), 청소년모의 출산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나홀로 출산’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성보호, 즉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허민숙, 2021b). 또한 본인의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정보접근성 정도에 따라 청소년모가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류정희 외, 2021).

이외에도 청소년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임신과 출산 관련(저소득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제도, 해산급여,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양육건강

21) 청소년모의 경우 임신 인지 시기가 늦고, 자연스럽게 첫 진료 시기 또한 늦어져 산전·산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이재희, 조미라, 최은경, 2021), 청소년모의 영아사망율이 20세 미만 7명, 20세-24세 사이 56명으로 높다(통계청, 2020c).

2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에서 2022년 5월 4일 인출.

관련(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주거(주거지원, 전세임대주택), 근로 관련(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장려금) 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표 II-6. 청소년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영역별 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임신 출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저귀 ²³⁾ (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출산) 1인당 70만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원 추가 지급)
	출산축하금	출산시 자자체별 지원 상이
	첫만남이용권 ²⁴⁾	출산시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양육 건강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한)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주거	주거지원	긴급복지지원대상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전세임대주택	최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지원
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심사 ²⁵⁾ / 선발형 특정계층 ²⁶⁾ 요건심사-1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취업지원서비 스 특정계층-2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훈련비 지 원대상 훈련과정 300~500만원 훈련비용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 50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 지급 -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직업훈련포털, 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hrd.go.kr/hrdp/gi/pgibo/PGIBO0101T.do>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마이홈, 전세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7>에
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2022a).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해산급여. p. 262.
보건복지부(2022.7.28.).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801&CONT_SEQ=372401에서 2022년 7월 30일 인출.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fareInfo/moveTWAT52011M.do?wfareInfoId=WLF00004656&wfareInfoReldBztpCd=01>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39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여성가족부(2022d).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p.1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출산축하금. <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ctpvCd=&sggCd=&curPage=1&srChKwd=%EC%B6%9C%EC%82%B0%EC%B6%95%ED%95%98%EA%B8%88>에서 2022년 5월 4일 인출.
*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선발형: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23) ①기저귀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②조제분류 지원(1의 요건 충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이상에서 살펴본 청소년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최저소득층에 제한된 서비스부터 보편적 서비스까지 제도별 수급요건이 매우 상이하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욕구가 있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며, 현금성 지원의 경우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전세임대주택과 같은 경우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배보은, 2022).

(3) 청소년 1인가구 지원제도

“1인가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되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²⁷⁾, 청소년인구(9~24세)는 830만 6천명이며, 1인가구 청소년 중 20세 미만은 72,119명, 20세~24세는 496,119명이다. 20세 미만 1인가구의 교육정도 기준, 대학생을 제외하면 중학교(1,695명)와 고등학교(23,440명) 1인가구는 25,135명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²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서 1인가구 위기청소년에 대해 명시²⁹⁾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다른 제도(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해 지원된다³⁰⁾(여성가족부, 2022d).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함)을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지급).

25)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26)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위기청소년, 중도입국자녀, 여성가구주,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27) 통계청(2022b). 2020년 성별·연령별·점유형태별 1인가구(일반가구)·시군구. <https://kosis.kr> 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28)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상에 1인가구를 포함하는 고독감과 고립감 해소 차원의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f).

29) 여성가족부는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과 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쉼터 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가구로 인정해 주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c: 508-515).

30) 중복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자립·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하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지원의 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교육지원·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이 사업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시·군·구에 신청³¹⁾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 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대상³²⁾이 된다.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1인가구 지원의 법적 근거를³³⁾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하며³⁴⁾, 이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48.9%로 가장 높다.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가 경제, 안전, 건강 등의 영역에서 다인가구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에서, 4대 안심정책(건강, 안전, 고립, 주거)을 시행하고 있다³⁵⁾. 이 사업의 특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1인가구 포털(<https://1in.seoul.go.kr>)³⁶⁾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일시적) 1인가구가 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있다는 점이다(배영미, 2022). 예를 들어 양부모가 모두 수감된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수감된 가정의 청소년이 해당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등에 부모가 수용 중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자녀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담인력이 보호조치(아동보호서비스)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조사 결과(2021)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 9-18세 자녀를 둔 부모 6,961명 중 54명의 수용

3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굴되는 경우 소속기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

3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60호 생활·건강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33)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6년 1인가구 지원의 법적 근거로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부산(2016), 세종(2017), 충남, 대전, 광주, 경남(2019), 경기, 전남(2020), 제주(2021)까지 전국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10곳에 달한다(DAILY POP, 2021.12.21.).

34) 서울시의 1인가구는 139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보도자료, 2022.5.11.).

35) 구체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건강, 경제자립, 안전, 주거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내 손안에 서울, 2022.3.15.).

36) 싱글벌거서울. 서울1인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자부모는 자녀가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2020년부터 보호대상아동보고에 이들에 대한 현황이 제시되기 시작했으나³⁷⁾ 보호체계 밖에 홀로 남겨진 수용자 자녀와 같은 청소년 1인가구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기발견과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4)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제도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이주배경 및 국적 취득 여부 등에 따라 외국인주민자녀, 다문화가정구원, 다문화학생 등으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북한이탈청소년도 넓은 의미의 이주배경청소년에 포함된다(양계민 외, 2021).

구체적인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외국인주민 자녀는 251,977명(초등학생 연령 101,828명, 중고생 연령 47,876명)이며(행정안전부, 2021.11.17.), 다문화학생은 49,876명(초등학교 34,898명, 중학교 10,198명, 고등학교 4,588명, 각종 학교 192명)이고³⁸⁾, 북한이탈청소년은 4,800명(10-19세 3,591명)이다(통일부, 2021).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국내에서 출생한 초등학생 연령이 다수를 차지하며, 탈북청소년의 경우 9세 이상의 연령에 입국하는 청소년, 중고등학생 연령 이상의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이주배경에 따른 연령별 분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청소년기에 접어든다는 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7)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부모의 교정시설 수감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부모의 교정시설 수감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166명이다(통계청, 2020d).

38) 교육통계서비스. 지역규모별 다문화 유형별 학생수.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82&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10&uppCd1=010110&uppCd2=010110&flag=A에서 2022년 6월 25일 인출.

표 II-7.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외국인주민 자녀 (행정안전부)	미취학아동 연령(만 6세 이하)	102,273명	251,977
	초등학생 연령(만 7~12세)	101,828명	
	중고생 연령(만 13~18세)	47,876명	
다문화가정원	귀화 및 외국국적	14,158	273,048
	국내 출생	258,890	
북한이탈청소년 (통일부)	0~9세	1,209	4,800
	10~19세	3,591	
다문화학생 (교육부)	초등학교	34,898	49,876
	중학교	10,198	
	고등학교	4,588	
	각종학교	192	

*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지역규모별 다문화 유형별 학생수.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82&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10&uppCd1=010110&uppCd2=010110&flag=A에서 2022년 6월 25일 인출.
통일부(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21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lId=88648에서 2022년 6월 25일 인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에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지난 10여년 이상 한국사회의 이주배경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이들의 이주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이 마치 단일집단인 것처럼 인식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과잉지원이 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양계민 외, 2021).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학습결손³⁹⁾, 언어 및 의사소통, 가치관과 문화 차이,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사회 적응, 교육·진로·고용의 어려움이 증첩되고 있다 점에서 이들의 특성과 욕구에

39)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교 수업 따라가기(23.7%)이며, 받고 싶은 지원의 내용으로 학습과 학업지원 57.2%로 가장 높게 나왔고, 생활비 지원 18.1%, 진로 지원 12.6% 순으로 조사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21).

기반한 지원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설진배, 2021; 신동윤, 최은정, 김청송, 2019; 유진이, 2020).

표 II-8.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제도

사업	대상	내용
레인보우스쿨 운영 (Rainbow School)	이주배경 청소년	- 일반형 : 한국어, 특화프로그램, 교과 교육, 진로지도 등 - 진로형 : 진로교육 기초 과정(진로교육 한국어, 진로탐색 및 설계, 현장 체험활동, 단기직업체험) / 진로교육 심화 과정(직업실습, 이론교육, 경제교육 등)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미래를향한첫걸음)	탈북 청소년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주제별(성, 인권, 건강, 진로) 교육
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	- 대면상담(내방상담, 찾아가는상담), 비대면상담(화상상담), 온라인상담(전화상담, 문자SNS상담) - 진로, 사회성증진, 가족탐색 등 대상자 특성과 욕구별 집단상담프로그램 - 생활 전반의 정보 안내 - 심리사회적응검사(test-rainbowyouth.or.kr)
상담통역 자원사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통역지원사 양성 및 운영-중국어권, 베트남어권, 러시아어권, 몽골어권 이주배경청소년 통역 지원

주1) 2022년 전국 13개 시도 지역, 27개 기관 위탁 운영(1개 기관 중복운영), (일반형) 23개소 운영 (진로형) 5개소 운영
주2) 상담 및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 심리정서지원 거점지역 위탁 운영기관 2개소 운영(부천, 파주)

* 출처: 여성가족부 (2022.8.24).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sessionId=61hsid+qLf9FnutmgMVIqLcE.mogef10?mid=plc502&bbtSn=2020에서 2022년 6월 25일 인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관을 주무부처별로 구분해 볼 때 여성가족부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부의 다문화 특별학급·중점학교·예비학교,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이 있다(유진이, 2020). 이중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중심으로 초기적응 지원, 진로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나 전국 27개 기관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여성가족부, 2022e).

(7) 일반청소년가구 가족환경 관련 이용서비스기관 현황 및 법률

가족 내 또는 가족환경과 관련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주요 서비스는 아래 <표 II-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족과 청소년의 특성, 서비스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부처별 사업과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한부모복지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꿈드림, 교육부의 Wee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가족 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에 기반하여 전국적으로 가족센터 208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16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양육비의 이행, 출산과 양육,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갈등 상담, 가족갈등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2a). 가족상담시간과 서비스내용은 기관별, 상담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 갈등 상담의 경우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기반하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가 전국 9개소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이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2d).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이 운영되고 있어,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긴급구조 및 보호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표 II -9. 가족환경 관련 청소년이용서비스

구분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가족갈등, 가족문제 해결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양육비 이행, 출산 및 양육, 임신·출산 갈등 상담, 가족 갈등 관련 심리·정서 상담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긴급구조·보호·상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 one-stop service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1388 전화상담	위기상담, 심리상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상담, 교육, 건강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방과후아카데미	초등·중등 방과후돌봄 및 프로그램(급식, 학습, 생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종합수련시설활동, 지역사회네트워크
	청소년문화의집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적응, 진로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 정서, 행동 상 장애 가진 청소년 대상 치료, 교육, 재활 지원 (거주형 시설)
교육부	학생생활지원단 Wee	교육창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센터, 병원형 위(Wee)센터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학교: 위(Wee) 클래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지자체	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 건강, 범죄, 고립, 주거 안심정책과 지원

- 주1) 가족센터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위탁운영방식이 있음.
서울시 가족센터의 경우 서울거주자 또는 생활영역권자(직장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대상 상담 제공.
- 주2) 가족상담전화 : 상담유형에 따라 상담이용시간이 상이하며, 임신·출산 갈등 상담의 경우 24시간 상담 제공,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사 연계, 지역 내 정부 지원 서비스 기관 등 연계 서비스 제공.
- 주3) 1388 전화상담 : 일반전화 국번없이 1388(또는 110),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또는 110), 24시간 무료상담 제공.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cyber1388.kr.
- 주4) 꿈드림 홈페이지 www.kdream.or.kr 온라인신청.
- 주5)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전문상담원과 1:1 실시간 채팅 상담 내지 게시판 상담.
- 주6)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 출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매인화면. <http://www.nyhc.or.kr/IndexServlet>에서 2022년 6월 25일 인출.
보건복지부(2022c).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p.27, 62.
여성가족부(2021c)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여성가족부(2022a). 2022년 가족사업안내 (II). p.219.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2022c).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 (II) p.63, 596.
여성가족부(2022d).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261, 527.
여성가족부 (2022.8.24).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61hsid+qlf9fnutmgMVIqlcE.mogef10?mid=plc502&bbtSn=202에서 2022년 6월 25일 인출.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20.do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여성긴급전화 1366. 매인화면. <https://women1366.kr/?menu=222>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패밀리서울. 가족센터 가족상담안내. <https://familyseoul.or.kr/consultation-guide>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kyci.or.kr/userSite/cooperation/list.asp?basicNum=1>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Wee 프로젝트. <https://www.wee.go.kr/home/main/main.do>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다음으로 청소년 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전화 상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이 있다. 이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기반하여 2022년 기준 240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는 청소년 대상 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 교육, 정보 제공 등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b).

이외에도 교육부에서는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기반하여 교육청 위(Wee) 스쿨,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학교 위(Wee) 클래스 등 Wee 프로젝트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https://www.wee.go.kr>).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위기 등 포괄적인 청소년 위기 관련 상담과 지원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정신건강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를 2022년 기준 광역센터 16개소, 기초센터 24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지역사회 내 교육, 상담, 복지 관련 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c).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즉, 학교-위(Wee) 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정신건강 관련 조기검진과 조기중재를 위한 의뢰 및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더 나아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행복e음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의뢰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게 보다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사업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나, 부처별로, 가족, 위기청소년, 교육복지 등 영역 및 대상별로 분절되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최수정, 2015; 서상희, 2020; 이희현, 2021).

2) 청소년지원 개선점 및 재편 논의

청소년기는 법적으로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년기본법을 적용받는다. 우선, 보건복지부(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⁴⁰에서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아동보호, 아동기의 행복이 성인기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관계부처합동, 2020a), 여성가족부(2022c)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⁴¹⁾에서는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는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매우 중요한 생애주기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대상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이 구성·운영되고 있다(박선영, 박복순, 김복태, 고현승, 김은희, 2021). 그 결과 현 보호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들을 둘러싼 가족 환경 변화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들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⁴²⁾.

특히 청소년 1인가구, 청소년부모의 경우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빈곤에 처할 위험마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이 개인화되지 않도록 가구특성과 가구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최세림, 2021: 172).

(1) 아동-청소년 서비스 분절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위기청소년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사업과 취약위기가족사업⁴³⁾,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사업, 교육부 사업의 대상이 모두 중첩된다는 점에서 이들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김우림, 2021). 반면, 각 부처별 사업이 다양화·파편화되어(주은수, 류정희, 박세경, 현안나, 2020;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윤정, 2020),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연속성있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김우림, 2021; 김지연 외, 2015; 류정희 외, 2021; 박세경 외, 2021).

40)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는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며, 공정한 출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에서도 대응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a).

41)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정책(육성, 복지, 보호 기능)이 여성가족부로의 이관되었고, 청소년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예,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등을 여성가족부가 관장하고 있다(박선영, 박복순, 김복태, 고현승, 김은희, 2021: 45).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지역 기반의 청소년정책을 강화하고자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42) 류정희 외(2021)의 연구에서는 현재 보호되는 아동 이외에도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에 장애를 가진 아동, 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 수용자 자녀, 이주배경 아동, 미신고시설 아동 등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43)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대상아동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가정위탁이나 입양아동 등으로 제한되어 넓은 의미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포함되지 않고, 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각 유형별로 분절되어 있다(박세경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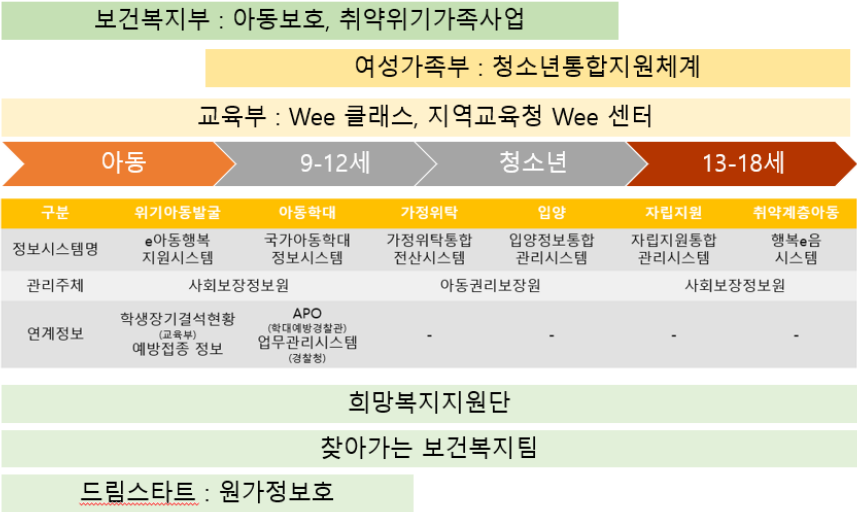


그림 II-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분절적 보호체계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속성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박선영 외, 2021: 94). 이를 위하여 첫째,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고⁴⁴⁾ 둘째, 최초로 청소년이 접촉하는 서비스제공기관과 지역사회기관 간 서비스가 연속성있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김승경, 배정희, 2021; 김지연 외, 2015; 류정희 외, 2021). 셋째, 현재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돌봄사업(서상희, 2020), 보호사업(김지연 외, 2015), 정신건강사업 등에 있어 부처별, 대상 연령별 사업으로 분절되지 않고, 청소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청소년 위기 예방과 보호

청소년복지 지원법⁴⁵⁾에 명시된 ‘위기’는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44) 현재 공공의 지역사회보호체계로 통합사례관리체계(드림스타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희망복지지원단)가 있으나 취약위기가족을 예방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낮고, 아동보호체계 또한 공공화되었으나 사례관리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아동학대 예방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류정희 외, 2021).

45) 제2조 4항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되어 있다.

되는 위기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2000-2019년)⁴⁶⁾를 살펴보면, 10명 중 7.5명은 부모의 연령, 혼인, 빈곤, 사망, 질병, 이혼 등의 사유가 중층적으로 연결되어⁴⁷⁾ 있어 이를 방증한다⁴⁸⁾(류정희 외, 2021).

그러나 공공사례관리체계는 인력적 한계, 담당전담인력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가족구성원)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은 그들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으로 분류되며,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는 첫째, 예방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단위에서 실효성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관계부처 합동, 2020a: 20), 둘째,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정책 수립에서부터 지역사회의 통합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통합적 보호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족(가구) 특성 및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지원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유형이나 가구특성으로 인한 차이가 불평등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 지원육구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변수정 외, 2020). 우선, 한부모 가구와 같은 1인양육자 가정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할 경우, 돌봄 및 가족지원육구가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구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가⁴⁹⁾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최세림, 2021).

둘째, 현 청소년 지원제도는 연령기준, 혼인여부, 소득기준, 제도 간 공급기준의 상이함 등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정보접근성 강화, 의료비지원 연령을 현

46) 미혼부모와 혼외자가 3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서울시의 경우 전국 대비 두 배에 가까운 63.5%였다. 그 다음으로 아동학대 32.2%, 부모의 빈곤, 사망, 질병, 이혼 19.9%, 비행, 가출, 부랑아 9.1%, 유기 5.1%, 미아 0.8%순으로 나타났다(서울연구원, 2021.5.21.)

47) 구체적으로 아동의 연령과 성별, 가족구조, 가족 내 폭력(아동학대, 가정폭력), 빈곤,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주양육자의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 양육기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과 위기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다.

48)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의 주요 가출 원인은 가족 간의 갈등(69.5%), 가정폭력(28%)이었으며(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4.28.), 불리한 삶의 여건에서 살아온 청소년들이 폭력을 피해 가출하게 되고, 학교밖 청소년이나 청소년부모가 되는 등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사유가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허민숙, 2021a).

49)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양육과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적 환경변화와 가족 기능 약화로 인해 사회에서 기대하는 가족기능이 충분히 수행되기 어려운 여건이기에(여성가족부, 2021e),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돌봄서비스, 일하는 부모의 육구에 기반한 돌봄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19세 미만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연령 기준을 동일하게 24세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기 등을 제안한다⁵⁰⁾.

셋째, 현 청소년 지원제도의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각 사업과 법적 근거에 따라 통계 생성 방식과 대상이 상이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주배경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법무부(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통일부(북한이탈주민현황), 교육부(다문화학생, 탈북학생 통계) 부처별 통계생성방식이 상이하여(양계민 외, 2021; 유진이, 2020), 중앙정부 차원의 통계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넷째, 법률혼 여부로 서비스 적격성의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고위험가구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특별지원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아동학대 관련 가족(가구)의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 : 중간지원

주은수 외(2020: 165)는 청소년보호 관련 근거가 되는 법적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청소년들이 처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만약 발달상의 위기(developmental risks)에 노출된 아동이라면, 더욱 보호적 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이 제공되어야 하나(박세경 외, 2005), 실제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보호적이지 못하다면 청소년의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보호체계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취약·위기상황의 부모는 건강한 자녀 양육과 보호제공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는 더욱 적절한 양육지원과 보호가 요구된다(류정희 외, 2021). 예를 들어 언론에 알려진 아동학대 미혼모⁵¹⁾는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아동학대 가해자, 청소년 부모라는 다중적 위기(multi-crisis)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고딩엄빠와 같은 방송을 통해 드러난 청소년부모(부부) 이슈⁵²⁾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심각성정도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50)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은 학업과 관련된 생애주기적 발달과업 뿐 아니라 이들의 성인기로의 이행 및 노동시장 진입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실제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및 연령 기준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이재희 외, 2021)

51) 인천에서 발생한 미혼모의 아동학대 사건(이데일리, 2020.10.12.).

52) 임신 후 찔방방에서 자낸 청소년 부모(MBC 뉴스, 2020.1.22.), 고딩엄빠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나는 청소년부부의 갈등(YTN, 2022.5.10.)

원가정으로부터 분리조치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아동보호적 목적과 달리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아동의 복지, 가족생활과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신건강 이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근로여건, 양육능력과 양육의 지, 경제적 빈곤이나 가사·돌봄·노동의 양립 어려움 등 사유에 따라 분리조치, 원가정보호 이외에도 이승현 외(2022)가 제안한 중간지원제도를 통해 가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5) 청소년 부모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최근 가족유형에 따라 자녀를 차별하는 제도(자택출산, 나홀로출산 시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개정하여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강화한⁵³⁾ 사례(여성가족부, 2021e)와 같이 그동안 제기된 청소년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부처 간 협력하여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청소년부모가 된다는 것은 임신과 출산 이후 개인의 생애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며⁵⁴⁾, 다중적 위기가 될 수 있다⁵⁵⁾. 한국미혼모네트워크의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은주희, 임고운, 2019) 결과⁵⁶⁾,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들은 임신과 동시에 청소년의 학업중단, 거주 불안정,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의 위기를 중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들의 자녀 양육환경 또한 상당히 열악하여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박세경 외, 2021; 은주희, 임고운, 2019).

53) 예를 들어 출산시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미혼모와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가족관계등록법을 2021년 3월 16일 개정된 사례를 들 수 있다.

54)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 내지는 불안정한 청소년기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부모됨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청소년기의 임신은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freedom in life choices)로 존중받기보다는 불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사건이 될 수 있다.

55) 청소년기의 출산이 청소년의 건강뿐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노출 기피, 가족관계 단절, 학업과 취업 중단, 거주지 불안정 등 다중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이재희 외, 2021; 보건복지부, 2022b). 결과적으로 청소년시기의 임신과 출산은 이들의 건강은 물론, 교육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빈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56) 한국미혼모네트워크의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2019) 결과,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휴학 포함, 58명, 18.4%), 중학교 졸업(19명, 6.1%), 고등학교 재학(7명, 2.2%), 초등학교 졸업(2명, 0.6%) 순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청소년부모가 44.5%였다. 응답자 중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부모는 103명이었으며, 그 주된 사유로는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36명, 35%), 임신사실을 알고 학교다니기 어려움(34명, 33%), 출산으로 학업 계속하기 어려움(11명, 10.7%)이었다. 다수의 청소년부모는 부모님의 집, 친척이나 지인의 집, 시설에서 임신을 보내고 출산하였으나, 임신기간 중 일부청소년부모는 여관·모텔(26명, 68.4%), 찜질방(9명, 23.7%), 고시원(1명, 2.6%), 기타(2명, 5.3%)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은주희, 임고운, 2019).

① 청소년부모 지원체계 마련

청소년부모 중 다수가 일차적 보호체계로서 가족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혼인제도에 의한 법적 결혼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이들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부모와 아동의 복지 차원에서 통합적 지원이 요구된다(송효진 외, 2021: 322; 최세림, 2021). 또한 아동보호의 목적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명시되어 있는 원가정보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지원과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부모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양육지원을 위해서(Center for Law and Social Policy. www.clasp.org), 국외의 Raising Children Network나 Early Head Start (EHS) 프로그램⁵⁷⁾과 같이 임신기부터 자녀 출산후 필요로 하는 영양, 건강, 교육, 사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서 이들의 안정적인 삶과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복잡한 지원절차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가정방문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허민숙, 2021a).

② 학교와 지역사회보호체계의 유기적 연계 및 네트워크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교육단계(초-중)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게 될 경우 사전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연계, 개입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a).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을 실시하고 있다. 임신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일상생활 관련 복합적 욕구를 가지는 청소년부모 또한 교육복지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Navarro-Cruz, Dávila and Kouyoumdjian(2021)이⁵⁸⁾ 강조한 바와 같이 임신·출

57) ①Raising Children Network(호주의 십대부모 지원프로그램):

<https://raisingchildren.net.au/grown-ups/family-diversity/parents-like-me/parenting-as-a-teen> 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②Early Head Start(EHS: 영국의 십대부모 지원프로그램): 임신 기간부터 영유아시기의 자녀를 둔 가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영양있는 식사, 건강 교육, 의료 및 산전관리, 사회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 센터 중심, 가정 중심(Home-based programs), 센터와 가정 결합 프로그램(Mixed-delivery programs)등 다양하다(The AAP Parenting Website, 2022).

산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중단된 학업을 유지하거나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학교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환경이자(Cisneros-Cohernour & Stake, 2014), 안전망(이영란, 2016)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중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 부모와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할 것을(김선숙, 2021) 제안한다.

③ 청소년부모의 생활관리와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대상 확대

청소년의 임신·출산은 이들의 생애과정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때 이들이 처한 다중적 위기에 대한 보호적 환경이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부모지원제도로 이들의 청소년으로서의 삶,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는 발달적 특성과 이들이 처한 상황 및 욕구에 기반하여(허민숙, 2021a), 청소년부모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⁵⁹⁾ 지원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부모 지원 민간기관을⁶⁰⁾ 통한 사례관리를 결합하는 방식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3) 소결

최근 가족환경 변화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⁶¹⁾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전제로 설계되었던 가족지원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박복순 외, 2019a; 변수정 외, 2020; 송효진 외, 2021).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동거, 재혼, 한부모가족 등 다양화되는 가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법적 혼인에 기반한 가족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Farrer & Lay, 2011).

58) 연구결과, 학교 재학 중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끈기를 가지고 자신의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동기부여하고, 학생과 부모역할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학생부모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학생부모를 위한 편의시설 보육시설 및 서비스 정도에 따라 이들의 학업유지 및 성취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59)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방안은 아동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2020),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주거문제로 인해 청소년부모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60) 킴메이커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성장지원, 사례관리, 주거관리, 긴급지원 등 포괄적으로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61) 결혼과 자녀 출산양육과 관련된 가치관이 급변하는 가운데,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65.7%)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혼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대해서도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변수정, 2021).

가족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체계이자 환경(Thevenon, 2022)이며,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공 단위라는 점에서(김지연 외, 2015: 14), 가족환경의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청소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맞벌이 부모와 청소년 자녀, 청소년한부모, 청소년부모, 청소년 1인가구, 이주배경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지원제도와 서비스의 문제점 및 재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소년기는 법적으로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년기본법을 적용받는 시기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에 있으나 청소년정책은 주무부처별로 연령과 대상을 구분하여 분절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현 보호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들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서비스 분절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속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단위에서 실효성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조정·지원해야 하며,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체계가 통합적 보호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 청소년 지원제도는 연령기준, 혼인여부, 소득기준, 제도 간 수급기준의 상이함 등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그 예로 청소년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의 정보접근성 강화, 의료비지원 연령 24세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법률혼 여부로 서비스 자격기준을 설정하기 보다 고위험가구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특별지원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아동보호정책에 있어 아동학대 관련 가족(가구)의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으로 원가정보호와 분리보호 이외 중간지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부모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다중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부모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업 운영,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지원과 아동보호체계 마련, 청소년부모의 생활관리와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주택 대상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 — 제3장 가족환경 생활 설문조사

-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분석
- 3.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1) 조사도구 개발

본 조사의 목적은 청소년 가족환경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가족환경으로 인한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요구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가족환경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과 지원방식 재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내용은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실태와 경험에 대한 문항들이며, 설문조사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① 가족관계(가족내 상호작용), ② 학교 및 사회관계, ③ 가족형태 및 가족구성원, ④ 가족기능, ⑤ 가족환경 변화 경험/어려움, ⑥ 청소년서비스 기관 이용경험/인지도, ⑦ 가족 서비스 요구사항, ⑧ 삶의 행복도, ⑨ 배경정보 영역으로 구성하였다(〈표 III-1〉 참고).

본 조사는 청소년 가족의 변화 특성 파악을 위한 개념적 분석틀[그림 I-1](p.6)에 입각하여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표준가족으로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가족 다양성(박복순 외, 2019a)을 포용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미래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를 가족으로 제시했으며,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인 법제와 인식을 강조하였다. 가족의 의미를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동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으로 볼 수 있다(박복순 외, 2019a; 박종서 외, 2020; 서용석 외, 2011; 송효진 외, 2021; 황준원, 2022; Bernardi, 2011; Pearce et al., 2017).

62) 이 장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정주(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가 작성함.

표 III-1. 가족환경 설문 조사지 구성

분류	설문내용 (총 36문항)	참고문헌
가족관계/ 가족 내 상호작용	가족과 잠잔 횟수, 가족관계 신뢰도, 가족지지 (가족 중에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 가족 내 지지체제 존재 여부) (7문항)	신규 (현장전문가 자문)
학교/사회관계	학교와 친구관계, 스트레스 (7문항)	디지털실태조사 보완
가족형태/ 가족구성원	가족구성원, 가족유형, 현재 같이 살고있는 사람 (3문항)	세움 2022 수정, Pearce et al., (2017)
가족기능	형제간 격차, 형제돌봄, 가족돌봄기능 (5문항)	박복순 외(2019b), 허민숙(2020a), 히라야마 료, 후루카 와 마사코(2016)
가족환경 변화 경험/어려움	이사, 재혼, 사망, 질병, 투옥, 실직 등 (사건 경험) 가족환경 변화로 인한 어려움 (3문항)	Pearce et al., (2017)
청소년서비스기관 이용 경험/인지도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상담센터 등 (2문항)	신규
가족서비스 요구사항	가족 안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내용/방식 (4문항)	신규
삶의 행복도	삶의 만족도, 행복도 (2문항)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배경정보	성별, 나이, 교육수준, 학업수준, 부모학력, 경제수준, (거주지역, 지역규모) (6문항)	세움 2022 수정, Pearce et al., (2017)

본 연구의 실행계획 단계에서 많은 문헌과 현장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파악된 가족과 청소년지원의 핵심 사항은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소통이 가능한 접근방식과 지원방식으로 다가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법과 제도, 서비스를 마련하였지만, 실행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조사가 근거를 제공하여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조사도구 개발과정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현장전문가검토, 예비조사, 전문가자문, 연구회의로 질문의 로직과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여 확정하였다. 조사도구의 문항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족환경과 청소년지원서비스 분야 현장 전문가 5명(청소년서비스기관에 근무)에게 양적 질적 조사도구에 대한 검토와 현장 예비조사를

통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현장 예비조사는 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생(4-6학년) 10명, 청소년부모(18-24세) 3가정을 조사하여 문항의 이해, 용어 등을 수정·보완하였다(IRB 승인번호 202206-HR-고유-015).

2)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기관 분석

본 조사는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지원방식 재편을 위한 연구로, 총 5개 기관 6개 응답자 유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대상 기관 및 기관수, 세부 응답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설문조사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의 생애주기별로 만9-24세(초중고대 연령) 학교 안팎에서 전국의 청소년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초등방과후아카데미) 531명, 중학생(중등방과후아카데미) 570명, 고등학생(상담복지센터, 학교밖 꿈드림센터) 470명, 대학생(전문대학, 4년제 대학) 421명, 청소년부모(청소년부모 지원단체) 50명을 포함한 총 2,04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Ⅲ-2. 기관 유형 및 세부 응답자 유형

기관 유형	전체 기관 수	응답자 유형
방과후 아카데미	332	초등 4학년~6학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자 (531명)
		중등 1학년~3학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자 (570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9	고등 1학년~3학년 상담복지센터 이용자 (294명)
꿈드림센터	220	고등학령기 꿈드림센터 이용 학교 밖 청소년 (176명)
대학 상담센터*	134	만24세 미만 전문대학 상담센터 이용 대학생 (170명)
	200	만24세 미만 4년제 대학 상담센터 이용 대학생 (251명)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1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이용 (50명)

* 대학 상담센터 수는 교육통계의 고등교육기관 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은 학부대학 및 교육대학을 합친 수임

본 조사에서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특정 학령기 청소년 수를 모집단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연간 이용자 수는 초등 방과후 아카데미가 대략 7,500여명, 중학생이 5,700여명⁶³⁾

이며, 고등학생 연령대 상담복지센터 이용자는 약 35,000여명⁶⁴⁾, 꿈드림센터는 약 4만여명⁶⁵⁾으로 파악되나, 대학상담센터, 청소년 부모(청소년 킹메이커)는 정확한 모집단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 조사 대상 기관 이용자의 경우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연간 이용자 수의 변동이 심한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 학생 수 등과 같이 안정적인 모집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간 이용자 수 등은 대외적으로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특정 연령대나 학년 이용자 수를 따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 조사 대상이 학생이므로 계절이나 월별 이용자 수 차이가 있지만 연간 이용자 수에서는 이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각 기관별로 이용자 수의 차이가 균등하고, 월별로도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기관 수를 기준으로 표본을 구성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본 조사의 모집단이 불확실하고 안정적이지 않음으로 지역별 기관수를 고려하여 표본을 배분하였다. 표집방법은 목적적 표집이고, 기관수 출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초등/중등 방과후아카데미), 상담복지개발원(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 교육통계의 고등교육기관현황(전문대, 4년제 대학교) 자료이다. 단, 청소년부모 조사대상 기관인 청소년지원단체 50명을 표집하기 위해 단일 기관으로 조사를 하였다.

(2) 조사실시 및 분석

실태조사는 위 표본 추출계획에 의해 선정된 전국의 청소년서비스기관 만9-24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하여 6월에 시작하여 8월 중에 완료되었다. 모바일 설문조사, 화상 면담조사를 병렬적/동시적 통합방법설계로 양적,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분석하였다(연구방법의 조사실시 요약표 참조).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 CHI 차이검증, 요인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63)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 확보한 연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64) 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확보한 연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65) 여성가족부를 통해 확인한 꿈드림센터 연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사례수는 2,042명이었으며 응답자 특성은 다음의 <표 III-3>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남자 청소년은 750명(36.7%)이었으며 여자 청소년은 1,292명(63.3%)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학교급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531명(26.0%)이었으며, 중학교 570명(27.9%), 고등학교 470명(23.0%), 대학교 421명(20.6%), 청소년부모 50명(2.4%)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부모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수도권인 경우 706명(34.6%), 지방 1,336명(65.4%)으로 나타났다. 지역분포는 서울(10%), 부산(4.7%), 대구(4.7%), 인천(5.7%), 광주(3.1%), 대전(2.4%), 울산(0.8%), 세종(0.5%), 경기(18.9%), 강원(8.2%), 충북(4.9%), 충남(8.5%), 전북(9.4%), 전남(6.1%), 경북(5.7%), 경남(6.4%), 제주(3%)이다.

경제수준의 경우 상위권 318명(15.6%), 중위권 1,479명(72.4%), 하위권 245명(12.0%)으로 중위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학력에 따르면 (부모 모두)중졸 이하는 39명(2.6%), (부모 모두)고졸은 390명(26.4%), (둘중 한명)대졸은 740명(50.1%), (둘중 한명)대학원졸은 307명(20.8%)로 (둘중 한명)대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성적은 중위권이 981명(48.0%)로 가장 많았고 상위권 730명(35.7%), 하위권 331명(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의 경우 상(행복하다) 1,159명(56.8%)가 가장 많았으며 중(보통이다) 690명(33.8%), 하(행복하지 않다) 193명(9.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지 기반을 느끼는 정도가 평균 이상은 1,053명(51.6%), 평균 이하는 989명(48.4%)로 나타나, 두 집단의 응답자의 분포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초중고대 연령, 전국 16개 시도별로 분포 되어 있다. 경제수준이 보통(72.4%), 부모학력은 대졸이상(70.9%), 학업수준은 중위권 이상(83.7%), 행복도는 중(33.8%), 상(56.8%), 가족지지기반은 평균이상(51.6%)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응답자의 특성은 초,중,고,대학교, 연령별, 지역별로 경제수준별, 행복도별, 가족지지 기반별 등에 있어 특정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적인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III-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2,042	100.0
성별	남학생	750	36.7
	여학생	1,292	63.3
학교급 (기관유형)	초등학생 (방과후아카데미)	531	26.0
	중학생 (방과후아카데미)	570	27.9
	고등 (상담복지센터)	294	14.4
	고등 (학교밖 꿈드림센터)	176	8.6
	대학생 (전문대학)	170	8.3
	대학생 (4면제대학)	251	12.3
	청소년부모	50	2.4
지역규모	수도권	706	34.6
	지방	1,336	65.4
지역	서울	205	10.0
	부산	95	4.7
	대구	96	4.7
	인천	116	5.7
	광주	63	3.1
	대전	50	2.4
	울산	17	0.8
	세종	11	0.5
	경기	385	18.9
	강원	167	8.2
	충북	100	4.9
	충남	173	8.5
	전북	191	9.4
	전남	124	6.1
	경북	116	5.7
	경남	130	6.4
	제주	3	0.1
경제수준	중	1,479	72.4
	하	245	12.0
	(부모 모두) 중졸이하	39	2.6
부모학력	(부모 모두) 고졸	390	26.4
	(둘중 한명) 대졸	740	50.1
	(둘중 한명) 대학원졸	307	20.8
학업수준	상	730	35.7
	중	981	48.0
	하	331	16.2

구분		사례 수(명)	비율(%)
행복도	상	1,159	56.8
	중	690	33.8
	하	193	9.5
가족지지기반 (평균점수 이상/이하)	평균 이상	1,053	51.6
	평균 이하	989	48.4
가족지지기반 여부	있다	1,931	94.6
	없다	111	5.4

주1) 학교급 분류는 (초등) 방과후아카데미를 '초등학교', (중등) 방과후아카데미를 '중학교', (고등) 상담복지센터와 (고등) 꿈드림 '고등학교'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대학교'로 분류하였음.

주2) 경제형편은 문8에서 '상의 상', '상의 하'를 '상'으로 '중의 상', '중의 하'를 '중'으로, '하의 상', '하의 하'를 '하'로 분류하였음.

주3) 부모학력은 부모 모두 중졸이하 / 고졸인 경우, 둘 중 한명이 대졸 또는 대학원졸인 경우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는 제외하였음.

주4) 학업수준은 문4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 '잘하는 수준'을 '잘함'으로,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을 '못함'으로 분류하였음.

주5) 행복도는 문10-1에서 8, 9, 10, 11(매우 행복하다)를 '상'으로 분류하였으며, 5, 6(보통이다), 7을 '중'으로, 1(전혀 행복하지 않다), 2, 3, 4를 '하'로 분류하였음.

주6) 가족지지기반은 요인분석 결과, 문12의 5개 항목 통합변수의 평균점수(약 3.4114)를 기준으로 평균 이상과 평균 이하로 분류하였음.

1-1) 가족지지 기반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5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5개의 문항들은 가족지지라는 단일구조 요인으로 나타났다(표 III-4). 따라서 가족지지 기반은 문항 12번의 5개 항목 통합변수의 평균점수(약 3.4114)를 기준으로 평균 이상과 평균 이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⁶⁶⁾.

표 III-4. 가족지지 측정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도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가족지지
가족지지	(1) 우리가족은 나를 지켜준다	.897
	(2) 우리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준다	.860
	(3) 나는 부모님과 있으면 행복하다	.881
	(4) 나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	.912
	(5)나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의식주)을 받고 있다.	.743
고유치	1.0	3.704
설명량(%)	74.076	74.076
Cronbach α	.911	.911

2) 가족관계

(1) 부모님(혹은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서 밤에 잠을 잔 날

지난 한 달 동안 부모님(혹은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서 밤에 잠을 잔 날이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없음(61.3%), 1주일에 1일 이하(25.5%), 1주일에 2~3일(7.1%), 1주일에 6일 이상(3.5%), 1주일에 4~5일(2.7%)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부모학력, 가족지지기반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전반적으로 일주일에 1일 이하로 초중고생 20~30%가 부모님(혹은 보호자)없이 혼자 집에서 밤에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족지지기반

66)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문항은 유사한 현상에 대한 측정을 위해 가족 관련 문헌과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개발되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 5개 문항의 상관관계는 .490에서 .7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으로 내적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 α 는 .911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은 문항 제거 기준은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5로 하였고, 요인제거 기준은 고유치(eigen value) 1.0으로 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가족지지기반과 관련된 5개의 문항이 가족지지체제의 단일요인구조로 나타났으며 5개 문항의 요인구조에 의해서 설명되는 설명량은 74.076%로 나타났다.

이나 부모학력,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서 보편적인 경향으로 보이며 현재 사회경제 고용형태 등의 영향이 가족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학력에 따르면 ‘중졸 이하’일 경우 없음(40.6%), 1주일에 1일 이하(25.0%), 1주일에 2~3일(15.6%), 1주일에 6일 이상(12.5%), 1주일에 4~5일(6.3%) 순으로 나타났고, ‘고졸’일 경우 없음(63.7%), 1주일에 1일 이하(23.2%), 1주일에 2~3일(6.7%), 1주일에 6일 이상(4.1%), 1주일에 4~5일(2.2%)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일 경우 없음(63.9%), 1주일에 1일 이하(26.8%), 1주일에 2~3일(6.1%), 1주일에 6일 이상(2.0%), 1주일에 4~5일(1.3%)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원졸’은 없음(63.3%), 1주일에 1일 이하(25.3%), 1주일에 2~3일(7.3%), 1주일에 6일 이상(2.0%), 1주일에 4~5일(2.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의 경우 ‘중졸이하’에서 ‘없음’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지지기반에 따르면 가족지지기반이 ‘평균 이상’인 경우 없음(64.5%), 1주일에 1일 이하(24.9%), 1주일에 2~3일(5.0%), 1주일에 6일 이상(3.0%), 1주일에 4~5일(2.7%)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이하’인 경우 없음(56.9%), 1주일에 1일 이하(26.3%), 1주일에 2~3일(9.9%), 1주일에 6일 이상(4.2%), 1주일에 4~5일(2.7%)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상’인 경우 ‘평균 이하’보다 ‘없음’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부모님(또는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서 밤에 잠을 잔 날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1주일에 1일이하	1주일에 2~3일	1주일에 4~5일	1주일에 6일이상	없음	차이검증 (CHI)
전체		(1,571)	25.5	7.1	2.7	3.5	61.3	-
학교급	초등학교	(531)	20.9	7.5	2.3	2.1	67.2	31.494***
	중학교	(570)	30.2	7.9	2.6	2.6	56.7	
	고등학교	(470)	24.9	5.5	3.2	6.2	60.2	
부모 학력	중졸이하	(32)	25.0	15.6	6.3	12.5	40.6	26.222**
	고졸	(267)	23.2	6.7	2.2	4.1	63.7	
	대졸	(545)	26.8	6.1	1.3	2.0	63.9	
	대학원졸	(245)	25.3	7.3	2.0	2.0	63.3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905)	24.9	5.0	2.7	3.0	64.5	18.814***
	평균 이하	(666)	26.3	9.9	2.7	4.2	56.9	

*p < .05, **p < .01, ***p < .001.

(2) 가족지지 기반(요인분석)에 따른 배경정보

‘가족지지 기반’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5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하나의 통합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①우리 가족은 나를 지켜준다, ②우리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준다, ③나는 부모님과 있으면 행복하다, ④나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 ⑤나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의식주)을 받고 있다는 바탕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하여, 평균(3.4114)을 기준으로 ‘평균 이상’과 ‘평균 이하’로 분석하였다.

가족지지 기반을 기준으로 배경 정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업수준은 ‘평균 이상’일 경우 중(45.9%), 상(42.7%), 하(11.4%)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이하’일 경우 중(50.4%), 상(28.3%), 하(21.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이 ‘평균 이상’일 경우에 ‘평균 이하’보다 ‘상’의 비율이 약14%p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에 따르면 ‘평균 이상’은 대졸(47.6%), 고졸(24.9%), 대학원졸(24.0%), 중졸(3.5%)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이하’는 대졸(53.0%), 고졸(28.1%), 대학원졸(17.2%), 중졸(1.7%)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르면 ‘평균 이상’은 중(70.9%), 상(23.0%), 하(6.0%)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이하’일 경우 중(74.0%), 상(7.7%), 하(18.3%)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상’일 경우 가족지지기반이 ‘평균 이상’인 경우가 ‘평균 이하’보다 약 15%p 정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성별, 학교급, 학업수준, 부모학력, 경제수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기 다른 특성들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1:1 사례관리 등의 지원방식 재편 노력이 필요하다.

표 III-6.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배경 정보 (성별, 학교급, 학업수준)

(단위 : %)

구분		성별		학교급				학업수준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상	중	하
가족 지지	평균 이상	41.9	58.1	35.3	30.5	21.0	13.2	42.7	45.9	11.4
	평균 이하	31.2	68.8	17.2	26.6	26.4	29.8	28.3	50.4	21.3
차이 검증(CHI)		24.829***		134.769***				62.892***		

*p < .05, **p < .01, ***p < .001.

표 III-7.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배경 정보 (부모학력, 경제수준)

(단위 : %)

구분		부모 학력				경제수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상	중	하
가족 지지	평균 이상	3.5	24.9	47.6	24.0	23.0	70.9	6.1
	평균 이하	1.7	28.1	53.0	17.2	7.7	74.0	18.3
차이 검증(CHI)		16.113**				140.812***		

*p < .05, **p < .01, ***p < .001.

3) 학교사회관계

학교사회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총 7개의 문항 ①내가 가족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계신다, ②내가 가족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의 선생님이 있다, ③학교/일터가기 싫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 ④일상과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 ⑤내가 가족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⑥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즐겁다, ⑦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좋다를 바탕으로 ‘학교/사회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은 전체와 가족지지기반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먼저, ‘내가 가족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계신다’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39.7%), 매우 그렇다(27.3%). 그렇지 않다(21.0%), 전혀 그렇지 않다(12.0%)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에 따르면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평균 이상(42.8%)일 경우 평균 이하(10.8%)보다 약 32% 높게 나타났다.

‘내가 가족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의 선생님이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다(42.2%), 매우 그렇다(27.0%). 그렇지 않다(21.4%), 전혀 그렇지 않다(9.4%)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에 따르면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평균 이상(39.9%)일 경우 평균 이하(13.3%)보다 약 26% 높게 나타났다.

‘학교/일터가기 싫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지 않다(38.0%), 전혀 그렇지 않다(23.7%), 그렇다(25.6%), 매우 그렇다(12.7%)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평균 이상(34.1%)일 경우 평균 이하(12.6%)보다 약 22% 높게 나타났다.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지 않다(42.0%), 전혀 그렇지 않다(30.0%), 그렇다(18.2%), 매우 그렇다(9.8%)로 나타났다. 가족 지지기반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평균 이상(43.4%)일 경우 평균 이하(15.8%)보다 약 27% 높게 나타났다.

‘내가 가족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의 경우 그렇다(44.2%), 매우 그렇다(39.0%), 그렇지 않다(11.4%), 전혀 그렇지 않다(5.4%)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에 따르면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평균 이상(53.1%)일 경우 평균 이하(24.0%)보다 약 29% 높게 나타났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즐겁다’의 경우 매우 그렇다(51.8%), 그렇다(40.8%), 그렇지 않다(5.2%), 전혀 그렇지 않다(2.2%)로 나타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에 따르면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평균 이상(67.9%)일 경우 평균 이하(34.7%)보다 약 33%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좋다’의 경우 그렇다(46.5%), 매우 그렇다(44.7%), 그렇지 않다(7.1%), 전혀 그렇지 않다(1.8%)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에 따르면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평균 이상(61.7%)일 경우 평균 이하(26.6%)보다 약 35% 높게 나타났다.

학교사회관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응답에서 가족지지기반이 ‘평균 이상’인 경우 ‘평균 이하’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8.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학교 및 사회관계 인식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t/F)
내가 가족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계신다								
전체		12.0	21.0	39.7	27.3	2.82	0.965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7.2	13.4	36.6	42.8	3.15	0.911	16.820 ***
	평균이하	17.1	29.0	43.1	10.8	2.48	0.899	
내가 가족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의 선생님이 있다								
전체		9.4	21.4	42.2	27.0	2.87	0.918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6.5	16.5	37.1	39.9	3.10	0.901	12.418 ***
	평균이하	12.4	26.7	47.5	13.3	2.62	0.868	
학교/일터가기 싫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								
전체		23.7	38.0	25.6	12.7	2.27	0.963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34.1	36.9	15.8	13.2	2.08	1.010	-9.570 ***
	평균이하	12.6	39.1	36.0	12.2	2.48	0.865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								
전체		30.0	42.0	18.2	9.8	2.08	0.933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43.4	35.4	10.4	10.7	1.89	0.977	-9.937 ***
	평균이하	15.8	48.9	26.4	8.9	2.28	0.835	
내가 가족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전체		5.4	11.4	44.2	39.0	3.17	0.833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3.0	8.0	35.9	53.1	3.39	0.762	12.966 ***
	평균이하	8.0	15.1	53.0	24.0	2.93	0.840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즐겁다								
전체		2.2	5.2	40.8	51.8	3.42	0.693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0.9	2.6	28.6	67.9	3.63	0.584	14.947 ***
	평균이하	3.5	8.0	53.8	34.7	3.20	0.728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좋다								
전체		1.8	7.1	46.5	44.7	3.34	0.687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0.5	3.0	34.8	61.7	3.58	0.578	17.028 ***
	평균이하	3.1	11.3	58.9	26.6	3.09	0.705	

*p < .05, **p < .01, ***p < .001.

4) 가족형태

(1) 가족구성원 및 현재동거인

가족형태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가족구성원 및 현재동거인에 해당 되는 모든 사람’을 응답하도록 하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인이 현재 또는 과거 상황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가족형태’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응답으로는 친어머니 85.8%, 친아버지 83.2%, 친남자형제 47.0%, 친여자형제 46.7%, 친할머니 38.2%, 외할머니 35.5%, 친척 33.3%, 외할아버지 25.3%, 친할아버지 23.7%, 새아버지 2.5%, 어머니의 남자친구 1.5%, 새여자형제 1.2%, 새남자형제 1.2%, 새어머니 1.2%, 아버지의 여자친구 0.9%,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거인은 친어머니 80.7%, 친아버지 74.1%, 친남자형제 42.0%, 친여자형제 39.4%, 친할머니 9.1%, 친할아버지 4.8%, 외할머니 4.7%, 자녀 3.8%, 친척 3.6%, 외할아버지 2.5%, 새아버지 1.5%, 어머니의 남자친구 1.0%, 아버지의 여자친구 0.8%, 새어머니 0.7%, 새여자형제 0.7%, 친구0.6%, 새남자형제 0.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 및 현재동거인을 기준으로 가족지지기반을 살펴보았을 때 크게 주목할만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9.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가족구성원 및 현재동거인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가족 구성원			현재 동거인		
	전체	가족지지 평균이상	가족지지 평균이하	전체	가족지지 평균이상	가족지지 평균이하
친어머니	85.8	85.8	85.7	80.7	84.8	76.2
친아버지	83.2	84.2	82.1	74.1	80.1	67.7
친남자형제	47.0	46.4	47.6	42.0	44.5	39.2
친여자형제	46.7	45.2	48.3	39.4	40.3	38.4
친할머니	38.2	41.6	34.7	9.1	9.4	8.8
친할아버지	23.7	26.8	20.4	4.8	5.2	4.3
외할머니	35.5	40.3	30.4	4.7	5.7	3.5
외할아버지	25.3	30.1	20.2	2.5	3.6	1.4
친척	33.3	37.3	28.9	3.6	4.4	2.7

구분	가족 구성원			현재 동거인		
	전체	가족지지 평균이상	가족지지 평균이하	전체	가족지지 평균이상	가족지지 평균이하
새아버지	2.5	2.1	2.9	1.5	1.5	1.4
새어머니	1.2	0.7	1.7	0.7	0.4	1.1
새남자형제	1.2	1.3	1.1	0.3	0.2	0.4
새여자형제	1.2	1.0	1.4	0.7	0.6	0.9
어머니의 남자친구	1.5	1.7	1.3	1.0	1.4	0.6
아버지의 여자친구	0.9	0.9	0.8	0.8	1.2	0.3
배우자	-	-	-	2.0	1.3	2.6
자녀	-	-	-	3.8	2.9	4.8
친구	-	-	-	0.6	0.5	0.8
기타	2.0	0.9	3.2	0.9	1.0	0.8
없음	0.5	0.4	0.6	4.1	1.6	6.8

(2)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형태

과거 또는 현재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가족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양부모가정(59.1%), 한부모가정(19.6%), 형제자매와 사는 가족(15.1%), 확대가족(12.5%), 청소년 부모(5.5%), 이주배경 청소년(5.0%), 조손가족(4.7%), 청소년 한부모(1.8%), 청소년 1인가구(1.4%),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1.4%), 친구와 사는 가족(0.7%), 기타(3.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를 기준으로 한 가족지지기반은 ‘양부모 가족’일 경우 가족지지기반이 평균 이상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한부모 가족’일 경우 평균 이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도 ‘형제 자매와 사는 가족’, ‘확대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1인가구’,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친구와 사는 가족’에서 평균 이하가 평균 이상보다 조금씩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0.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 형태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가족 구성원		
	전체	가족지지기반 평균이상	가족지지기반 평균이하
양부모 가족	59.1	61.3	56.6
한부모 가족	19.6	14.6	25.0
형제 자매와 사는 가족	15.1	13.9	16.5
확대가족	12.5	11.1	14.1
청소년 부모	5.5	6.1	5.0
이주배경 청소년	5.0	5.1	5.0
조손가족	4.7	3.7	5.7
청소년 한부모	1.8	1.0	2.5
청소년 1인가구	1.4	0.7	2.2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1.4	0.9	1.9
친구와 사는 가족	0.7	0.4	1.1
기타	3.3	3.7	2.9

5) 가족기능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족기능에 대해 총 5개의 문항 ①결혼,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공동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②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③나는 기본 인성교육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나는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곳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⑤나는 돌봐야 할 가족(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학교(일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결석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를 바탕으로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III-11>과 같다.

첫 번째 문항으로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공동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문항에서 '혈연관계'는 부모와 자식, 형제를 기본으로 하는 관계를 말하고, '공동주거'는 가족 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다(46.2%), 매우 그렇다(29.7%), 그렇지 않다(17.0%), 전혀 그렇지 않다(7.1%)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가 평균 이상(42.9%)인 경우 평균 이하(15.6%)보다 약 27%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문항에서 '정서적 유대'는 친구나 가족 사이의 끈끈한 정을 말한다. 두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다(46.0%), 매우 그렇다(32.1%), 그렇지 않다(17.4%), 전혀 그렇지 않다(4.6%)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가 평균 이상(44.3%)인 경우 평균 이하(19.1%)보다 약 25%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나는 기본 인성교육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그렇다(52.5%), 그렇다(40.0%), 그렇지 않다(5.6%), 전혀 그렇지 않다(1.9%)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가 평균 이상(65.0%)인 경우 평균 이하(39.3%)보다 약 25%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로 '나는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곳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44.8%), 매우 그렇다(34.0%), 그렇지 않다(16.2%), 전혀 그렇지 않다(4.9%)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가 평균 이상(44.8%)인 경우 평균 이하(22.5%)보다 약 22% 높게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나는 돌봐야 할 가족(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학교(일터)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정기적인 결석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46.8%), 매우 그렇다(33.4%), 그렇지 않다(13.9%), 전혀 그렇지 않다(5.9%)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가 평균 이상(44.8%)인 경우 평균 이하(21.3%)보다 약 23%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 가족지지기반에 따른 가족에 대한 생각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 검증 (t/F)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공동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7.1	17.0	46.2	29.7	2.98	0.868	10.177 ***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6.1	14.0	37.0	42.9	3.17	0.886	
	평균이하	8.3	20.2	55.9	15.6	2.79	0.803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4.6	17.4	46.0	32.1	3.06	0.821	10.199 ***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3.6	14.0	38.2	44.3	3.23	0.821	
	평균이하	5.6	21.0	54.3	19.1	2.87	0.779	
나는 기본 인성교육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1.9	5.6	40.0	52.5	3.43	0.685	10.348 ***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1.4	4.1	29.5	65.0	3.58	0.641	
	평균이하	2.3	7.3	51.1	39.3	3.27	0.696	
나는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곳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4.9	16.2	44.8	34.0	3.08	0.833	7.480 ***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5.1	13.5	36.6	44.8	3.21	0.863	
	평균이하	4.8	19.1	53.6	22.5	2.94	0.777	
나는 돌봐야 할 가족(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학교(일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결석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전체		5.9	13.9	46.8	33.4	3.08	0.838	8.318 ***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5.5	11.3	38.4	44.8	3.23	0.855	
	평균이하	6.3	16.6	55.8	21.3	2.92	0.790	

*p < .05, **p < .01, ***p < .001.

6)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어려움

(1) 가족환경 변화로 인한 사건 경험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족환경으로 경험한 사건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에 따르면 이사(69.0%), 입원(31.1%), 정신질환(21.0%), 이혼(18.4%), 교통사고(13.6%), 건강악화(12.4%), 사망(11.6%), 가출(9.1%), 폭행(7.0%), 재혼(4.7%), 알코올중독(4.4%), 실직(4.3%), 장애(4.2%), 자살(2.9%), 빗독촉(2.7%), 유학(2.6%), 타지역파견근로(2.0%), 시설보호(1.9%), 교도소수감(1.4%), 이민(0.8%), 해외취업(0.7%), 추방(0.5%), 기타(6.4%, 부부싸움, 자살기도, 사기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에 따라서는 ‘평균 이하’의 경우 ‘평균 이상’보다 입원, 정신질환, 이혼, 교통사고, 건강악화, 사망, 가출, 폭행, 재혼, 실직, 알코올중독, 장애, 자살, 빗독촉, 유학, 타지역파견근로, 시설보호, 교도소수감 등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2. 가족환경 변화로 인한 사건 경험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가족지지 기반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부모	평균 이상	평균 이하
이사	69.0	62.9	72.5	70.2	67.2	66.8	72.2	70.0	69.8	68.1
입원	31.1	26.9	33.5	34.1	26.8	29.8	34.0	36.0	30.1	32.2
정신질환	21.0	12.0	26.2	5.1	8.1	36.8	37.5	50.0	9.9	32.9
이혼	18.4	16.4	19.6	13.9	19.8	18.7	18.3	48.0	14.8	22.2
교통사고	13.6	12.7	14.1	14.1	11.9	14.0	14.5	14.0	11.7	15.6
건강악화	12.4	8.9	14.4	6.0	7.4	16.6	21.9	18.0	8.6	16.4
사망	11.6	9.2	12.9	8.9	8.6	13.8	16.6	10.0	9.5	13.8
가출	9.1	7.3	10.1	2.4	6.1	14.0	10.9	50.0	4.6	13.9
폭행	7.0	3.6	8.9	3.2	3.3	9.1	11.6	28.0	2.3	11.9
재혼	4.7	3.7	5.2	1.7	3.9	6.4	5.2	24.0	2.8	6.7
실직	4.3	3.3	4.9	1.9	3.2	4.0	8.8	8.0	2.9	5.8
알코올중독	4.4	3.1	5.1	3.2	2.5	4.9	6.9	12.0	2.5	6.4
장애	4.2	4.0	4.3	4.0	3.5	3.8	5.9	4.0	3.4	5.1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가족지지 기반	
		남성	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 부모	평균 이상	평균 이하
자살	2.9	1.6	3.6	0.4	0.9	5.5	5.5	6.0	1.5	4.3
빛독촉	2.7	1.7	3.3	0.8	1.2	3.0	5.7	12.0	1.1	4.3
유학	2.6	1.6	3.3	0.9	1.1	5.1	4.5	0.0	2.2	3.1
타지역 파견근로	2.0	1.3	2.3	0.9	1.1	2.8	3.8	0.0	1.4	2.5
시설보호	1.9	0.7	2.6	0.6	0.2	3.0	1.0	34.0	0.6	3.3
교도소수감	1.4	0.4	1.9	0.2	1.4	1.7	1.7	8.0	0.9	1.8
이민	0.8	0.8	0.9	0.9	1.1	1.1	0.2	0.0	0.8	0.9
해외취업	0.7	0.7	0.8	0.4	0.2	1.5	1.2	0.0	0.8	0.7
추방	0.5	0.5	0.5	0.4	0.2	1.1	0.5	0.0	0.1	0.9
기타	6.4	9.2	4.8	7.2	7.5	6.0	5.0	2.0	7.3	5.5

(2)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모두 선택’에 대한 응답으로 는 심리정서적 상처(38.5%), 불안(36.7%), 외로움(34.3%), 집안일(28.5%), 가족불화 (27.4%), 건강(26.4%), 교육진로(18.9%), 무력감(18.1%), 의식주(17.8%), 주변의 편견과 낙인(13.9%), 도움을 요청할 곳의 부재(10.4%), 대인기피(6.1%), 기타(6.9%), 돈문제, 스트레스, 공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심리정서적 상처와 도움을 요청 할 곳의 부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에 따라서는 청소년부모의 경우 의식주, 도움을 요청할 곳의 부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수준이 ‘하’ 일 경우 심리정서적상처와 가족불화, 무력감, 의식주, 주변의 편견과 낙인, 도움을 요청할 곳의 부재, 대인기피 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무력감과 대인기피의 경우 경제수준이 ‘상’, ‘중’일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인 경우 집안일과, 건강 에 관한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에 따라서는 ‘평균 이하’인 경우에 ‘평균 이상’보다 심리정서적 상처, 불안, 외로움, 가족불화, 무력감, 의식주, 주변의 편견과 낙인, 도움을 요청할 곳의 부재, 대인기피 등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심리 정서 적 상처	불안	외 로 움	집 안 일	가족 불화	건강	교육 진로	무 력 감	의 식 주	주 변 의 편 견과 낙인	도 움 을 요 청 할 곳 의 부 재	대인 기 피	기타
다중응답		38.5	36.7	34.3	28.5	27.4	26.4	18.9	18.1	17.8	13.9	10.4	6.1	6.9
1순위		17.5	11.8	9.0	13.7	8.5	10.5	5.7	3.2	5.6	6.3	1.9	1.1	5.2
성별	남성	30.5	36.5	33.3	33.1	24.4	30.9	20.3	18.5	16.5	13.7	8.7	4.9	8.4
	여성	43.2	36.8	34.8	25.8	29.1	23.8	18.1	17.9	18.6	14.0	11.5	6.7	6.0
학 교 급	초등 학교	23.0	34.1	38.6	39.5	17.7	38.4	18.5	12.4	13.6	12.8	9.6	2.3	13.2
	중학교	31.8	35.4	34.4	36.0	25.6	30.7	20.7	15.1	17.7	12.5	8.1	4.4	7.7
	고등 학교	46.6	39.1	33.6	17.4	34.3	17.4	20.6	23.6	15.1	16.6	10.9	10.4	4.0
	대학교	56.5	38.2	28.0	18.3	34.9	17.6	15.2	23.5	24.5	14.3	13.1	8.6	1.7
	청소년 부모	54.0	42.0	46.0	14.0	22.0	8.0	18.0	16.0	34.0	14.0	20.0	4.0	2.0
경제 수준	상	25.8	36.5	39.0	34.0	19.8	35.8	18.2	16.4	15.4	10.1	9.7	3.1	11.3
	중	39.6	36.6	34.6	28.7	28.7	26.4	19.1	17.6	16.7	14.4	10.3	5.3	6.5
	하	48.6	37.6	26.5	20.0	29.0	14.3	18.8	23.7	27.8	15.9	11.8	14.7	3.7
부모 학력	중졸 이하	33.3	28.2	28.2	46.2	23.1	56.4	12.8	15.4	20.5	15.4	7.7	2.6	2.6
	고졸	39.2	38.2	35.6	24.1	31.3	25.1	17.2	18.5	20.3	13.8	9.2	7.9	6.4
	대졸	43.5	38.8	31.6	24.2	30.3	24.3	22.0	18.6	18.0	14.9	12.0	5.4	4.5
	대학원 졸	35.2	32.2	36.5	30.3	23.8	28.7	19.9	17.6	15.3	11.7	11.1	4.6	10.1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31.2	33.8	33.8	32.4	23.6	33.1	21.7	15.1	17.5	13.9	9.3	4.6	9.0
	평균 이하	46.3	39.7	34.8	24.3	31.3	19.2	15.9	21.3	18.2	14.0	11.6	7.7	4.7

(3) 가족문제 대처 방법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모두 선택’에 대한 응답으로는 친구에게 말한다(45.7%),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42.7%), 가족들과 상의한다(36.2%), 외부와 단절한다(19.0%), 학교선생님께 말한다(15.8%), 서비스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12.2%), 스스로 자해한다(9.3%), 이상한 행동을 한다(3.4%), 기타(5.6%, 게임, 혼자생각, 종교, 울기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기력증을 나타내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의 응답이 4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친구에게 말한다’가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선생님께 말한다’가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인 경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외부와 단절한다’, ‘스스로 자해한다’의 비율이 경제수준이 ‘상’, ‘중’일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수준에 따라서도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외부와 단절한다’, ‘스스로 자해한다’의 비율이 ‘상’, ‘중’일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하’인 경우 ‘평균 이상’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외부와 단절한다’, ‘스스로 자해한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14.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 방법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친구에게 말한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가족들과 상의한다	외부와 단절한다	학교 선생님께 말한다	서비스 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	스스로 자해한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	기타
	■ 전체 ■	(2,042)	45.7	42.7	36.2	19.0	15.8	12.2	9.3	3.4	5.6
성별	남성	(750)	34.8	33.7	38.8	16.1	20.5	12.3	4.7	3.7	7.6
	여성	(1,292)	52.0	47.9	34.7	20.6	13.0	12.2	12.0	3.3	4.4
학 교 급	초등학교	(531)	43.9	29.2	47.8	7.3	23.2	10.2	3.8	2.3	7.2
	중학교	(570)	44.7	39.6	33.2	14.9	21.1	9.3	5.1	3.5	6.0
	고등학교	(470)	43.8	54.0	29.6	28.1	9.6	13.0	16.6	4.3	6.2
	대학교	(421)	49.4	49.6	34.0	28.0	7.6	17.6	12.6	4.3	2.4
	청소년부모	(50)	62.0	56.0	28.0	26.0	4.0	16.0	20.0	0.0	6.0
경제 형편	상	(318)	47.8	27.4	45.3	9.7	22.3	13.5	6.3	2.8	7.2
	중	(1,479)	45.0	43.0	36.3	19.1	15.3	11.2	8.3	3.1	5.5
	하	(245)	47.3	60.8	23.7	30.2	10.2	17.1	19.2	6.1	4.1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39)	56.4	28.2	30.8	15.4	23.1	5.1	12.8	2.6	7.7
	(부모 모두) 고졸	(390)	45.9	41.5	36.2	20.8	15.9	14.9	11.8	2.6	5.4
	(둘중 한명) 대졸	(740)	46.9	46.5	37.7	20.3	13.9	12.7	8.2	3.6	2.7
	(둘중 한명) 대학원졸	(307)	46.9	33.9	44.0	16.9	14.3	12.7	5.2	4.2	9.1
가족 지지 기반 여부	있다	(1,931)	46.2	41.6	37.3	18.3	16.1	12.2	8.1	3.2	5.5
	없다	(111)	36.9	62.2	17.1	29.7	10.8	13.5	30.6	7.2	6.3
학업 수준	잘함	(730)	46.4	38.1	43.6	16.2	18.6	14.1	7.5	3.6	4.2
	중간	(981)	46.7	41.9	36.6	18.8	16.6	12.3	8.6	3.0	5.6
	못함	(331)	41.1	55.3	18.7	25.7	6.9	7.9	15.4	4.5	8.5
행복 도	행복	(1,159)	50.8	31.1	46.2	12.4	18.7	11.7	4.7	2.4	6.2
	보통	(690)	40.9	52.6	25.4	24.9	13.0	12.2	10.3	3.9	4.8
	불행	(193)	32.1	76.7	15.0	36.8	7.8	15.5	33.7	7.8	4.7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1,053)	47.3	28.0	48.9	10.7	19.7	11.4	4.4	1.9	6.3
	평균 이하	(989)	44.0	58.3	22.6	27.7	11.6	13.1	14.6	5.1	4.9

7) 기관 인지도 및 이용 경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청소년서비스기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와 알고 있는 청소년서비스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2개의 청소년서비스기관 ①청소년전화1388, ②학교상담실(위클래스 등), ③방과후아카데미, ④청소년센터(청소년활동수련관, 문화의집 등), ⑤사회복지관, ⑥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⑦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⑧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⑨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⑩청소년치료재활센터, ⑪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⑫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해 질문하였다.

(1) 청소년 서비스 기관 인지도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전화1388’은 ‘조금 안다’ 38.3%, ‘매우 잘 안다’ 27.4%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33.9%)’이 ‘평균 이하(20.4%)’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13% 높게 나타났다.

‘학교상담실(위클래스 등)’은 ‘조금 안다’ 35.7%, ‘매우 잘 안다’ 49.5%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53.2%)’이 ‘평균 이하(45.5%)’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13%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조금 안다’ 23.3%, ‘매우 잘 안다’ 47.2%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59.6%)’이 ‘평균 이하(33.9%)’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26%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센터(청소년활동수련관, 문화의 집 등)’의 경우 ‘조금 안다’ 35.0%, ‘매우 잘 안다’ 44.1%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54.1%)’이 ‘평균 이하(33.5%)’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20%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에 대해 ‘조금 안다’ 32.9%, ‘매우 잘 안다’ 23.5%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30.2%)’이 ‘평균 이하(16.4%)’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13% 높게 나타났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조금 안다’ 16.5%, ‘매우 잘 안다’ 11.7%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14.8%)’이 ‘평균 이하(8.4%)’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6% 높게 나타났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조금 안다’ 10.2%, ‘매우 잘 안다’ 6.8%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10.1%)’이 ‘평균 이하(3.2%)’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6%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조금 안다’ 19.5%, ‘매우 잘 안다’ 23.3%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26.8%)’이 ‘평균 이하(19.6%)’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7%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조금 안다’ 31.6%, ‘매우 잘 안다’ 25.5%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29.8%)’이 ‘평균 이하(20.9%)’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8%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경우 ‘조금 안다’ 15.2%, ‘매우 잘 안다’ 10.0%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13.9%)’이 ‘평균 이하(5.9%)’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8%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조금 안다’ 13.5%, ‘매우 잘 안다’ 8.8%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12.0%)’이 ‘평균 이하(5.4%)’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6%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응답은 ‘조금 안다’ 9.9%, ‘매우 잘 안다’ 6.0%로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의 정도에 따라 ‘평균 이상(8.7%)’이 ‘평균 이하(3.1%)’보다 ‘매우 잘 안다’ 비율이 약 5%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서비스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12개의 기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전화1388, 학교상담실,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모든 기관에서 가족지지기반이 ‘평균 이상’인 경우 ‘평균 이하’인 경우보다 ‘매우 잘 안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15. 청소년 서비스 기관 인지도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청소년전화 1388	전체		9.4	25.0	38.3	27.4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10.3	20.5	35.3	33.9
		평균이하	8.4	29.7	41.5	20.4
학교상담실 (위클래스 등)	전체		4.1	10.8	35.7	49.5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4.3	10.5	32.0	53.2
		평균이하	3.8	11.1	39.5	45.5
방과후아카데미	전체		14.3	15.2	23.3	47.2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11.2	10.8	18.3	59.6
		평균이하	17.7	19.8	28.6	33.9
청소년센터(청소년활동수 련관, 문화의집 등)	전체		5.1	15.7	35.0	44.1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5.4	10.8	29.6	54.1
		평균이하	4.9	20.9	40.7	33.5
사회복지관	전체		10.3	33.3	32.9	23.5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8.9	29.6	31.2	30.2
		평균이하	11.7	37.2	34.7	16.4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전체		44.3	27.5	16.5	11.7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46.2	24.6	14.3	14.8
		평균이하	42.3	30.6	18.7	8.4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전체		60.1	22.9	10.2	6.8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59.6	20.2	10.1	10.1
		평균이하	60.7	25.7	10.4	3.2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전체		30.5	26.6	19.5	23.3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31.4	23.3	18.5	26.8
		평균이하	29.5	30.2	20.6	19.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체		15.2	27.7	31.6	25.5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16.0	24.8	29.4	29.8
		평균이하	14.4	30.8	33.9	20.9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전체		43.6	31.2	15.2	10.0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41.9	29.2	15.0	13.9
		평균이하	45.4	33.3	15.5	5.9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전체		49.6	28.2	13.5	8.8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48.3	26.2	13.5	12.0
		평균이하	51.0	30.2	13.4	5.4
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	전체		62.7	21.3	9.9	6.0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62.6	19.5	9.2	8.7
		평균이하	62.9	23.3	10.7	3.1

(2) 청소년 서비스 기관 이용 경험

청소년서비스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방과후아카데미(73.5%), 청소년센터(57.5%), 학교상담실(57.4%),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45.1%), 청소년상담복지센터(33.0%), 사회복지관(24.0%), 청소년전화1388(15.0%), 해바라기센터(13.6%),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11.8%),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11.0%), 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9.8%), 청소년치료재활센터(9.5%) 순으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이용경험으로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학교상담실,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해바라기센터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경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센터 이용 경험 이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학교상담실 이용 경험,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는 학교상담실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부모의 경우 학교상담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르면 ‘하’인 경우 ‘상’, ‘중’인 경우보다 청소년전화1388, 학교상담실, 사회복지관, 해바라기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방과후아카데미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 이하’인 경우 ‘평균 이상’보다 청소년전화1388, 학교상담실,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 된 12개의 기관 이외에 응답자가 알고 있는 청소년서비스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하자센터’, ‘진로육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의 기관이 나타났다.

표 III-16.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음

(단위 : %)

구분		청소년 전화 1388	학교상 담실	방과후 아카 데미	청소년 센터	사회복 지관	해바라 기센터	이주배 경청소 년지원 센터	청소년 지원센 터 꿈드림	청소년 상담복 지센터	청소년 치료재 활센터	한부모 가족복 지 상담소	서울시 1인가 구지원 센터
전체		15.0	57.4	73.5	57.5	24.0	13.6	11.8	45.1	33.0	9.5	11.0	9.8
성 별	남성	13.7	47.1	76.2	58.5	26.3	9.9	14.3	36.7	31.1	11.5	11.2	11.6
	여성	15.7	62.9	71.7	57.0	22.8	15.4	9.7	50.0	34.0	8.0	10.9	8.4
학 교 급	초등학교	7.0	40.6	87.0	63.6	29.2	6.8	8.2	19.5	24.7	9.9	15.6	7.5
	중학교	8.3	51.1	85.3	64.9	22.5	11.9	13.4	18.6	22.6	10.6	9.1	10.8
	고등학교	27.1	69.5	37.7	55.4	20.3	19.7	16.7	79.5	50.4	6.6	11.3	10.5
	대학교	17.2	68.2	38.5	40.2	21.4	12.5	10.0	19.3	27.4	9.9	6.3	10.4
	청소년부모	20.7	82.1	42.3	35.3	31.6	40.9	50.0	63.6	32.0	0.0	15.4	33.3
경제 수준	상	16.5	47.3	78.7	56.0	21.9	12.6	13.1	32.6	25.4	9.8	13.1	13.5
	중	12.7	56.8	72.9	58.0	23.3	12.6	10.5	45.3	32.6	9.5	10.2	8.3
	하	27.5	73.7	68.2	56.7	32.5	20.3	17.1	59.1	45.5	9.3	11.5	11.8
부모 학력	중졸이하	21.9	44.4	71.4	65.7	37.0	18.2	23.5	53.8	53.3	27.8	23.5	26.7
	고졸	16.5	61.8	73.2	54.3	24.7	13.6	14.7	44.1	32.5	6.4	9.0	7.8
	대졸	14.4	56.4	71.4	56.9	20.4	11.4	11.5	50.0	34.9	9.4	6.3	11.1
	대학원졸	18.7	53.2	73.4	57.9	23.9	12.2	12.3	37.9	26.8	8.3	11.9	9.8
학업 수준	상	15.6	51.9	74.4	42.5	25.5	13.4	12.2	35.0	30.1	9.5	12.8	13.3
	중	13.6	58.0	74.4	41.6	23.7	13.9	13.2	47.3	32.2	10.6	11.4	8.9
	하	17.7	68.0	68.2	45.0	21.2	12.8	5.0	59.9	41.8	5.7	4.8	2.4
행 복 도	상	11.8	50.7	76.5	42.5	24.1	11.1	11.3	39.9	27.7	10.5	10.9	11.4
	중	15.9	61.7	70.3	42.5	25.1	16.0	14.3	46.1	36.5	9.4	12.9	8.7
	하	32.0	81.7	58.5	41.5	18.9	20.0	0.0	72.6	53.1	0.0	3.0	0.0
가족 지지 기반	평균이상	11.0	49.8	76.5	43.1	24.7	11.4	13.2	39.8	30.1	11.5	12.7	11.6
	평균이하	19.8	65.5	69.6	41.7	23.2	16.0	9.6	51.5	36.3	6.6	8.6	7.3

8) 서비스 요구사항

(1) 우리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

서비스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로부터 우리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 내용’을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응답은 ①가족여행, ②가족취미활동, ③가정생활관리, ④가족상담, ⑤진로교육, ⑥인성교육, ⑦식사, ⑧부모역할교육, ⑨가족 내 소통, ⑩기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 내용(다중응답)에 대해 가족여행(74.0%), 가족취미활동(46.3%), 식사(25.3%), 가족 내 소통(22.3%), 가족상담(20.4%), 진로교육(18.5%), 가정생활관리(17.3%), 부모역할교육(10.8%), 인성교육(8.2%), 기타(6.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금전,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주거 관련 서비스, 취업 등이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가족여행, 가족취미활동, 식사 등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교육, 대학교 및 청소년부모의 경우 가족내 소통, 가족상담, 가정생활관리, 부모역할교육 등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에 따르면 ‘평균 이하’인 경우 ‘평균 이상’보다 가족 내 소통, 가족상담, 진로교육, 가정생활관리, 부모역할교육, 인성교육 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7.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다중 응답	1순위	성별		학교급					가족지지 기반	
			남성	여성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청소년 부모	평균 이상	평균 이하
가족여행	74.0	59.8	72.4	75.0	84.6	81.1	64.9	61.3	76.0	82.9	64.6
가족취미활동	46.3	6.7	43.3	48.1	49.7	51.4	39.6	43.5	40.0	54.7	37.4
식사	25.3	4.3	30.7	22.2	32.8	26.5	25.3	14.7	22.0	28.2	22.2
가족 내 소통	22.3	4.2	19.7	23.8	22.4	19.1	18.7	30.6	22.0	20.0	24.8
가족상담	20.4	7.1	15.3	23.3	12.1	13.7	20.6	37.8	36.0	13.7	27.5
진로교육	18.5	4.5	19.2	18.0	16.9	19.3	21.9	15.7	16.0	17.1	19.9
가정 생활관리	17.3	4.6	15.3	18.5	13.7	18.1	16.2	21.1	26.0	16.9	17.8
부모역할교육	10.8	2.5	6.8	13.2	3.8	4.9	13.0	24.5	18.0	4.7	17.4
인성교육	8.2	1.6	8.8	7.8	7.7	6.3	8.7	11.4	2.0	6.8	9.6
기타	6.1	4.7	7.7	5.2	4.9	6.3	8.7	4.0	10.0	4.7	7.7

(2) 희망하는 서비스 지원 방식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고 싶은지에 대해 희망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응답으로는 돈으로 지원(73.4%), 물품지원(46.5%), 일상적서비스(22.9%), 특정이벤트(축제, 발표회 등)(18.2%),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청소년 지원 서비스(16.3%), 초등-중등-고등-청년으로 연결 되는 단절 없는 맞춤 서비스(15.7%), 24시간 접근 가능한 서비스(11.7%), 원스탑 서비스 시스템(한곳에서 모두 처리해주는 방식)(10.1%), 온라인서비스(10.0%), 방문서비스(8.2%),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서비스(4.5%), 기타(상담지원, 교육 등)(3.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이 ‘평균 이하’인 경우 ‘평균 이상’일 경우보다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청소년 지원 서비스’ 방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1순위의 경우 ‘돈으로 지원’이 50.4%로 2순위인 물품지원 13.7%보다 약 36%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다른 학교급에 비해 돈으로 지원, 물품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Ⅲ-18.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지원 받는 방식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다중 응답	1순위	성별		학교급				가족지지기반		
			남성	여성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청소년 부모	평균 이상	평균 이하
돈으로 지원	73.4	50.4	71.6	74.5	67.0	77.2	78.5	68.6	90.0	74.7	72.0
물품지원	46.5	13.7	44.0	47.9	44.4	51.6	50.2	34.2	78.0	50.1	42.6
일상적 서비스	22.9	6.2	21.6	23.7	22.2	22.1	22.3	26.6	14.0	22.9	23.0
특정 이벤트	18.2	5.0	16.4	19.2	26.7	19.8	13.6	11.4	8.0	21.7	14.5
개별 청소년지원 서비스	16.3	7.7	13.9	17.7	10.5	11.8	25.3	19.0	22.0	12.2	20.7
단절 없는 맞춤 서비스	15.7	4.0	15.5	15.9	17.1	15.3	12.1	19.7	6.0	15.7	15.8

구분	다중 응답	1순위	성별		학교급					가족지지기반	
			남성	여성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청소년 부모	평균 이상	평균 이하
24시간 접근 가능한 서비스	11.7	2.9	10.8	12.2	12.1	6.8	9.1	20.2	16.0	11.3	12.1
원스탑 서비스 시스템	10.1	3.4	8.9	10.8	6.6	4.4	9.8	20.9	24.0	8.2	12.1
온라인 서비스	10.0	1.3	11.7	9.0	11.5	9.6	9.8	9.5	4.0	10.5	9.4
방문 서비스	8.2	2.0	9.3	7.5	9.4	7.4	5.5	10.0	14.0	7.0	9.4
온·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4.5	0.8	4.4	4.5	4.0	4.0	2.1	8.3	4.0	2.8	6.2
기타	3.4	2.7	4.4	2.9	5.5	3.2	1.9	2.9	4.0	4.1	2.7

(3)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방식 필요성 및 활용 의향

최근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개발 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 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방식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50.2%, ‘매우 필요하다’가 14.1%로 나타났고, 메타버스 서비스 활용 의향에 대해서는 ‘그렇다’ 51.3%, ‘매우 그렇다’ 14.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필요성과 사용할 의향에 대해 ‘매우 그렇다’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학교급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다른 학교급보다 ‘매우 그렇다’ 비율이 가장 높게 차이를 나타냈다. 경제수준에 따르면 경제수준이 높거나 낮은 경우 ‘매우 그렇다’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학업수준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높거나 낮은 경우 ‘매우 그렇다’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행복도에 따라서도 행복도가 높거나 낮은 경우 ‘매우 그렇다’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지지기반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이 ‘평균 이하’보다 ‘매우 그렇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9. 메타버스 서비스 지원방식 필요성 및 활용 의향

(단위 :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표준편차
필요성	9.0	26.7	50.2	14.1	2.69	0.821
활용 의향	9.5	24.6	51.3	14.6	2.71	0.829

표 III-20. '매우 그렇다'에 따른 메타버스 서비스 지원방식 필요성 및 활용 의향

(단위 : %)

구분		필요성				사용할 의향			
		매우 필요하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 증(t/F)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차이검 증(t/F)
전체		14.1	2.69	0.821		14.6	2.71	0.829	
성별	남성	17.7	2.71	0.881	0.829	18.3	2.75	0.873	1.520
	여성	11.9	2.68	0.785		12.5	2.69	0.801	
학교급	초등학교	21.5	2.87	0.814	10.117 ***	22.6	2.96	0.767	19.241 ***
	중학교	12.5	2.66	0.792		13.5	2.71	0.807	
	고등학교	11.9	2.56	0.869		12.8	2.59	0.871	
	대학교	9.3	2.66	0.772		8.8	2.55	0.814	
	청소년부모	14.0	2.68	0.868		8.0	2.58	0.835	
경제수준	상	25.2	2.84	0.921	8.671 ***	23.0	2.86	0.872	11.674 ***
	중	11.8	2.68	0.779		12.7	2.71	0.785	
	하	13.5	2.56	0.902		15.1	2.53	0.977	
부모학력	중졸이하	15.4	2.54	0.969	0.576	20.5	2.62	0.963	0.380
	고졸	15.4	2.71	0.839		16.7	2.71	0.843	
	대졸	13.5	2.69	0.819		12.8	2.69	0.822	
	대학원졸	12.4	2.67	0.791		14.3	2.73	0.821	
학업수준	상	18.4	2.74	0.870	5.170 **	17.9	2.76	0.855	4.937 **
	중	11.2	2.70	0.759		12.4	2.71	0.776	
	하	13.0	2.56	0.876		13.6	2.59	0.908	
행복도	상	17.6	2.77	0.836	11.181 ***	18.0	2.79	0.829	13.881 ***
	중	8.3	2.61	0.752		9.3	2.62	0.785	
	하	13.5	2.55	0.918		13.0	2.54	0.924	
가족 지지기반	평균이상	19.7	2.79	0.853	5.337 ***	18.9	2.81	0.835	5.919 ***
	평균이하	8.1	2.59	0.774		10.0	2.60	0.808	

*p < .05, **p < .01, ***p < .001.

3. 요약 및 시사점

이제까지 살펴본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의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시기 경험하는 가족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 1) 청소년 시기 경험하는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함이 확인됨.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청소년 시기부터 동일한 가족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경험하고 있음.

우선 가족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구성원 및 현재동거인에 대한 조사에서 친부모, 친/외조부모, 친형제자매 등 전형적 가족구성원 뿐 아니라 친척 33.3%를 포함하여 적은 비율이기는 하나 약 8.5%(다중응답)가 새부모, 새형제자매, 부모의 여자 또는 남자친구 등을 가족구성원으로 응답하였다(표 III-9) 참조). 가족구성원과 현재 동거인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각 가족구성원의 비율에 비해 현재 동거인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가족구성원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상 집단의 경우 친부모를 가족구성원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현재 동거인이라고 응답한 비율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평균 이하 집단의 경우 그 비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평균 이상 집단의 경우 친어머니를 가족 구성원으로 응답한 비율이 85.8%에서 현재 동거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84.8%로 1.0% 줄어들었는데, 평균 이하 집단의 경우 각각 85.7%에서 76.2%로 나타나 9.5% 차이가 났다. 친아버지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큰데 평균 이상 집단의 경우 84.2%에서 80.1%로 4.1% 줄어든 반면 평균 이하 집단은 82.1%에서 67.7%로 14.4% 차이를 보였다. 이는 친부모가 가족구성원으로 존재하고는 있으나 그 동거 여부가 청소년의 가족 지지기반의 인식 정도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형태에 대한 조사(표 III-10) 참조)에서 청소년 시기 경험하는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와 사는 가족을 포함하여 이주배경 청소년과 조손가족, 그리고 적은 비율이기는 하나 청소년(한)부모, 청소년 1인가구,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친구와 사는 가족 등이 응답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기존에 전형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청소년 시기 동안 동일한 가족 형태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가족의 형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가족기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공동주거와 생계 공유, 정서적 유대, 인성교육, 경제적 지원, 상호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특히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가족 기능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가족 기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조사 결과(〈표 III-11〉 참조) 가족은 공동주거와 생계 공유, 정서적 유대, 인성교육, 경제적 지원, 상호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특히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가족 기능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족 기능을 묻는 문항들에 대해 2.98 ~ 3.08(4점 척도) 사이의 평균치를 보이는 가운데 인성교육에 대한 응답은 3.43으로 특히 높은 평균치를 보인 점이다. 즉 ‘나는 기본 인성교육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 52.5%라 매우 그렇다, 40.0%가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이는 인성교육이 가족 본연의 기능으로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청소년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청소년 시기에 가족 환경 변화로 다양한 사건 또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가족 지지기반 정도와 학교급간 차이가 나타남. 초등생은 집안 일, 고등 연령이상은 심리적 상처와 불안, 외로움 등이 높게 나타남.

청소년 시기 가족 환경 변화로 다양한 사건 또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가족 지지기반 정도와 학교급간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 환경 변화로 인한 사건 경험에 있어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하 집단이 평균 이상 집단에 비해 사건 경험이 높았으며, 정서적 상처와 불안, 가족불화 등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III-12〉을 살펴보면, 이사와 입원 등의 일상적 생활 사건 경험에서는 가족 지지기반의 평균 이상 집단과 이하 집단간 평균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정신질환(9.9% vs 32.9%), 이혼(14.8% vs 22.2%), 가출(4.6% vs 13.9%), 폭행(2.3% vs 11.9%), 재혼(2.8% vs 5.8%), 알코올중독(2.5% vs 6.4%), 자살(1.5% vs 4.3%), 빚독촉(1.1% vs 4.3%) 등의 사건 경험에는 집단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사건 경험들이 청소년의 가족 지지기

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러한 사건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 경험 후 치유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묻는 다중응답 질문에 심리정서적 상처, 불안, 외로움, 집안 일, 가족불안, 건강, 교육진로, 무력감, 의식주, 주변의 편견과 낙인, 도움 요청할 곳의 부재, 대인기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지지기반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평균 이상 집단은 불안(33.8%)과 외로움(33.8%), 건강(33.1%), 집안일(32.4%), 심리정서적 상처(31.2%) 등의 순으로, 평균 이하 집단은 심리정서적 상처(46.3%), 불안(39.7%), 외로움(34.8%), 가족불화(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평균 이하 집단의 경우 특히 심리정서적 상처에 대한 어려움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과 상처는 쉽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학교급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이상 집단의 경우 심리정서적상처와 불안, 외로움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의 경우 집안일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집안일이 3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로움(38.6%), 건강(38.4%), 불안(34.1%) 등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심리정서적상처(23.0%)였다.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집안일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다른 것에 비해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가족문제로 고민시 대처 방법에 대해 성별, 학교급별, 경제형편 및 학업수준별로 차이가 있음. 가족지지 기반이 평균 이하로 취약할 때, 무기력, 외부 단절, 자해 등 소극적이고 부정적 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평균 이상 집단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가족문제로 고민시 대처 방법에 대해 성별, 학교급별, 경제형편 및 학업수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방법으로 친구(45.7%), 가족(36.2%), 선생님(15.8%), 서비스 기관(12.2%) 등 외부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42.7%), 외부와 단절(19.0%), 스스로 자해한다(9.3%) 등이 전체 평균으로 제시되었다. 성별, 학교급별, 경제형편과 학업수준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의 경우 ‘친구에게 말해 해결한다’도 높게 나타났지만(남성 34.8% vs 여성 52.0%),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남성 33.7% vs 여성 47.9%)와 ‘스스로 자해한다’(남성 4.7% vs 여성 12.0%)가 남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서는 고등학교와 청소년부모 집단의 50% 이상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를 선택하였고(각각 54.0%, 56.0%), 청소년부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스스로 자해한다’가 20.0%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형편과 학업수준에서 상,중,하 집단으로 갈수록 무기력증과 외부단절, 자해를 해결방법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형편 ‘하’ 집단의 경우 60.8%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30.2%가 외부 단절, 19.2%가 스스로 자해한다는 응답을 선택하였고, 학업수준 ‘하’ 집단은 위 해당 문항에 55.3%, 25.7%, 15.4%가 선택하였다. 성별, 학교급별, 경제형편과 학업수준별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기초하여 가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청소년 가족 및 당사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족 지지기반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이하 집단이 무기력, 외부 단절, 자해 등 소극적이고 부정적 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평균 이상 집단의 2배 이상에 해당되었다. 평균 이하 집단과 평균 이상 집단의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각각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58.3% vs 28.0%, ‘외부와 단절한다’ 27.7% vs 10.7%, ‘자해한다’ 14.6% vs 4.4%로 나타나고 있다.

5) 가족 지지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이 지니는 특성에 기초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기반의 필요성과 접근 친화적 시스템 방안이 필요함.

가족 지지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이 지니는 특성에 기초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기반의 필요성과 접근 친화적 시스템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가족 지지기반을 묻는 5개 문항의 평균은 3.41로 나타났다. 그 중 ‘우리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준다’ 문항의 평균이 3.25로 가장 낮고, ‘나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의식주)를 받고 있다’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돌봄(의식주) 제공에 비해 가족 내 심리적 지지는 약하게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의 기능에 대해 기본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많았으며, 특히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로 부모역할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하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가족구성원이나 동거인의 역할에 대한 요구를 알 수 있다.

가족의 상호 지지,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이 약화되는 쪽으로 가족 기능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이러한 요구들은 더욱 의미있게 들린다.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하 집단의 특성을 평균 이상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및 사회관계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일터가기 싫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와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의 응답에서 집단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즉 평균 이하 집단은 각각 2.48, 2.28으로 평균 이상 집단의 평균 2.08, 1.89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일터가기 싫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에 평균 이하 집단의 48.2%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가족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서비스 기관 선생님, 또는 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상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 지지기반의 견고성 정도가 가족을 넘어 학교 및 사회관계에도 상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하의 집단의 경우 자신의 걱정과 문제를 상의할 만한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평균 이상 집단보다 큰 것으로 알 수 있다.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하 집단의 경우 친부모가 가족구성원으로 존재하지만 동거하지 않다고 응답한 정도가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상 집단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 참조). 지역사회로부터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로 부모역할교육을 높게 선택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표 III-17〉 참조). 가족환경변화로 인한 사건 경험에 있어 정신질환, 이혼, 가출, 폭행, 재혼, 알코올중독, 자살, 빚독촉 등의 사건을 평균 이상 집단보다 높게 경험하였으며, 심리정서적 상처 및 불안, 외로움, 가족불화, 무력감 등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친구나 가족, 학교선생님을 통하기 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외부 단절, 자해 등 소극적, 부정적 방법에 대한 의존도가 평균 이상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실제 청소년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즉 가족 지지기반이 취약한 청소년에게 가족의 기능을 보완 또는 복구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청소년들을 탐색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사회로부터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돈이나 물품, 일상적 서비스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 집단과 유사하거나 낮게 나타난 반면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청소년 지원 서비스와 원스탑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높게 나타났다. 부모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되고 인지되는 가족환경에서 청소년이 직접적인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접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6)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비전형적 생애경로에 있는 청소년의 경험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으로 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적·실질적 지원이 필요함. 모든 가족을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적극 수용하는 정책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비전형적 생애경로에 있는 청소년의 경험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바, 이에 적합한 정책적·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라 이전과 다른 생애경험을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 내에 청소년 부모 집단 50명을 확보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다른 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해결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가족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있어 심리정서적상처(54.0%), 불안(42.0%), 외로움(46.0%) 등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친구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62.0%)를 제외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기력증을 경험하는 경우(56.0%)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9.3%) 대비 20.0%로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로부터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돈(90.0%)과 물품(78.0%) 지원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로 선호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금전적이고 물질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으며, 서비스 지원시 개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가족단위 지원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때 청소년 부모 집단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학교상담실(위클래스 등)(82.1%)이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63.6%) 등을 비롯하여 청소년 서비스 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전형적 생애 경험을 하는 청소년 부부를 배제하거나 위기가족으로 치부하는 대신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적극 수용하는 정책과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학교급 또는 청소년 연령에 따라 가족환경의 변화와 사건 경험의 정도와 종류가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초·중고대 연령의 청소년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이 필요함.

학교급 또는 청소년 연령에 따라 가족환경의 변화와 사건 경험의 정도와 종류가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한 청소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가족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전반적으로 심리정서적상처와 불안에 대한 응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집안일’과 ‘외로움’, 중학교 집단의 경우 ‘집안일’이 40%에 가까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급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종류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서비스 기관 이용 경험에 대해 초·중·고등학교 집단은 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센터 이용 경험이 각각 80%, 60% 이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79.5%), 대학교는 학교상담실(68.2%)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청소년 서비스 기관의 목적과 활동을 알려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메타버스의 활용 필요성과 의향에 대해 초등학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고·대학교 집단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낮은 연령의 청소년일수록 쉽게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메타버스가 지니는 아바타와 실재감있는 공간구성, 상호작용 등의 특성을 활용할 때 현실세계에서 경험하는 성별과 다양한 가족, 인종적 차별 뿐 아니라 신체·심리적 장애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능성을 지닌다(Duan et al., 2021). 가족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이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는 메타버스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교육적으로 치밀한 사전 설계와 준비가 필요하며,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하드웨어와 인터넷 연결 등의 이유로 특정 집단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 III-21. 가족환경 설문조사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실태조사 결과]			
가족관계/ 가족내 상호작용	가족지지 기반	• 학업수준이 낮고, 경제수준이 낮은 집 단일소득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하 집단이 평균 이상 집단보다 높게 나 타남.	• 학업수준, 경제수준과 가족 지지기반 평균간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가족 지지기반을 약하게 인지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학 업지원과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 속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 방안 모색 이 필요함.
학교/ 사회관계	학교사회 관계	• 학교 및 사회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하 집단이 평 균 이상 집단간 인식차가 존재함. 평 균 이상 집단은 가족문제와 걱정거리 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학교나 서비스 기관 선생님, 친구가 있다는 질문에 높게 응답한 반면, 평균 이하 집단은 학교/일터 가기 싫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일상과 사회생활 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 문항에 각각 48.2%와 35.3%가 그 렇다 이상의 답변을 하였음.	• 가족 지지기반이 가족 뿐 아니라 학교 및 사회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 가능함. 학교 및 관련 기관이 청 소년 가족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 소년의 스트레스를 지속 점검하고 건 강한 해소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 대 책이 필요함. 원스탑 센터 활용에 대 한 요구가 많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 한 운영 및 홍보 대책이 필요함.
가족 형태	가족구성 원과 현재 동거인	• 가족구성원과 동거인 조사를 통해 다 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함 <표 III-9>.	• 가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 한 형태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회분 위기가 필요함. 가족형태를 부모-자 식에 한정해서 보는 전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을 적극 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함.
	과거 또는 현재의 가 족형태	• 청소년은 기존 가족의 분열, 재결합, 구성원 대체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 하고, 이 과정에서 돌봄 필요 존재가 아닌 돌봄 자립과 제공 존재가 되기도 함. 이러한 개인이 경험하는 변화 과정에서 개인별 적절한 지원이 제공 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시기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 하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함. 즉 가족 형 태를 전형성 여부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거나 특정 형태의 가 족만을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포용 적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초등 학교 시기부터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시기 경험하는 가족 환경과 형태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지원의 내용과 필요 정도가 다름.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변화의 징조를 파악하고 초기대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가족기능	가족기능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기본 인성교육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가족 기능으로 강조와 함께 학교 인성교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가족의 기능에 대한 요구는 첫째, 가족에서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과 동시에 둘째, 가족 밖보다 가족의 기능으로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부모교육, 가족연대교육 등의 형태로 가정내 인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기존 가정밖, 예를 들어 학교와 기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함.
	가족환경 변화로 인한 사건 경험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하 집단이 (평균 이상 집단에 비해) 정신질병, 이혼, 가출, 폭행, 알코올 중독, 자살, 빚독촉 등 사건 경험 비율이 높음 <표 III-12>.	가족 변화에 따른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	-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하 집단의 경우 (평균 이상 집단에 비해) 심리정서적 상처, 불안, 외로움, 가족불화, 무력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3>. -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남. 심리정서적 상처나 불안, 외로움 등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초등·중학생의 경우 집안일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3>.	- 가족 변화로 인한 부정적 사건을 겪는 청소년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그 과정에서 활동, 교육과 상담 등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급 또는 연령별로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문제의 해결이나 치유 방법 역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함. 학교급별, 연령별, 그리고 개인별 접근이 필요함.
	가족문제 해결 방법	가족문제 고민시 해결 방법에 대해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상 집단은 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이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하 집단이 가족 문제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조사 항목		주요 결과	정책적 시사점
		나 학교 선생님에게 상의한다고 하는 것에 높게 응답한 반면, 평균 이하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증(58%)으로 대처하거나 외부와 단절(27.7%), 자해(14.6%)에 높이 응답하였음 <표 III-14>.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하였음. 가족문제로 심리적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청소년서비스 기관 이용 경험/인지도	청소년 서비스 기관 인지도	• 조사 항목에 있는 청소년전환 포함 총12종의 청소년 서비스 기관에 대해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상 집단이 평균 이하 집단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5>.	• 가족 지지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청소년 서비스 기관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위험이나 문제 노출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청소년 서비스 기관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
서비스 요구 사항	우리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	• 가족 지지기반 평균 이하 집단은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로 가족 상담과 부모역할교육을 많이 선택함.	• 가족 지지기반을 견고히 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와 국가기반을 견고히 하는 기초가 됨. 가족 지지기반의 취약 집단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 국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가족 지지기반 취약 집단에 대해 특히 가족상담 프로그램이나 부모역할교육을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는 돈과 물품에 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20.7%)도 높게 나타남 <표 III-18>.	• 다양한 가족 환경과 형태를 고려한 개별 청소년 지원 서비스가 요구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메타버스 활용한 서비스 지원 방식 필요성 및 활용 의향	•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메타버스의 필요성과 사용 의향에 대해 학교급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초등학교급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필요성과 사용 의향성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급, 고등·대학교급으로 나타남 <표 III-20>.	• 코비드와 함께 온라인 수업의 확대와 메타버스의 교육 활용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연령이 낮아 질수록 메타버스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메타버스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메타버스의 특이·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등의 철저한 설계 개발과 사전 준비를 통해 효과를 담보할 필요가 있음.



제4장 가족환경 생활 면담조사

-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분석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보다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면담조사의 목적은 정책적 지원 방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과제를 도출하고, 가족의 개념 및 가족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지원이 어떻게 달라지고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재편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또한 본 면담 조사는 양적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질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가족환경과 생활을 이해하고 탐색하여 청소년 개개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면담대상은 전체 설문조사 기관 중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을 소개받을 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해당기관의 협조를 받아 생애주기별(초중고대 연령별로 약3명씩) 총 7개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28명을 선정하였다. 소개받은 청소년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본인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수합하였고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동의서 수합이 완료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모더레이터 배정 및 진행 일정을 협의하였다. 인터뷰 진행 2시간 전, 최종적으로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조사지는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방향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가족환경 변화의 의미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사항임을 확인하고, 국내외 문헌조사, 가족환경 변화와 청소년 개념틀 구안을 통해 조사도구 초안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자문과 현장 파일럿 테스트를 통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고 최종 수정·보완을 거쳐 확정되었다. 면담 조사내용은 가족

67) 이 장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지수(전 군포시청소년재단 이사)가 작성함.

문제로 고민될 때 주로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가족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이유,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가족환경 변화로 나에게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 나의 가족지지 기반, 나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이다.

본 면담 조사에서는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경험과 서비스 지원 욕구를 심층 면담하고자 하였다. 면담 내용의 구성은 세움 아동복지실천회(2022), 야마다 마사히로(2019), 허민숙(2020), 히라야마 료, 후루카와 마사코(2016), Bernardi, L.,(2011), Pearce et al.,(2017) 등을 참고하여 질문 틀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 연구회의를 통해서 초안을 개발하고 5명의 현장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하였다(부록 2에 첨부).

면담조사대상은 2022년 7월 28일 부터 8월 22일까지 초등학생(초등방과후아카데미) 7명, 중학생(중등방과후아카데미) 5명, 고등학생(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명, 고등연령(학교밖 꿈드림센터)5명, 대학생(전문대/4년제)(18-24세) 5명, 청소년부모(민간단체 킹메이커)(16-24세) 3명으로 총 28명이다. 면담대상자의 특성은 <표 VI-2>와 같다. 면담조사의 내용은 ①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② 대처가 어려웠던 이유, ③ 제공 받은 서비스, ④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도움이나 서비스, ⑤ 가족지지와 가족의 의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표 VI-1>과 같다.

자료 수집은 ZOOM을 이용한 1:1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방식으로 2022년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모더레이터는 아동복지학,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이상의 경험이 있는 인터뷰 전문가 3명을 선정하여 연구진이 사전에 모더레이터와 워크숍을 진행한 후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당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자료분석틀은 5개 면담내용 영역별로 가족지지 유무, 생애주기별, 성별로 분석하였으며, 반복적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IV-1. 가족환경 면담대상자 특성

번호	PID	지역	이용기관 종류	성별	이름
1	113701	충남	초등 방과후 아카데미	여자	김○○
2	113702	충남	초등 방과후 아카데미	여자	김○○
3	101801	경기	초등 방과후 아카데미	여자	노○○
4	100901	강원	초등 방과후 아카데미	여자	안○○
5	101802	경기	초등 방과후 아카데미	여자	이○○
6	114801	세종	초등 방과후 아카데미	여자	여○○
7	114802	세종	초등 방과후 아카데미	여자	김○○
8	152801	경기	중등 방과후 아카데미	남자	전○○
9	152802	경기	중등 방과후 아카데미	남자	황○○
10	154401	경남	중등 방과후 아카데미	여자	김○○
11	162101	전남	중등 방과후 아카데미	여자	김○○
12	16212	전남	중등 방과후 아카데미	여자	김○○
13	221502	경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자	최○○
14	217301	전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자	박○○
15	221501	경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자	김○○
16	252001	경기	꿈드림센터	남자	최○○
17	252002	경기	꿈드림센터	여자	김○○
18	255901	경북	꿈드림센터	여자	박○○
19	255902	경북	꿈드림센터	여자	김○○
20	271701	제주	꿈드림센터	남자	김○
21	312001	경북	전문대학	여자	최○○
22	311001	인천	전문대학	여자	황○○
23	355401	대구	4년제 대학	여자	권○○
24	355402	대구	4년제 대학	남자	황○○
25	361201	충남	4년제 대학	여자	김○○
26	900003	인천	청소년 한부모	여자	이○○
27	900002	인천	청소년 한부모	여자	김○
28	900001	인천	청소년 한부모	여자	송○○

표 IV-2. 가족환경 면담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1.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로 고민될 때 주로 어떻게 하는가? 1) 가족환경이 변했던 사건 2) 초기 대처(해결) 경험
2. 대처가 어려웠던 이유	내가 가족환경 변화(가족문제)에 대처(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1)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 대처(해결)의 어려움 2) 가족문제로 힘들었던 이유
3. 제공받은 서비스	가족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서비스) 2) 초기 대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4.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도움/서비스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로 나에게 필요한 도움/서비스는? 1)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도움과 서비스 2) 메타버스 서비스(아바타를 이용한 가상공간 서비스)
5. 가족지지 / 가족의 의미	가족 중 나를 정서적 지지와 의식주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가? 1) 가족 중 나를 가장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 2) 내가 어려울 때 지지를 받고 있나 3) 가족 중 1명이라도 나를 신뢰하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사람은? 4) 가족중 1명이라도 나의 의식주를 돌봐주는 사람은? 5) 나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 가족하면 떠오르는말

2. 조사결과 분석

1)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는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로 고민될 때 주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가족환경이 변했던 사건은 어떤 가족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가족환경이 변했던 사건과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둘째, 초기 대처(해결) 경험은 가족변화와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움을 말한 적이 있는지, 말한 적이 있다면 누구에게 말했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를 알고 난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하였는지, 초기대처는 어떠하였는지,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기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면담 결과는 응답자 전반, 생애주기별/기관유형별, 성별/가족내 지지체제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1) 경험했던 가족환경 변화

응답자 전반에서 경험했던 가족환경 변화로는 이사, 이혼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가족(조부모, 어머니 또는 아버지 등) 사망, 가족 건강악화, 실직, 재혼, 정신질환(우울증, 무기력증 등) 등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어머니랑 재회해서 살다가 다시 독립한 경험, 가족 폭행 경험 등의 특이 사례도 있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는 없긴 한데, 일단 저희는 평범한 그냥 가족인데 그 중에서 한 분, 아빠께서 아프셔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어서.”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이OO)

“작년 이맘 때쯤. 작년 여름에 저희 어머니가 건강검진 받으시고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4년제 대학 남성 황OO)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하신 뒤에 처음에는 되게 둘 다 잘 지내다가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지 계속 엄마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해서. 그런데 나갈 때마다 새로 또 형제가 생겨서, 갑자기 나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빠한테 당신 딸이다, 아들이다 해서 제가 오빠 2명에

언니 1명 있어서... 갑자기 어느 날 또 전화가 와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었나, 그때 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야기 막 하다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2017년인가 18년인가에 정식으로 이혼한 걸로 알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김OO)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랑 안 살아서 같이 있는 게 변화인 것 같아요.

5살(까지만 엄마아빠랑 살았는데), 기억도 없고... 20살 되고 엄마랑 살았는데 저는 오히려 가족이랑 있는 게 어색해서 제가 나왔거든요. (어릴 때에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전문대학 여성 최OO)

생애주기별/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과 중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족환경 변화 경험이 적거나 크지 않은 편이나, 고등학생 이상(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 등)에서 자퇴, 가출, 임신과 출산 등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퇴나 임신과 출산 등은 기관의 특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성별/가족내 지지체제 유무 간 차이점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처음에 제가 자퇴한다고 했을 때 되게 욕을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수용하신 편이에요.”

(꿈드림센터 남성 최OO)

“가족 환경의 변화라기 보다는, 제가 둘째를 가져가지고 그게 제일 많은 변화 같아요 ”

(청소년부모 여성 이OO)

“저는 아빠랑 언니랑 셋이서 살다가 가족 환경이 많이 안 좋아서 집에서 나와서 그룹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스무 살이 되서 자립을 했는데, 그때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19살 때부터. 그래서 스무 살 때 자취를 하면서 같이 동거를 했었어요, 남자친구랑.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살면서 아이가 생겨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부터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사도 한번 했었고, 원래 원룸이었거든요.”

(청소년부모 여성 송OO)

(2) 가족문제 해결 및 대처 방안

가족문제 해결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족문제 발생 시 친구, 부모님 및 가족, 친척, 선생님(담임/위클래스 등), 상담사 등에게 가족 문제를 털어놓고 공감과 위로를 받는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 문제를 털어놓기는 하지만 해결이나 확실하게 대처가 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가족 문제라는 특성상 누군가에게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실질적인 해결이나 대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냥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답답하면 친구들한테 털어놓는 그런 정도예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이OO)

“처음에는 되게 많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되게 힘들었는데 일단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쨌든 제가 장녀다 보니까 제가 가장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최대한 나쁜 길로 안 빠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냥 저희 가정만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계속 나쁜 길로 빠져들게끔 하는 그런 유혹도 있었고 아니면 아버지랑 저랑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되게 어렵긴 했는데 사실 뭔가 커다란 대처 방법은 없었지만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앞만 보고 되게 삶이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최OO)

“우선은 이거를 어른들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뭐가 해결이 될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나는 게 위클래스밖에 없었지만 제가 중학교 때는 정말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움이 될까 거기가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그리고. 홍보는 하지만 전문성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걸로 했거든요.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걸 제가 말을 한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이...”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주변 지인들한테는 약간씩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깊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게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주변인에게는 말을 안) 해왔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얘기를 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사실 중학교 때는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아니었어서. 위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쪽 선생님도 그렇게 뭔가 친절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잘 들어주신다거나 이런 거 없이 약간 지레짐작으로 계속. 제가 그때 중학교 때는 설문인가 우울도 조사, 그런 거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었는데. 우울도가 조금 높게 나와서 위클래스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뭔가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부모님한테 연락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못 체크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4년제 대학 남성 황OO)

생애주기별/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 문제에 대해 털어놓는 대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대상도 주변 친구, 가족, 선생님 등에서 상담 전문가나 기관 등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 고등학생 이상에서는 가족 문제에 대해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는다는 응답도 일부 나타났다.

“친구들의 경우, 이렇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이사를 가서 되게 적응하기 힘들거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친구에게 말해요. 그래도 모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만 말해서.”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노OO)

“(의논하는 대상은) 저는 친구요. 위클래스나 아니면 담임쌤한테 말하기도 해요.”
(중등방과후아카데미 남성 전OO)

“원래는 나라에서 하는 보건소인가, 하여튼 그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게 있어서 거기로 갔었다가 한 6주인가, 그 정도 하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받고 끝내고 있다가 또 힘든 일이 생겨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갈 생각은 사실 안 했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냥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데 (대학) 상담 센터가 있다고, 심리 상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신청해볼까 해서 그때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꽤 오래된 거 같은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전문대학 여성 황OO)

“어.. 외국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외국인 친구는 서로 겹치는 지인도 없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 친구한테 내가 힘든 거 얘기하다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거 말고는 제가 올 초에 한 3월? 그때부터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 의사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거 다예요. 외국인 친구랑 정신과 의사선생님 두 분.”
(전문대학 남성 황OO)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누군가에게 말했던 적은 없어요”
(전문대학 여성 최OO)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점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가족 내 지지체제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족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스스로 부인하려고 하거나, 외부의 상담을 받을 때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심리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우선 제가 가족 문제로 고민될 때 딱 친구 한 명에게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한다 그리고 저희 대학교에 행복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증을 겪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4년제 대학 여성 김OO)

“다른 사람의 기분이 나빠질까 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얘기를 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2) 대처가 어려웠던 이유

대처가 어려웠던 이유는 내가 가족환경 변화(가족문제)에 대처(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 대처(해결)의 어려움은 가족환경 변화(이사, 이혼, 사고 등)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를 알게 된 후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둘째, 가족문제로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왜 힘들었는지, 예를 들어 무엇이 슬프게 하였는지, 어렵게 하였는지, 힘들게 하였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가족문제 해결과정에서 초기, 중기, 종결(처음, 중간, 마지막)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면담 결과는 응답자 전반, 생애주기별/기관 유형별, 성별/가족내 지지체제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1)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 대처(해결)의 어려움

경험했던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 대처(해결)의 어려움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함 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본인이 해결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가족 문제라는 부분이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결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른들의 결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거나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외에 가족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할 기관이나 대상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할머니나 아빠의 친척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를 좀 돌려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중간에서 너무 힘들고 엄마는 아빠랑 연락을 안 하려고 하고 아빠는 엄마랑 연락을 달으려고 하는데 이게 연락 수단이 저밖에 없으니까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가운데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이사나 전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요. 집에 어떤 일 관계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건데”
(꿈드림센터 남성 김O)

“그 이전에도 할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히 뭐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편찮으신 엄마한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심리적으로 더 하면 더 했지 그렇겠냐 라는 생각에. 부모님한테 뭘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없었던 거 같아요. ”
(4년제 대학 남성 황OO)

“사실 상담을 신청한다고 해도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어디서부터, 만약에 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야기했을 때 진짜 순서가 뒤죽박죽이었거든요, 아마 선생님도 들으시면서 이게 뭔 이야기이지? 했을 때도 있고. 진짜 뒤죽박죽이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사실 참는 거.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조차 못 했으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전문대학 여성 최OO)

“(가족문제를 알게된 후 가장 큰 어려움은) 의식주, 집안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곳의 부재 등”
(중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중학생 과정 이상의 나이인 경우 가족 문제 발생 시 부모와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유형 중 청소년 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특히 주거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필요성을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성별과 가족 내 지지체제 유무에 따른 차이점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일단 아빠도 저한테 책임을 주는 것도 힘들었고, 또 그리고 언니가, 제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나 다 언니를 조금 무서워서 언니한테는 말대꾸도 안 하고 잘 말을 듣는데. 저한테는 되게 막 대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언니가 가니까 이제 그거를 말려줄 사람도 없고, 엄마, 아빠 일 나가 있을 때는 제 동생들이 저한테 대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중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지금은 술을 안 먹긴 하는데, 건강 문제로 안 먹긴 하는데 예전에는 또 마셨어서, 그래서 그러지 술 먹으면 좀 더 해서 그때가 많이. 그래서 이제는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긴 하지만 약간 아빠만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서 싸우게 되고, 괜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김OO)

“일단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니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도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일단은 제일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모아둔 돈도 없었고 나이도 어렸고, 제가 아기를 갖고 한 5개월, 6개월 때 그때 갑자기 일을 하게 됐어요. 돈을 그래도 모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임신한 것도 비밀로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일단은 4개월 정도 모았어요 만삭 때까지.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모았다가 진짜 그걸로 뭐 아기 낳고 입원비 그걸로 계산하고 조리원 그걸로 계산하고, 아무래도 돈이 일단은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부모 여성 이OO)

“너무 복잡하고 LH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해서 저희는 오히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신청 방법이. OO에 전화를 해봐도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는 식이고...”
(청소년부모 여성 김O)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정확한 애들의 양육 코칭이 없어서 그런 걸 알고 싶고 화를 잘 누르는 방법이나 애기를 볼 때 잘 케어해서 애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단체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렇죠.”
(청소년부모 여성 김O)

3) 제공받은 서비스

제공받은 서비스는 가족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서비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서비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기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청소년이용서비스기관에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제공받았던 서비스를 더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둘째, 초기 대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가족환경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초기 대처를 잘할 수 있으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때 제일 도움이 되었는지(내용과 전달방식), 어떤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때 가장 나빴는지, 서비스의 초기 대처-지원과정-종결 과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어느 단계가 중요하다고 느끼는지, 가족문제(가족환경) 어려움이 있었을 때 초기 대처(해결방법)는 어떠한지,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더 필요한 서비스들은 없는지, 어떻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좋을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면담 결과를 응답자 전반, 생애주기별/기관유형별, 성별/가족내 지지체제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서비스)

전반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서비스)에 대해 현재 이용 중인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위클래스나 학교 상담실(상담교사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1388 청소년 전화,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등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주로 학교를 통해 알게 되어서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가족이나 주변 친구, 지인, 경찰 등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어떤 외부 사설 상담기관도 다녀봤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상담센터는 많이 힘들었어 가지고 엄마가 다니자고 하셔서,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청소년 장학)센터에는 일단 저랑 친한 친구들이 먼저 다니고, 저는 그 당시에 계속 집에서 하던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학교에서도 센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만 못하니까 속상해서 다니고 싶다고 말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안OO)

“중학교 때 여기 기관에서 다니라고 학교 앞으로 홍보 와서, 그때 알게 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그런 시설이나 기관이나 뭔가 저희를 보호해주는 시설 이런 거는 대부분은 경찰에서 알려줘서 경찰이 거기랑 같이 기관이랑 연계해서 알게 된 게 있었고 또 상담복지센터 이런 것들도 다 위클래스 선생님이 알려주셨고 또 중학교에 갔는데, 무슨 또래상담사 이런 게 있어서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최OO)

“처음에는, 원래는 초등학교 때는 상담을 약간씩 학교에서 받아서. 그런데 원래는 거기서 따로 상담을 조금씩 받다가, 학교에서. 그런데 거기 상담을 하는데 상담 선생님께서 이런 센터도 있고. 거기에서 아마 연결을, 학교에서 아마 연결을 해줘서 많이 알게 된 거 같아요. 그리고 예방 교육,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센터도 있으니까 이럴 땐 이런 도움을 청하면 좋다고 해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제일 많이 알게 된 거 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김OO)

“위클래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상담 선생님이 수업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학교 때도 수업에 들어오셔서 상담실도 가서 자퇴 관련해서 고민 상담도 하고 했어요...”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어린 경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 선생님 등의 소개나 안내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반면, 고등학생 이상에서는 본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찾거나 검색해서 알게 되고, 직접 기관을 찾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니는 청소년(초등/중등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위클래스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꿈드림센터, 대학, 청소년한부모)은 위클래스 이용 시 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의 이유로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성별과 가족 내 지지체제 유무에 따른 차이점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꿈드림센터는 주변 지인이 얘기를 해주고 인터넷에 쳐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직접 구미시에 있는 꿈드림센터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기관에 제가 등록을 하고 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유튜브에서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라 이런 거 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 있지? 그냥 네이버에 자살 이런 거 치면 나와요. 그냥 청소년 상담센터 막 이런 거 나와요. 지식인에도 나오고...”
(꿈드림센터 여성 박OO)

“1388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제 여동생이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전화한 적 있어요.”
(4년제 대학 여성 권OO)

“제가 임신했을 때 막 진짜 많이 어려웠어서 이곳 저곳 찾아보다가 킹메이커를 카톡에서 봐서 카톡에서 먼저 연락을 드려서 대표님이 1차 시설에 갔다가 자립할 때 2차 시설로 올 때쯤 나한테 와라. 하셔서 그때쯤 온 거 같아요”
(청소년부모 여성 김O)

“위클래스는 가는 거 자체가 눈치 보였고요. 너무 학교 중간에 있고 복도에 다 있는데 위클래스 들어간다고... 그래서 갈 생각도 안 했고. 미술치료라고 그때 갔었는데 가서 속 얘기를 한다기 보다는 그림 그리고 논다? 그리고 속 얘기했다가 위클래스처럼 미술치료 선생님이 사무실 가서 얘기할까 봐”
(전문대학 여성 최OO)

“위클래스는 사실 잘 몰랐어요... 간식 주는, 약간 그런 이미지여서 그때 뭔가 상담을 진행한다던가, 이런 곳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울 점수가 높게 나와서, 그때 위클래스로 와 달라고 해서 그때 처음 알았고. 상담을 그때 한 번 하고 나서 안 했던 거 같아요, 제가 피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면 부모님한테 무조건 연락이 간다, 이것도 정말 이야기가 하기 싫은, 그렇게 됐었고, 이야기가 하기 싫어졌었고. 두 번째는, 그마저도 이제 상담 내용을 어머니한테 전하셨던 거예요... 그냥 그 뒤로 그 근처는 안 갔어요.”
(전문대학 여성 황OO)

(2) 가족환경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초기 대처를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전반적으로 가족환경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초기 대처를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 상의할 수 있는 용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특히 문제에 대해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되게 용기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 처음 제가 말한 거는 부모님의 갈등도 있었으니까 그걸 말할 용기도 필요한 거 같고. 아버지가 다치셨을 때는 걱정도 해드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 같아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안OO)

“일단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전 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부모님끼리 다시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고 상의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중등방과후아카데미 남성 전OO)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많이, 미리미리 알아 두는 것.”

(중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초기 대처를 잘하려면 저는 일단 배경지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했던 상황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배경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걸 초기에 대응하는 데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이후에도 도움을 받는 데도 유용할 것 같아서 저는 배경지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최OO)

“이야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이미 해주셔서 그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격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잘할 거야, 잘 버틸 거야’ 이런 거랑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꿈드림센터 여성 박OO)

“저는 주변인들한테 일단 알리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여쭙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그런 걸 좀 알아보고, 핸드폰에 요즘 나오니까 검색이라도 해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전화로 해보면 그래도 거기서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진짜 위급할 때, 자기가 전화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청소년부모 여성 송OO)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대학 이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고, 어떤 기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해결방식에 관한 조언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별과 가족 내 지지체계 유무의 차이점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도움도, 솔직히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더 찾으면 분명히 다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고 하겠는데 그 상황에 놓였을 때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전문대학 여성 최OO)

“사실 초기 때는 그냥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좀 진압이 되는 거 같긴 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누가 들어줬었다면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위험 부담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문적인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일 마음이 놓일 거 같아요.”

(전문대학 여성 황OO)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슨 상담이든 아니면 진료든 전문적인 방식을 통해서 좀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면 좋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꺼려한다기 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양한 조언도 들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면 좋겠어요.”

(4년제 대학 남성 황OO)

(3) 제공받은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공받은 청소년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거나, 교육/학업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지원받았던 서비스 중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응답은 없었다.

“(위클래스) 선생님이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을 때 선생님이 싸운 친구와 저를 부르셔서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서로 쌓였던 감정들이나 그런 거를 말하면서 화해를 하니깐 상담하는 게 좋았던 거 같아요, 학교에서.”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안OO)

“청소년상담센터 쪽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새로운 고민이 생길 때마다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만나러 와주시니까, 외부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 이외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담 선생님이 있으니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김OO)

“저는 꿈드림센터에서 받은 1:1 수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다 같이 배우는 수업에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면 진도를 아예 안 나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1:1 수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아무래도 집이, 정말 킹메이커 없었으면 지금도 저희 집을 어떻게 했을까 정말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킹메이커 없었으면 집도 아마 이런 집에서 못 살았을 것 같고, 가구들도 다 해 주셨거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가구들도 야기 필요한 가구들, 저희 필요한 가구들 다 해 주셔서 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도 정말 힘들게 지냈을 것 같아요...”

(청소년부모 여성 이OO)

“그룹홈에 있을 당시에 교육적인 문제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한테는. 영어 학원도 다니고, 취미로 베이킹 학원 다니고, 그리고 또 이것 저것. 꽃을 꽃꽂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킹메이커에서 주거 지원을 해줬는데, LH 매입 임대로 왔어요, 올해. 그래서 일단 주거로 지원 받는 건 없어요. 제가 킹메이커에서 일을 하거든요. 월급을 받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청소년부모 여성 송OO)

“네, 일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래도 저희 가족이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물품 지원에서 생리대 그런 지원 카드도 쓸 수 있고 또 급식카드나 그런 걸 하면서 되게 제가 급식, 밥을 먹는 데도 되게 처음에는 저희 돈으로 사 먹기엔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카드를 지원받음으로써 조금은 먹는 그런 걱정이 줄었고... 엄마랑 잠깐 살 때도 미혼모 그런 시설이나 단체에서 잠깐 한 3개월 주거 지원을... 그런 걸 받기 전보다는 받고 나서는 생활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최OO)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대학 이상에서는 전문적 진료 도움을 받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꿈드림센터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업적 도움을 받거나, 청소년부모 기관에서 청소년 부모 주거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차이점 외에는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과 가족 내 지지체제 유무 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저는 아무래도 그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그 약물 처방을 받으니까 그게 효과가 좀 제일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담해주시는 분이 없었으면 그게 더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 둘 다 필요한 거 같은데 굳이 우선순위를 얘기하거나 비중을 따지면 그런 거 같다. 이 말이에요.”

(4년제 대학 남성 황OO)

(4) 가족문제 관련 어려움이 있을 때 초기 대처(해결방법)에 대한 의견

대체로 가족문제 관련 어려움이 있을 때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초기 대처가 제대로 되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인들의 문제에 대한 초기 대처는 대체로 미흡했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생애주기별, 기관유형별, 성별, 가족 내 지지체제 유무 간 차이점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초기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좀 더 어려울 거 같아요”

(중등방과후아카데미 남성 황OO)

“일단 초기 대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상황이 엄청 달라질 테고... 초기 대처를 못 하고 늦게 이게 계속 끌고 갔더라면 제가 보는 피해도 엄청 많았을 테고 그런 시간이 흐름으로써 되게 많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잡아야 그 이후의 삶도 달라지고 좋게 긍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최OO)

“초기 대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계기로 인해서 제 성격이 바뀔 수도 있고 뭐라고 해야 하지?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뀔 수가 있어서... 초기 대처를 안 한 상태라면 자신의 약간 지치는 게 심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심적으로 지치면 몸도 지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제가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상담을 받고 이랬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도 있긴 하죠. 여러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았던 거니까.”

(꿈드림센터 여성 김O)

“저는 초기에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초기에.. 지금은 대인관계도 그렇고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좀 더 나아진 거 같은데... 그걸 좀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초기에 뭔가 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제가 더 잘 알았다면 그렇게 힘든 시기가 없지 않았겠지만 줄일 수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4년제 대학 남성 황OO)

“기초수급이라는 걸 알았으면 기초수급 신청을 빨리 해서 빨리 선정이 돼서 애기를 초음파나 이런 걸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거랑 의료급여 라든가 그런 걸 알았으면 빨리 대응해서 애기를 아픈 거나 이런 거에 빨리 빨리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러지 못했던 게.”

(청소년부모 여성 김O)

(5) 더 필요한 서비스 및 홍보와 니즈

전반적으로 더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많지는 않았으며,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직업체험 요청 등이 있었다.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방안으로는 유명인을 통한 광고 외에 SNS나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일부는 시설 자체를 늘려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에게는 이런 상담 시설의 전화번호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이트나 자신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활발하고 재미있기보다는 너의 마음을 잘 들어줄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영상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필요한 서비스는, 일단 다양해서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안OO)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하면 될 거 같아요. 저는 유튜브가 더 편했어요. 사회자 영상으로 하는 게”

(중등방과후아카데미 남성 황OO)

“일단 뭔가 다른 서비스, 저는 이게 의식주 중에서 옷 관련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지원이 뭔가 옷을 물려준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살집이 있는 편이어서 아무 옷이나 입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어서 뭔가 옷 자체를 준다기보다는 옷 가게나 아니면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가맹점을 해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최OO)

“직업 체험을 해주는 게 어떨까요? 이건 너무 개인적인가? 너무 개인적인 것 같은데”

(꿈드림센터 남성 최OO)

“굳이 큰 상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애들 인식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되게 뭔가 안 좋고 힘들어야지 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좀 접근성이 좋은? 자기가 힘들어서 찾아봐서 지도를 보면서 가는 그런 거보다 약간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더 필요한 서비스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도 완벽하긴 해요.”

(꿈드림센터 여성 박OO)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에서 더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청소년부모에서는 경제적/의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조금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성별과 가족 내 지지체제 유무에 따른 차이점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센터들은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사람이 의지나 그런 게 있어야 찾아가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드림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겠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찾아온 거니까. 실용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주면, 왜냐하면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센터를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면 그래도 좋지 못한 애들이 아닐까라는 편협한 시선으로 제가 바라본 경험이 있어서. 막상 가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선생님들하고 친구들만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지 않나, 나쁜 인상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꿈드림센터 남성 김O)

“이런 상담을 게시판에다가 올리다가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사이트가 아니라 학교 게시판, 벽면에 붙는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면 나이가 어릴수록 조금 생각이 없고, 뭔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읽고 있으면 약간 놀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몇 번 목격도 했었거든요. 야 제 상담 받을려나 봐, 왜 너 정신병 있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놀림받는 경우도 있어서. 게시판을 하는 건 좋은데, 보아야 하겠조, 학교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나, 이런 식으로 몰래 볼 거 같은데. 거기보다도 사이트에 올리는 게 조금 더 좋은 거 같아요.”

(전문대학 여성 황OO)

“출산을 하고 났는데 주거지원이 너무 불안정하다거나 서류 상으로 통과가 안 돼서 얘기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거나 한 게 많으니까 그런 게 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애기 출산을 하면 누가 댔든 한 부모를 따지거나 미혼모를 따지거나 청소년을 따지거나가 아니라 진짜 부모가 되면 그 부모에 대한 지원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모 여성 김O)

4)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로 나에게 필요한 도움/서비스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도움/서비스는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로 나에게 필요한 도움/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도움과 서비스는 내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족환경 변화로 나에게(친구에게)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는 무엇인지,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둘째, 메타버스 서비스(아바타를 이용한 가상공간 서비스)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

스, 아바타를 이용한 가상공간 서비스를 들어보셨는지,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메타 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 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한 면담 결과를 응답자 전반, 생애주기별/기관유형별, 성별/가족내 지지체제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1)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

전반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 등을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각자가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족에게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가족에 대해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일단 저희 가족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이 함께하는 활동,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안OO)

“저희 가족한테 기대하는 거는 아빠 회사가 많이 바쁘세요. 좀 멀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를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지금보다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해요.”

(중등방과후아카데미 남성 전OO)

“가족들은 용돈도 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도 주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시고 저희를 잘 챙겨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항상.”

(중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그런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일을 최선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저를 위해 뭐 해주세요라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제가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거 같아요.”

(꿈드림센터 남성 김O)

“그런 건 딱히 없고요. 그냥 정부에서 지원이 많아지면 가족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서요.”

(청소년부모 여성 김O)

생애주기별로는 고등학생 이상 나이에서 가족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가족에 대해 서로 기대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 외에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성별과 가족 내 지지체제 유무 간 차이점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제가 열심히 하면 부모님께서 이것저것 사주실 거야 이런 거 있긴 한데, 기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대 자체를... 그렇게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꿈드림센터 남성 최OO)

“솔직히 독립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뭔가 저는 제 가족들이 솔직히 말하면 그런 기대 같은 거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사실 해서 딱히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많이 한 적은 없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최OO)

“기대하는 거... 평범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남들이 봤을 때 좀 어? 특이한데라는 생각이 안 들게 평범한 가정집의 분위기만 났으면 좋겠다.”
(전문대학 여성 최OO)

“바라는 거는 제가 아끼 다 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커서 네가 다 해라 이런 거, 남편한테도 나중에 네가 다 해라...”
(청소년부모 여성 이OO)

(2) 나/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서비스

전반적으로 나/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서비스에 대해 가족상담과 가족여행/프로그램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외에 부모역할교육,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학습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족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거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어요... 이외에 가족에게 가족끼리 딱 단둥이서 가보는 그런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오빠랑 저 아니면 엄마나 아빠 이런 식으로 사이가 더 좋아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랑 단둥이 여행을 가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일단 생각하기로는, 친구 부모님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부모님도 힘드시겠지만 일단 친구한테는 감정이랑 마음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위로나 고민 상담 같은 거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안OO)

“상담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일상생활을 그것도 정서적인 걸 진정시키고 조금 바뀌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나 상담 같은 거.”
(중등방과후아카데미 남성 황OO)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신 쪽 상담,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많이. 약간 심리적으로 저희 가족 전부 다, 저만 힘들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버지나 언니나 전부 다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김OO)

“마음은 굴뚝 같은데 소통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지금은 노력을 하시지만. 어른이지만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이랑 얘기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모르니까”
(꿈드림센터 여성 김O)

“가족한테는 그냥 가족들이랑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예전에 같이 가족들끼리 김장을 했었는데 요. 그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건 거의 진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치 만드는데 김장하는 거였는데 같이 김장하고 수육 먹을 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너무 그리워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꿈드림센터 여성 박OO)

“부모 역할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고 모르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모 여성 이OO)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 이상 나이에서 본인의 학업이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청소년부모의 경우 경제적 지원이나 자립 지원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가족 내 지지체제 유무에 따른 차이점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일단 그래도 그나마 현금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월세가 밀리거나 하는 때가 있으면 그땐 진짜 곤란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꿈드림센터 여성 박OO)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가족 여행이나 가족 식사 이런 게 되게, 생일이라도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전적 지원, 그런 복지 혜택과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행이나 음식이나 약간, 그런 가족끼리 어디 모임 갔을 때 그런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꿈드림센터 남성 최OO)

“약간 급식 지원(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주시는 돈으로 약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동생들은

한참 클 때라서 더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저를 위해서 받고 싶은 지원은 저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한부모 가정 그런 걸로 해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곧 그 기간이 끝나는데 그게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곧 있으면 제가 성인이다 보니까 학생에 비해서는 저소득층 성인이 받을 수 있는 건 학생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최OO)

“자립을 정확히 지원을 해주거나. 뭐 기초수급이 있지만 이것도 기초수급도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런 거에 기준점을 너무 많이 두고 그 안에서 또 나뉘고 나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애기 부모로서, 그거에 대한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청소년 부모는 아무래도 어린긴 하지만 같은 부모라고 해도 옛날에는 좀 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인식이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있어도 많이 확대되거나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데 많이 확대되면 좋겠어요.”
(청소년부모 여성 김O)

(3) 메타버스를 이용한 24시간 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전반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24시간 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나, 일부(약 6명 내외)는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용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서, 비대면이어서 자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도 되어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외톨이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반면 이용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대면상담이나 서비스에 비해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제페토라고 게임이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서비스가 제공되면) 들어가볼 생각이 있어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일단 그것도 만약에 하나의 게임이라 생각하면, 메타버스라는 걸 들어보기 전엔 메타버스 게임 같은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당시에도 되게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할 생각이 있어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안OO)

“궁금해서라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청소년 상담이나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중등방과후아카데미 남성 전OO)

“이제 현실에서 못해온 걸 가상에서 해보고 다른 사람과 친해져 보고(싶어서... 이용할 것 같아요)”
(중등방과후아카데미 남성 황OO)

“아무래도 그런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는 공간적 제약이나 시간적 제약도 없을 테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마음껏 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면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걸 이루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최OO)

“사실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을 때 제가 아까 굳이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아니면 조금 내성적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서비스를 받기 많이 주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가상 공간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제 동생을 보니까 또 밖에 잘 안 나가면서 이런 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밖에서 조금 주저하는 거를 이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면 나중에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밖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4년제 대학 여성 김OO)

“현실을 살아야 하는데 너무 좀 가상세계에서 도움을 받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4년제 대학 남성 황OO)

생애주기별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받는 데 참여야 하는 자기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등과 같이 현실적인 이유가 저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4년제 대학생 및 청소년 부모에서 이용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대면상담에 비해서 상담의 질이 떨어질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과 가족 내 지지체제 유무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제가 집을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집 안에 있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시간도 안 되기도 하고 동생들 학원 다니거나 이러면 제가 데리러 갔다 와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안 맞아요, 나가는 게. 그래서 그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제 자유시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꿈드림센터 여성 김OO)

“(학교에서 봐서 알고있고, 이용 의향이 있음) 왜냐하면 직접 오시거나 만나서 하면 너무 귀찮았거든요. 너무 귀찮았고 맨날 사진 찍어야 되고 뭘 남겨야 된다고 하시고”
(전문대학 여성 최OO)

“(이용의향 없음) 시간 나면 하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접 만나서 노는 게 그게 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좋아서, 그런 거 만든다면 이용은 하겠쬬. 그런데 그렇게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용은 하겠지만 그렇게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 할 것 같아요.”
(푸드림센터 여성 최OO)

“(이용의향 없음) 저는 상담을 일단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표정도 직접 볼 수 있고 말할 때 움직이는 거 그런 것도 파악하기 쉽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를 이용하면 그런 비언어적이라든가 행동 같은 걸 못 보니까 저는 메타버스는 좋은 지원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4년제 대학 여성 권OO)

“24시간이라고 해도, 애기들을 봐야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갈 거 같아요.”
(청소년부모 여성 김O)

5) 가족 지지의 유무/가족의 의미

가족 지지의 유무 / 가족의 의미는 가족 중 나를 응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가족 중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의 유무에 대한 의미는 가족구성원 내에서 나를 가장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어려울 때 응원(지지 체제)을 부모님(보호자)께 받고 있나요, 내가 어려울 때 응원(지지 체제)을 가족에게 받고 있나요, 가족 중에 1명이라도 나를 신뢰하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인가요, 가족 중에 1명이라도 나의 의식주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인가요를 질문하였다. 둘째, 나에게 가족의 의미는 나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가족 지지 체제의 유무/가족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족 지지 체제의 유무, 가족의 의미에 대한 면담 결과를 응답자 전반, 생애주기별/기관유형별, 성별/가족내 지지체제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다.

(1) 가족 지지의 유무

가족지지 체제에 대해 엄마라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일부 아빠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부모가 가족지지 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는 일부 형제자매나 친척, 조부모 등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으며, 청소년부모는 남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다. 생애주기별, 기관유형별, 성별, 가족 내 지지체제 유무간 차이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 중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은) 엄마요.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 주고 고민도 잘 들어주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줘 가지고 그래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가족 중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은) 아빠나 엄마라고 생각해요.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가장 친해서”
(중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엄마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제 얘기도 더 잘 들을 수 있고 솔직히 저를 저보다 잘 아는 게 엄마잖아요. 가끔 놀랄 때가 있거든요. 엄마가 너는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이럴 때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저도 몰랐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엄마가 알고 있으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 김OO)

“아빠인 거 같고... 사실 화를 낸 적이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아빠한테 어릴 적에 혼나더라도 뭔가 서당에서 훈장님이 혼내시는 느낌 알죠? 잘못했지? 너 잘못된 거야,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일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뭔가 폭발할 일이 없을 걸 아니까 조금 더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가. 그런 게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아빠가 살짝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이야기를 주도하세요.”
(전문대학 여성 황OO)

“아버지가 그런 거 같아요. 실제로 제가 뭐를 한다고 할 때 실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도 하셨고 평소에 통화를 해서 대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거 같아요. 나는 너를 지지한다. 너가 뭘 하든 지원하고 너의 서포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4년제 대학 남성 황OO)

(2) 가족의 의미

가족의 의미에 대해 가장 소중한 존재,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 없으면 안되는 존재, 든든한 내편 같은 존재 등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 지켜야 하는 존재, 마음만 나누면 되는 존재라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생애주기별, 기관유형별, 성별, 가족 내 지지체제 유무간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 하면 제 2의 내가 생각나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가족 하면, 뭔가 믿음 같은 게 떠올라요. 일단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키워주시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키우시고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경제 활동도 하시니까 그런 게 있는.”
(초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안OO)

“저에게 가족은 일단 착하고 좋고 가장 관계가 친근하고 화목하면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느낌.”
(중등방과후아카데미 남성 황OO)

“가족 하면 언제나 곁에 있어주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이 해결해 나갈려고 해주는 (튼튼한 내편같은 존재)인거 같아요.”
(중등방과후아카데미 여성 김OO)

“그냥 목숨이요. 그저 제 목숨이랑 똑같아요, 제 가족들은.”
(꿈드림센터 여성 박OO)

“가족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없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존재인 거 같아요.”
(4년제 대학 남성 황OO)

“지금 드는 생각의 가족은...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다 너무 약해요. 다 너무 약하고, 여동생 봐도 너무 여리고, 그래서 지켜줘야 되는”
(전문대학 여성 최OO)

“가족은 굳이 피나 같이 산다거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마음만 나누면 가족이 되는 거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 진짜 초중고 같이 다니고 되게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평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 가족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그 이야기를 해요, 너가 내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 그런 거 보면 굳이 피나 이런 거에는 딱히 얽매이지 않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입양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피나 이런 거에는 딱히 얽매이지 않는 거 같아요.”
(전문대학 남성 황OO)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가족을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조(정의)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또한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가족의 형태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의 속도가 급속화되고 있다.

특히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 2021년 1인가구 33.4%, 2인가구 28.3%로 2인이하 가구는 2021년 61.7%로(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9>)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었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 감소 뿐만 아니라 만혼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가족 개념도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비혼출산과 동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여성가족부, 2021e).

2021년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가족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고,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③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의 4개 영역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e:13).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청소년 개인의 삶이 차별 없이 존중 받고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가족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 지원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청소년 개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요구를 분석하여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면담조사결과,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학생을 위한 학교적응 지원 서비스 개발 필요, 둘째, 보호자의 이혼과 재혼 과정에서 양육권자가 변동되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고려, 셋째,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될 요소가 없는지 파악하여 개선, 넷째, 청소년부모는 복합적인 상황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중심의 지원체계 정비, 다섯째, 18세 미만 청소년의 지원 서비스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 여섯째, 가족상황 변화에 청소년의 발언권이 보장되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고려, 일곱째, 청소년 온라인 복지물 운영을 통해 청소년복지 플랫폼 구축 고려, 여덟째, 위클래스를 중심으로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기능과 역할 재정비, 아홉째, 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가동을 통한 개선 노력, 열 번째, 청소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홍보 필요, 열 한번째, 청소년 포괄 생활바우처 제도를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서비스 제공, 열두 번째, 지원서비스 제공의 누수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책임성 강화, 열세 번째, 가족형태 중심이 아닌 청소년 상황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필요하다.

표 IV-3. 면담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영역	어려움 및 요구사항	정책적 시사점
1. 가족 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 이혼과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부족 •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이나 건강 악화, 실직, 재혼, 가정폭력, 우울이나 무기력 증 같은 정신질환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몰라 어려움에 처함. •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정보 사각지대에 대부분 놓여 있는 경우임. • 보호자의 이혼과 재혼으로 청소년들의 보호자가 변동되는 과정이 발생할 경우 어려움에 처함. • 고등학생 이상에서는 자퇴, 가출, 임신과 출산 등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에 처함. • 가족 문제로 도움을 주는 멘토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또래 친구. • 위클래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많지만 가족문제를 털어 놓고 상담을 받기도 하지만 전문성이나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이용을 꺼리기도 함. • 자신의 문제 특히 가족관련한 문제를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어려움에	• 이사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서비스가 부재해 학교를 중심으로 이사로 인한 전학생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개발이 시급함. • 보호자의 이혼과 재혼으로 청소년들이 양육권자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끼게 되는 혼란스러움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전가족 중심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양한 지원(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각지대와 서비스가 청소년보다는 보호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중심의 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책이 모중심에서 부를 포함한 지원까지 확대가 필요함. • 의식주와 집안일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단순한 가사나 육아도우미 형태가 아닌 “가사보호자”, “육아보호자” 등의 명칭으로 당사자들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영역	어려움 및 요구사항	정책적 시사점
	처함. - 특히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는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가족 내 지지기반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가족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스스로 부인하거나 외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으로 개별화되는 어려움에 처함. - 가족상황의 변화나 구조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혼란과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지원되어야함.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들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대부분 가족 문제에 대해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 또래 멘토, 상호멘토의 역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청소년부모의 경우 육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방문형 육아 지원, 온-오프라인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 체계구축 필요. - 청소년부모의 경우 주거, 의료, 생활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룹으로 청소년부모를 위한 온라인 복지물을 제공해 복지포인트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
2. 대처가 어려웠던 이유	-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변화적응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 - 가족 상황의 변화는 청소년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이혼, 이사, 재혼, 갑작스런 사망이, 실직, 건강 상실 등일 경우 무력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경험하고 있음. - 친척들의 개입으로 청소년에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할을 강요당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가족문제를 알게 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의식주와 집안일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다자녀가정일 경우 첫째는 동생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압박을 느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함. -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원받기 위해 밝아야 하는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육아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	- 청소년들이 가족상황 변화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 필요. - 청소년들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개발 필요. - 다자녀가정일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심리지원과 함께 힐링 프로그램 등 별도의 지원 서비스 개발 필요. - 친인척의 개입이 과도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필요. - 비슷한 가족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의 자조모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함께 사례들을 축적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필요. -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 등의 간소화 및 컨설팅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상시 가동을 통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 보호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이 아닌 자녀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수준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3.	도움을 받거나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서비스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로 "청소년 복지물"을

영역	어려움 및 요구사항	정책적 시사점
제공받은 서비스	기관으로는 위클래스나 상담교사를 꼽았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1388 청소년 전화, 킹메이커 등이었음. - 알게 된 경로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 지인, 경찰 등이었음. -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 주변사람, 교사 등의 소개로 기관을 이용하지만 고등학생 이상에서는 본인이 검색을 통해 해당 기관을 직접 찾는 경우가 많았음. - 초·중·고의 경우 위클래스에 대한 신뢰가 높은 반면 학교밖청소년의 경우는 위클래스 이용시 보호자에게 상담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가족 환경으로 어려울 때 초기대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반면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전문적인 상담이나 해결하기 위한 조언 정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희망함. -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학교, 기관, 친구, 선배, 멘토, 정책지원 등) 인터넷으로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학교나 사회시스템에 기대가 크지 않은 편임. - 제공 받는 청소년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담/교육/학업 도움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지원받았던 서비스에 대해 특별히 불만족스러움은 없었으며,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대학 이상에서는 전문적 진료가 도움이 되었고, 학교밖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업도움, 청소년부모는 주거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령대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가 달랐음. - 대부분 가족문제 관련 어려움이 있을 때 초기대처가 중요하며, 초기대처가 제대로 될수록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촘촘하게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운영해 다양한 복지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필요. - 위클래스 이용이 가장 높은 것과 관련 정보들을 위클래스에서 접하는 경우가 많아 위클래스의 기능을 심리상담의 성격에서 청소년 중심의 복지서비스 정보제공과 복지 서비스 연계로 기능 전환이 필요함. - 상담은 지역의 상담자원들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바우처(우리 아이 심리 지원서비스)”제도를 활성화 하고, 추수 상담의 기능을 강화 하는 제도 개선 필요. - 특히 위클래스는 학교 내에 있어 교사와 보호자까지 연결되어 청소년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아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신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신이 많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 필요. - 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고, 상시 협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기능 추가 필요. - 청소년들의 상담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하고 누구까지 알릴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호자나 교사 중심이 아닌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초·중·고등, 고등학교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원받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데이터들을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 관리 필요. - 고등학교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정비. -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에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관련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지원 홍보자료들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으며, 학교 알리기 적극적 활용 필요. - 청소년 홍보를 위해서는 카카오톡 홍보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 홍보 필요(산부인과, 약국, 편의점, 학원, 분식점, PC방, 노래방, 병원, 카페 등 청소년

영역	어려움 및 요구사항	정책적 시사점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초기대처는 대체로 미흡했다고 평가함.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는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직업체험 등이 있으나 고등학생 이상에서는 추가적인 서비스 필요성에 부정적이었음. • 서비스에 대한 홍보방식으로는 유명인을 통한 광고보다는 SNS나 온라인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카카오톡 홍보를 선호함. • 일부는 홍보보다는 관련 자원시설이나 기관을 늘려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들은 경제적/의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남.	생활 밀착형 상점과 공간들에 관련한 정보제공, 모바일 게임 업체 및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마켓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포털 홍보 필요).
4.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도움/서비스	• 가족에게 기대하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임. • 고등학생 이상의 나이에서는 가족에 대해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으며, 독립해 살고 싶은 응답이 나옴. • 나/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가족상담, 가족여행, 가족프로그램 등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원을 원하고 있었음. • 고등학생 이상의 나이에서는 본인의 학업, 경제적 지원을 원하고 있음. • 청소년부모의 경우는 경제적, 자립 지원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았음. •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음. •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종류별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생계급여, 의료급여, 거주급여, 교육급여 등) • 메타버스를 이용한 24시간 청소년지원 서비스는 단순 호기심, 재미, 부담 없음,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없어 이용하겠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음. • 반면 대면 서비스나 대면상담은 비언어적인 행동까지 볼 수 있지만 메타버스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질적 문제가 있어 이용하지 않을 것임. •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서비스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을 연계해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 캠프, 가족 자유여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 바꾸치” 제도 마련 (초·중·고 교급별로 차별화하는 가족배우치제도 마련). • 가족봉사활동, 가족 취미 동아리활동 지원 등 일상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초등과 중등 청소년들은 돌봄을 중심으로 한 가족중심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반면 고등학생부터는 청소년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 • 청소년부모의 경우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지원형태인데, 부와 모를 중심으로 한 지원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함.

영역	어려움 및 요구사항	정책적 시사점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과 대면상담시 근거를 남기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음.	
5. 가족지지 /가족의 의미	• 가족 중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으로는 “엄마”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일부는 “아빠”라고 응답한 반면, 보호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는 형제자매, 친척, 조부모, 청소년 부부는 남편이라고 응답함. •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는 정서적 친밀감이 높거나 자신을 인정해 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 자신에게 객관적 조언과 지지의 말을 해주는 사람임. •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 나의 분신, 든든한 내 편 같은 긍정적인 의미와 지켜야 하는 존재, 마음만 나누면 되는 존재라는 책임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함. • 가족에 대한 개인의 희생이나 헌신, 구속에 근거한 가족주의에서 개인과 가족, 사회와 가족, 개인과 사회의 삼자적 관계로 생각하는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보육원생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입양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핏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타자에 대한 배려 정도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공존의 관계로 가족을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 가족중심 보다는 개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개인화 경향이 나타남.	• 엄마의 부재 상황 발생시 심리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엄마”로 집중되어 있는 지지자의 역할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사회 관계망 확대 정책이 필요함. • 가족의 의미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핏줄에 집착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견지하고 있어 가족 공동체 속에서 자기 역할과 목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가족 정책 필요. • 고등학생 이상은 가족 중심 보다는 개인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개인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비스도 개인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필요함. •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의존감과 독립을 저해할 수 있어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로 전환 필요.



제5장 정책방안

-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 2. 정책제언
- 3. 추진로드맵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이 연구에서 파악된 가족과 청소년지원의 핵심 사항은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소통이 가능한 접근방식과 지원방식으로 다가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법과 제도,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실행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조사가 근거를 제공하여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면담조사, 정책포럼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사에서 친부모, 친·외조부모, 친형제·자매, 새부모, 새형제·자매, 어머니의 남자친구, 아버지의 여자친구, 친척, 새할머니 등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응답으로는 친어머니(85.8%), 친아버지(83.2%), 친남자형제(47.0%), 친여자형제(46.7%), 친할머니(38.2%), 외할머니(35.5%), 친척(33.3%), 외할아버지(25.3%), 친할아버지(23.7%), 새아버지(2.5%), 어머니의 남자친구(1.5%), 새여자형제(1.2%), 새남자형제(1.2%), 새어머니(1.2%), 아버지의 여자친구(0.9%), 기타(배우자, 자녀, 시댁, 새할머니 등)(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청소년 가족의 구조와 부모 형태는 더욱 이질적이고 유동적이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미혼, 재혼, 한부모, 이혼, 동거, 동성 양육, 조부모와 동거 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청소년 가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면 청소년 양육, 돌봄, 지원

68) 이 장은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함.

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청소년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 또는 현재 동거인들의 사망,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건강 문제, 투옥 또는 가족구성원의 추방 등과 같은 가족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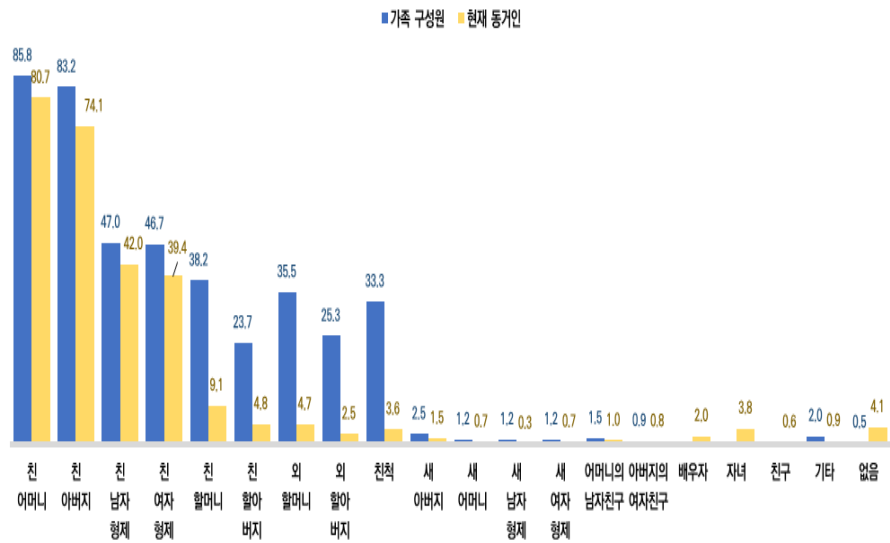


그림 V-1. 가족구성원 및 현재동거인 (N=2,042, 다중응답)

둘째, 현재의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가족형태를 경험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가구로 고정된 가족형태가 아니라 한 명의 청소년이 여러 형태의 가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 형태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사는 가족 뿐 아니라 이주배경 청소년,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청소년 1인 가구,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친구와 사는 가족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청소년기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형태 조사결과, 양부모가정(59.1%), 한부모가정(19.6%), 형제자매와 사는 가족(15.1%), 확대가족(12.5%), 청소년 부모(5.5%), 이주배경 청소년(5.0%), 조손가족(4.7%), 청소년 한부모(1.8%), 청소년 1인가구(1.4%),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1.4%), 친구와 사는 가족(0.7%), 기타(기숙사, 시택식구, 시설 등)(3.3%)순으로 나타났다<그림 V-2>.

많은 학자들이 미래의 커다란 변화 중에서 가족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가족형태, 가족의 기능, 가족의 관계, 가족구성원 역할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박복순 외, 2019a; 박종서 외, 2020; 송효진 외, 2021; 야마다 마사히로, 2019; Pearce et al., 2017). 1인가구와 가족규모축소, 가족 돌봄과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 약화, 가족응집력 약화, 부부관계 지속성 약화, 형제자매의 유대감 상실, 부모의 전반적 책임감 결여, 결혼과 출산 연기 또는 포기 증가, 가족 정서적 유대의 중요성 증대, 가족간 정서적 유대관계 약화 등으로 가족환경의 변화를 제시하였다(서용석 외, 2011: 9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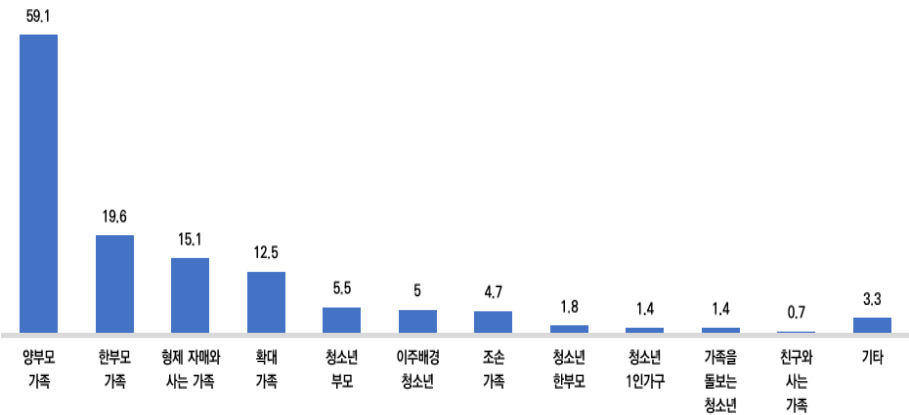


그림 V-2. 청소년기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형태 (N=2,042, 다중응답)

셋째, 청소년들은 가족문제로 고민이 있을 때 해결방법으로 친구에게 말하거나(45.7%),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42.7%)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많은 청소년들은 가족문제에 관하여 대처를 하지 못해 무기력하거나 외부와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심리정서적 상처, 불안, 외로움, 집안일, 불화, 건강, 무기력증, 주변의 편견과 낙인을 경험하며 가족문제는 개인적 일이라 생각하여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사실 자체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문제로 고민시 대처 방안으로 무기력증, 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 유형에 대한 조사결과, 행복도별 차이가 가족지지(정서+의식주) 기반별, 경제수준별, 성별, 연령 학교급별, 학업수준별 차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복도가 낮을 수록 무기력증과 외부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을 가족환경 변화로 고민할 때 대처방안으

로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지 기반’이 평균이상과 평균이하 일 때 대처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28.0% vs. 58.3%), 외부와 단절한다(10.7% vs. 27.7%), 스스로 자해한다(4.4% vs. 14.6%), 이상한 행동을 한다(1.9 vs. 5.1%)로 약 2-3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타났다.

‘행복도’가 상과 하 일 때, 대처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31.1% vs. 76.6%), 외부와 단절한다(12.4% vs. 36.8%), 스스로 자해한다(4.7% vs. 33.7%), 이상한 행동을 한다(2.4 vs. 7.8%)로 약 3-7배 이상의 큰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V-3>.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이는 정책이 핵심적인 사항이며 청소년을 지지해주고 소통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의 청소년지원방식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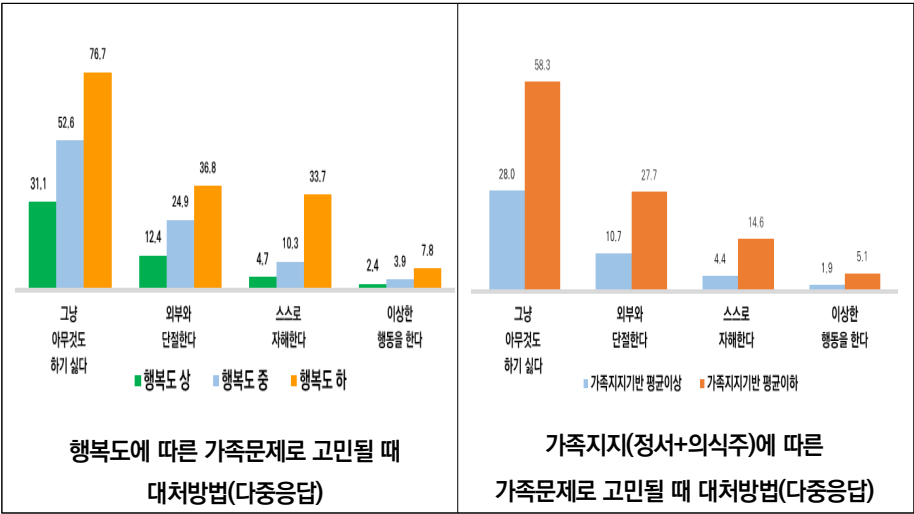


그림 V-3. 행복도와 가족지지에 따른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방법 (N=2,042)

넷째, 청소년기 가족환경 변화의 사건과 경험을 살펴보면, 가족지지 기반이 낮을수록 정신질환, 이혼, 교통사고, 건강악화, 사망, 가출, 폭행, 재혼, 실직, 알코올중독, 장애, 자살, 빚독촉, 유학, 타지역파견근로, 시설보호, 교도소수감 등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V-4>. 본 조사결과, 이혼(69.0%), 입원(31.1%), 정신질환(21.0%), 이혼(18.4%), 교통사고(13.6%), 건강악화(12.4%), 사망(11.6%), 가출(9.1%), 폭행(7.0%), 재혼(4.7%), 알코올중

독(4.4%), 실직(4.3%), 장애(4.2%), 자살(2.9%), 빗독촉(2.7%), 유학(2.6%), 타지역파견근로(2.0%), 시설보호(1.9%), 교도소수감(1.4%), 이민(0.8%), 해외취업(0.7%), 추방(0.5%), 기타(부부싸움, 자살기도, 사기 등)(6.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가족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지지 기반(정서+의식주)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가족환경의 다양한 사건 및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사와 입원 등 일상적 생활 사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정신질환, 이혼, 가출, 폭행, 재혼, 알코올중독, 자살, 빗독촉 등에서 비교적 차이가 나타났다.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이용경험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과 인지가 부족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초기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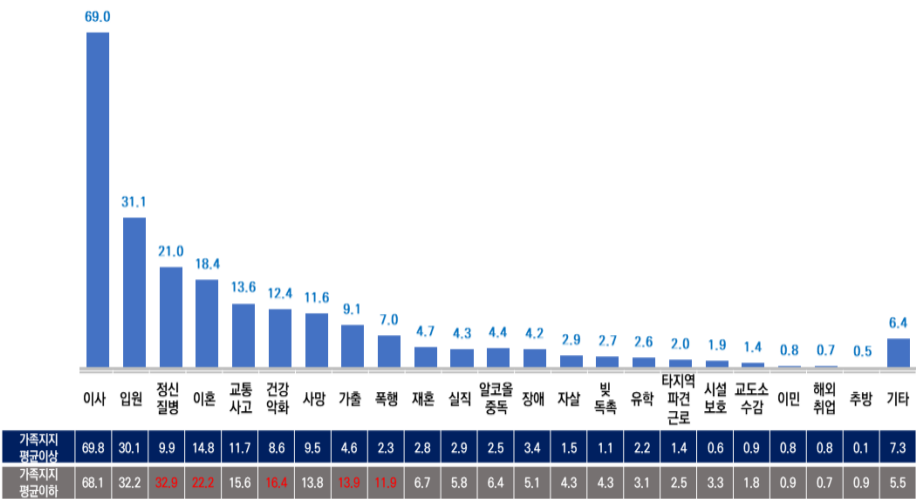


그림 V-4. 청소년기의 가족환경 변화의 사건과 경험 (다중응답)

요컨대, 앞으로의 가족 정책은 가족 단위 정책에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의미와 요구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형태가 다양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의 가족과 가정이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특성이 있으며, 가족 형태가 과거의 영구적 가족구조와 이상적 가족구조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가족형태의 청소년이든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족난민(아마다 마사히로, 2019)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얻게 될 수도 있는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지금까지 청소년을 과거의 가족구조 속에서만 바라보고 정책적 지원을 해왔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족구조 형태와 청소년의 상황이 유동적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 청소년 개별적 지원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어떠한 가족 형태도 소외와 낙인, 비난의 소지를 없애는 캠페인이 정책적 지원의 첫출발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족난민 사각지대 청소년들이 늘어가도 발굴 자체도 어렵고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도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 1인가구, 청소년 1세대 가구, 청소년 부모가구 등 비전형적 생애경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습권이나 노동권, 사회권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이행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생애과정의 비전형적 형태를 배제하지 않는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2. 정책방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면담조사, 정책포럼 등의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기의 가족변화 대응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가족단위 정책지원에서 청소년 개별적 지원, 가족내 어려움 대처에 신속한 발견 및 대처, 생애주기적 초,중,고,대 특성에 따른 지원, 법제도 기반의 3가지 영역에서 6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방향	청소년기의 가족변화 대응력 강화		
정책 과제	가족단위 정책지원 에서 청소년 개별적 지원	(1) 청소년의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편	- (가칭)예방작·회복적 보호지원 신청대행 및 현장연결 실무자의 인력배치 - 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 재편
		(2) 가족환경 변화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로 지원 내용 재편	- 가족내 갈등해결 사회프로그램을 재편 - 청소년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재편 - 이사, 재혼과 이혼 가정의 적응 서비스 개발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지원	(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현장연결을 주도하는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	- 상황별 대처 가능한 전문기관 연결 및 실행을 위한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 - 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4) 초기대처를 위한 관련 기관담당자의 직무재편	- 위클래스, 방카, 상담센터 등의 기능을 상담 중심에서 청소년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서비스 실행연결로 직무 재편 - 가족 내의 성인과 청소년관계에서 청소년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지원하는 초기대처 서비스개발
	발굴-과정-종결까지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지원	(5) 청소년기 연령에 따른 특성 서비스로 재편	-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로 재편 - 생애주기별 연속성 위한 부처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절적 서비스 지원체계 연결
		(6) 24시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재편	- 오프라인과 연결된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개발 및 구축운영 - 가족지지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의 접근 친화적 시스템 운영

법·제도 기반⁶⁹⁾

- 가족정책의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다양성 정책지원 근거 강화
-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법제마련 (가칭) 생활동반자법 제정

그림 V-5. 본 연구의 정책방향 및 과제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69) 법제도 기반은 송효진 외(2021).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p.342.을 참고함.

1) 가족단위 정책지원에서 청소년 개별적 지원

(1) 청소년이 서비스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편

정책과제1. 청소년들의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편

- 1) “(가칭)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대행 및 현장연결 실무자” 인력배치
 - 2) 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 재편
-

가. 필요성 및 목적

개인화시대, 사회서비스의 개인화가 요구되며 기존의 가족구조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있는 자격기반을 개인 단위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송효진 외, 2021). 또한 세대 간 위계구조 없는 평등한 가족관계 구현을 위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욕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 측면에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김영란 외, 2021b; 송효진 외, 2021).

청소년 개별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서 지원받음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면 보호자로부터 독립한 1인가구 청소년, 파견근로나 야간근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직접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청소년들도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족형태 중심이 아닌 청소년 상황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보호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이 아닌 자녀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2022년부터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자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 중에는 상기 기술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제도 활용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허민숙, 2021a). 그동안 많은 법과 제도,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정보접근, 인지, 신청서 작성 등에서 문턱이 너무 높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현장 청소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실행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이 서비스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편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면담조사 결과, 가족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조차 못 했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의 경험,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방법에 있어서의 복잡성과 어려움, 도움의 피드백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가족환경 변화 보고서입니다.

“사실 (가족)상담을 신청한다고 해도 어디서 신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뒤죽박죽....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조차 못 했으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 같아요.”
(전문대학 여성 최OO)

“너무 복잡해서 저희는 오히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신청 방법. OO에 전화를 해봐도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는 식이고...”
(청소년부모 여성 김O)

“기초수급이라는 걸 알았으면 기초수급 신청을 빨리 해서 빨리 선정이 돼서 애기들 초음파나 이런 걸 많이 봤을 텐데...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러지 못했던 게.”
(청소년부모 여성 김O)

설문조사결과, 지역사회로부터 희망하는 서비스지원방식으로 돈으로 지원, 물품지원, 일상적서비스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지지기반이 낮을수록(12.2% VS. 20.7%), 연령이 높을수록(초등 10.5% VS. 청소년부모22.5%), 경제형편이 어려울수록(12.6% VS. 24.9%), 학업수준이 낮고(13.8% VS. 21.8%) 행복도가 낮을수록(12.9% VS. 29.5%)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청소년 지원 서비스’ 방식을 약 2배 정도 더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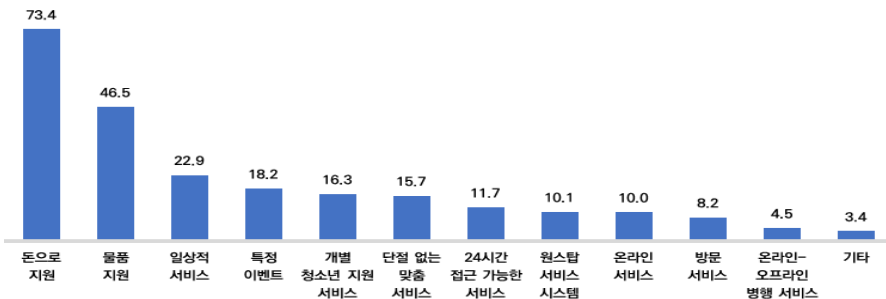


그림 V-6. 지역사회로부터 받고 싶은 서비스 지원 방식

다. 추진내용

가족단위 정책지원에서 청소년 개별적 지원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권리와 요구에 기반한 청소년 개인중심의 요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에 “(가칭)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 및 현장 연계 전문가” 인력을 배치한다. 둘째, 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을 재편한다. 셋째, 가족환경 변화로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가족환경 변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특별지원 신청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실무자 연수를 실시한다. 다섯째, 가족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가정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한다. 여섯째, ‘긴급복지지원제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22). 지원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될 요소가 없는지 파악하여 개선한다. 일곱째, 청소년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서 지원받음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라. 관련 법·제도 개선 및 보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청소년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이를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육,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신청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면담과 설문 조사결과와 같이 신청 절차 자체를 매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청의사를 밝히면 신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초반 신청 절차부터 선정, 현장연계 지원받는 것까지를 책임지

는 현장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신청서비스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청소년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에 “(가칭)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 및 현장 연계 전문가” 인력이 명시가 필요하다.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9. 8. 2.>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제정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교 또는 직장명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구분	신상 []	연장 []	
	사태주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특별 자 처 서 장 · 특별 자 처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접수서류

청소년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동의서(보호자 또는 학교가 같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함)

1부

접수료

없음

신 청 안 내

1. 대상연령 9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

2. 신청기간

1) 예방·보호를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조사 → 심의 → 적합 → 지원 → 종료

신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24mm 52mm 86mm)정기복합용종

청소년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 : 위기상황(사건·사고) + 소득·재산(사후확인)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강도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기준 245만원/년,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 기준 196만원/년))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60만원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해당내용 :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08만원(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용)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	59만원 이내(4인 기준/월,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34만원 이내(4인 기준/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교육청고수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60만원	1회
장애통합지원	75만원	1회
연료비지원	89만원 이내(월, 10~3월)	최대 6개월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신청방법 :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안내

그림 V-7. 청소년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서 및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안내서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2). 긴급복지지원제도. http://www.mohw.go.kr/issue/popup/policy_09.html.

2) 가족환경 변화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로 지원내용 재편

- 정책과제2. 가족환경 변화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로 지원내용 재편**
- 1) 가족내 갈등해결 사회프로그램을 재편 및 강화한다.
 - 2) 청소년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재편 및 강화한다.
 - 3) 이사, 재혼과 이혼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적응 서비스를 개발한다.

가. 필요성 및 목적

가족환경 배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이 마치 단일집단인 것처럼 인식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과잉지원이 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양계민 외, 2021).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시기 경험하는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함이 확인되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청소년시기 부터 동일한 가족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사에서 친부모, 친·외조부모, 친형제·자매, 새부모, 새형제·자매, 어머니의 남자친구, 아버지의 여자친구, 친척, 새할머니 등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청소년 가족의 구조와 부모 형태는 더욱 이질적이고 유동적이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미혼, 재혼, 한부모, 이혼, 동거, 동성 양육, 조부모와 동거 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해외사례로서 아동청소년 가족서비스는 부모 가족들과 분리되기 전에 사전 예방으로 적극적으로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 가는 일을 예방하는 탈시설화 캠페인이 범유럽에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가족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보호시설에 배치되는 아동이 줄어들고 가족 기반 위탁 제공이 증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17).

현재 권리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가족문제 대처에서는 무색한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은 가족문제에 관하여 더욱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무력감, 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고통을 떠안고 있다. 가족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책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행복도가 높은 청소년은 가족지지가 부족하더라도 가족문제 어려움 대처방법에서 무기력증, 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율이 약3-7배 낮게 나타났다(표Ⅲ-14). 이는 가정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자존감 향상, 인정, 소통 등 아동·청소년·청년들의 실질적 행복 체감도를 제고하는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나. 추진근거

면담조사결과,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과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족상담, 가족여행, 가족프로그램 등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결과, 가족문제로 고민시 대처 방안으로 무기력증, 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에 대한 조사결과, 행복도별 차이가 가족지지(정서·의식주) 기반별, 경제수준별, 성별, 연령 학교급별, 학업수준별 차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복도가 낮을수록 무기력증과 외부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을 가족환경 변화로 고민할 때 대처방안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지지 기반’이 평균이상과 평균이하 일 때 대처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싫다(28.0% VS. 58.3%), 외부와 단절한다(10.7% VS. 27.7%), 스스로 자해한다(4.4% VS. 14.6%), 이상한 행동을 한다(1.9 VS. 5.1%)로 약2-3배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

‘행복도’가 상과 하 일 때, 대처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싫다(31.1% VS. 76.6%), 외부와 단절한다(12.4% VS. 36.8%), 스스로 자해한다(4.7% VS. 33.7%), 이상한 행동을 한다(2.4 VS. 7.8%)로 약3-7배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냈다<표 III-12><그림 V-3>.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이는 정책이 핵심적인 사항이며 청소년을 지지해주고 소통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의 청소년지원방식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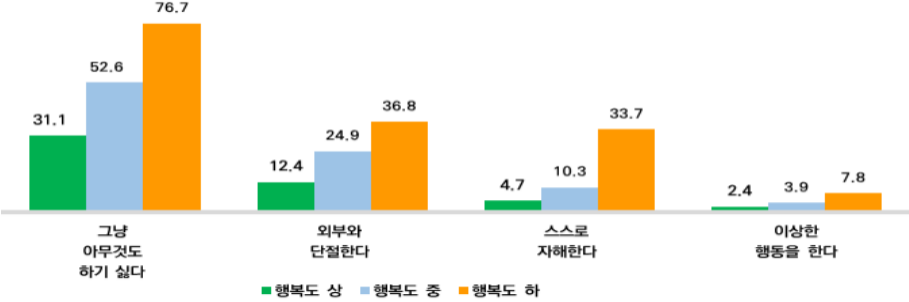


그림 V-8. 행복도에 따른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방법 (다중응답)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심리적 상처가 크고 불안, 외로움 등 정서적인 불안이 크게 나타났다. 청소년서비스에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청소년을 현장에서 대면하는 담당자에게 실무연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V-9.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 (다중응답)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이 원하는 가족기능은 경제적지원, 가족돌봄, 정서적유대, 공동주거 및 생계공유 보다도 인성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추후 의견조사결과, 성인과 청소년관계에서 가정이든 학교, 지역사회이든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의와 존중해주는 관계를 가장 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환영해주는 서비스로 재편해서 자존감을 향상하며 행정적 신청이나 문의시에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정보제공과 현장까지 동행하는 맞춤형 원스탑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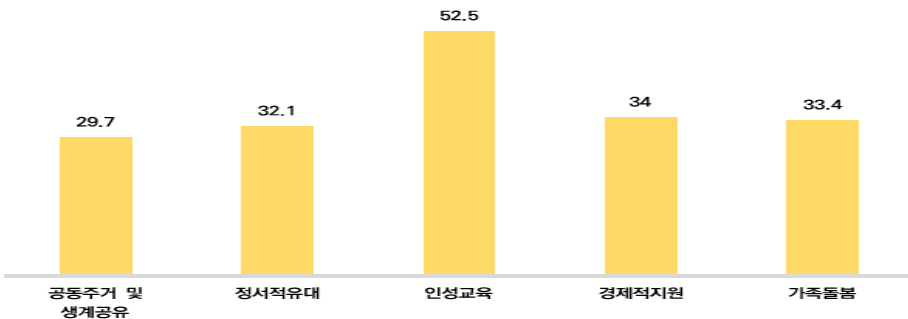


그림 V-10. 가족기능(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매우 그렇다’의 비율

다. 추진내용

가족환경 변화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지원내용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가족내 갈등해결 사회프로그램을 재편 및 강화한다. 둘째, 청소년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재편 및 강화한다. 셋째, 이사, 재혼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학교 등 적응 서비스를 개발한다. 넷째, 적극적으로 부모와 가족지원 서비스(교육, 건강, 사회안전망 등)를 강화한다. 다섯째,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환영해주는 서비스로 재편해서 자존감을 향상한다. 여섯째, 서비스 개편을 위해 청소년을 현장에서 대면하는 전문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3)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지원

(1)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현장연결을 주도하는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

정책과제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현장연결을 주도하는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

- 1) 상황별 대처 가능한 전문기관 연결 및 실행을 위한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 2) 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

가. 필요성 및 목적

가족 형태중심에서 상황별로 대처 가능한 전문기관 연결 및 실행조치를 위한 중추지원 조직으로 재편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마련되었어도 분절적인 사업체계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이러한 현장의 사업과 기관을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 연결하고 실행 추진을 지원하는 중추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중추지원조직은 각 현장의 사업과 기관에 대한 정보의 자료를 수집해서 최신 정보를 조사·연구·구축하고 공유하며, 유관기관 뿐 아니라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결을 지원 및 동행, 대행하고 후속 조치까지 할 수 있는 정보구축 및 실행 조직이어야 한다(임지연, 황세영, 김도영, 2019). 관리 입장에서의 통합지원체계는 선정, 심의 중심으로 해서는 경제수준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 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추지원조직으로의 역할 재편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청소년기의 가족환경 변화의 사건과 경험을 살펴보면, 가족지지 기반이 낮을수록 정신 질병, 이혼, 교통사고, 건강악화, 사망, 가출, 폭행, 재혼, 실직, 알코올중독, 장애, 자살, 빗독촉, 유학, 타지역파견근로, 시설보호, 교도소수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혼(69.0%), 입원(31.1%), 정신질병(21.0%), 이혼(18.4%), 교통사고(13.6%), 건강악화(12.4%), 사망(11.6%), 가출(9.1%), 폭행(7.0%), 재혼(4.7%), 알코올중독(4.4%), 실직(4.3%), 장애(4.2%), 자살(2.9%), 빗독촉(2.7%), 유학(2.6%), 타지역파견근로(2.0%), 시설보호(1.9%), 교도소수감(1.4%), 이민(0.8%), 해외취업(0.7%), 추방(0.5%), 기타(부부싸움, 자살기도, 사기 등)(6.4%)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12, 그림 V-4).

또한, 가족지지 기반(정서+의식주)이 낮은 집단에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가족환경의 다양한 사건 및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사와 입원 등 일상적 생활 사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정신질병, 이혼, 가출, 폭행, 재혼, 알코올중독, 자살, 빗독촉 등에서 비교적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에 제시된 자료는 영국의 아동보호절차 사례는 초기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어디로 연결시키는지 과정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Hotchkiss, 2017). 영국의 전문대학이 중추지원역할을 하면서 초기 아동청소년의 가정 내 어려움을 발굴하고, 정보를 수집, 보고하고 기관간 연락처를 참고해서 관련 전문기관에 추가조치를 실행하고 필요시 관련전문가와 후속조치까지 한다. 초기 발굴에서 현장 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실행을 지원하는 중추지원조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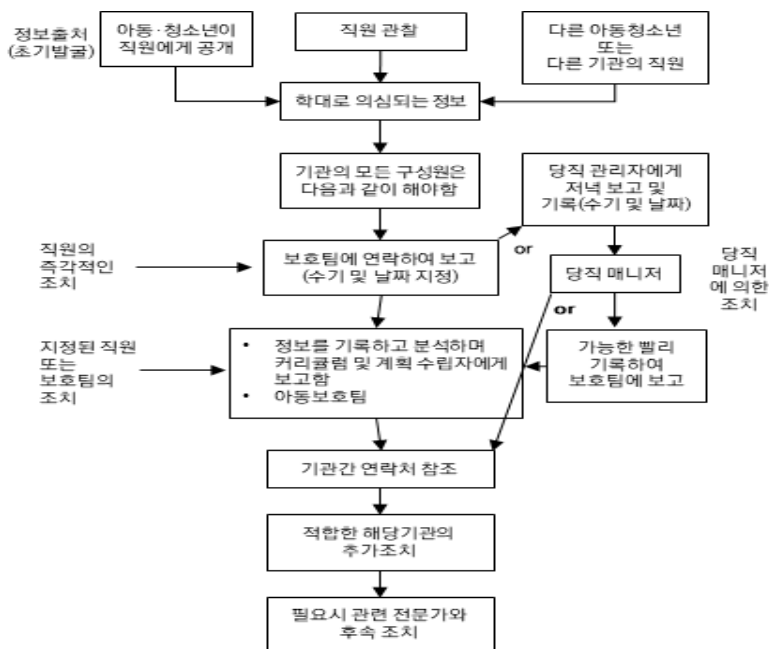


그림 V-11. 아동보호절차

(초기발굴-초기대응-연계-후속 조치까지 중추지원조직 역할 사례)

* 출처: Hotchkiss, G.(2017). Child Safeguarding Procedure: Procedure and Guidance for Reporting Allegations of Child Abuse and Related Risk Assessment. UK: West Lothian College. p. 3.

다. 추진내용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현장 연결을 주도하는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이 필요하다. 첫째, 상황별 대처 가능한 전문기관 연결 및 실행조치를 위한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셋째, 중앙 및 지역 차원의 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중추지원조직(컨트롤타워)로 기능하고 부처간 관련 사업이 분절되지 않도록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이 필요하다.

라. 법·제도 개선 및 보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1.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정보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
3.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
4.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 6-1. 제18조의 2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 (신설제안)
7.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
8.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정보
9.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정보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
11.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
1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관련 정보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
1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 청소년복지 지원법(2022)에서는 제12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가정밖청소년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지원센터, 인터넷게임 중독 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를 이용, 제공, 연계할 수 있다.

=> 제12조의2①을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②을 --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의 6. 제18조(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18조의2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에 관한 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초기대처를 위한 관련 기관담당자의 직무 재편

정책과제4. 초기대처 위한 관련 기관담당자의 직무재편

- 1) 위클래스, 방카, 상담센터 등의 기능을 상담 중심에서 청소년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서비스 실행연결로 직무 재편이 필요하다.
- 2) 가족공동체 내의 성인과 청소년 관계에서 청소년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기대처 서비스를 개발한다.

가.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은 가족환경 어려움을 먼저 타인에게 말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기에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초기대처가 안되며 이후에는 무력감, 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초기대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초기발견은 아동청소년이 직원에게 공개하거나, 기관 담당자가 관찰하거나, 다른 아동청소년 또는 기관 담당자로부터 알게 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1차 접촉자가 학교 선생님이요 지역 서비스기관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호 긴밀한 협력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나 지역에 포스터나 SNS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서비스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안내가 초기대처에 핵심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나. 추진근거

면담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가족환경 변화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 전반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 가족문제에 대한 어려움으로 심리 정서적 상처, 불안, 외로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표 III-13>,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방법이 무력감, 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 등 심각한 대처방법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표 III-14>. 면담조사결과에서는 가족 환경으로 어려울 때 초기대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청소년 상황과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관과 학교가 상담중심에서 정서적 지지와 정보제공 및 전문기관 연결 등의 실질적 조치까지 연결해주는 역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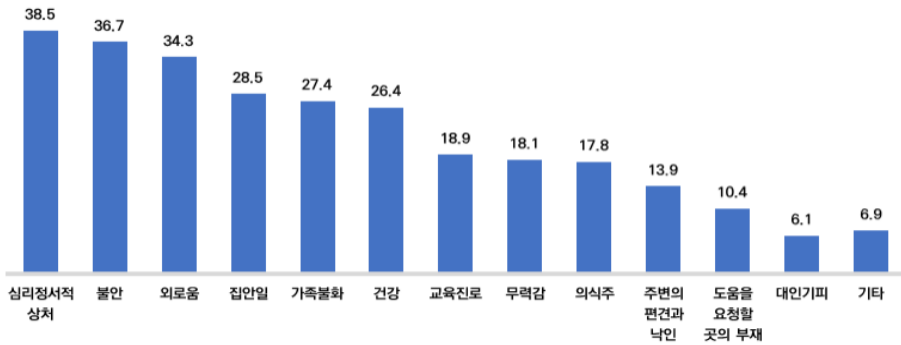


그림 V-12.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 (다중응답)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와 이용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이용경험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이하게도 잘 알지 못하는데 활용은 하고 있다는 뜻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기관들이 정보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과 인지가 부족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초기대처가 가능할 것임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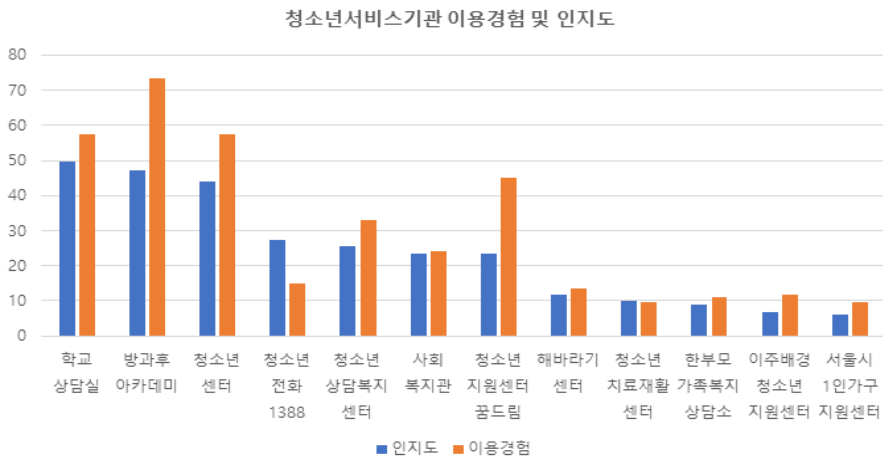


그림 V-13. 청소년 서비스 기관 인지도 및 이용 경험(%)

다. 추진내용

초기대처를 위한 관련 기관담당자의 직무재편이 필요하다.

첫째, 위클래스, 방카, 상담센터 등의 기능을 상담 중심에서 청소년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서비스 실행연결로 직무 재편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공동체 내의 성인과 청소년 관계에서 청소년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기대처 서비스를 개발한다. 셋째, 청소년 서비스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친화적으로 홍보한다.

위클래스의 이용율이 가장 높고, 지원서비스 관련 정보도 위클래스에서 접하는 경우가 많아 위클래스의 기능을 심리상담 중심에서 청소년 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지원 서비스 연계로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 상담은 지역의 상담자원들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바우처(우리 아이 심리 지원서비스)”제도를 활성화하고, 추후 상담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상시 협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기능 추가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과 상담 등 비밀유지에 대한 초기대처를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도 교사, 지도사, 부모 등 관련자의 전문적인 실무 연수교육이 필요하다. 초기대처를 위한 청소년 홍보를 위해서는 카카오톡 홍보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며, 나아가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 홍보를 위해 산부인과, 약국, 편의점, 학원, 분식점, PC방, 노래방, 병원, 카페 등 청소년 생활 밀착형 상점과 공간들에 관련한 정보제공, 모바일 게임 업체 및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마켓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 포털 등을 홍보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발굴-과정-종결까지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지원

(1) 청소년기 연령에 따른 특성 서비스로 재편

정책과제5. 청소년기 연령에 따른 특성 서비스로 재편

- 1) 초중고대 연령별 가족환경의 경험와 대처방법이 다름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로 재편한다.
 - 2)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연속성 있는 정책으로 부처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절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연결한다.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이 처음에 접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간 서비스가 연속성 있게 연계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연령에 따른 초,중,고,대 교급별로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다. 특히 가족환경 변화는 금방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서 초등생 때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연령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갈 때는 개인정보, 학교, 담당지역 등을 이유로 서비스 연결이 제한되어 단절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고 필요한 사업, 서비스, 기관을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한적이다. 아직 유관기관 연계 수준이며 증추적으로 모든 기관의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공개해주고 적합한 기관으로 연결하는 콘트롤 역할의 실행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별기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최초로 청소년이 접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사회 기관 간 서비스가 연속성 있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돌봄사업, 보호사업, 정신건강사업 등에 있어 부처별, 대상 연령별 사업으로 분절되지 않고, 청소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김지연 외, 2015; 서상희, 2020).

나. 추진근거

면담조사결과, 가정적 어려움을 청소년들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며, 가족내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의 인식이 없고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가족이라고 편견을 가질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는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집안일과 형제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고등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대학생은 전문 상담진료를 원하며, 학교밖청소년은 점정고시 준비에, 청소년부모는 서비스지원 신청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가족내 고민이 있을 때 대처방법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않다, 외부와 단절한다, 스스로 자해한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응답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대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부모로 갈수록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의 경우 ‘친구에게 말해 해결한다’(남성 34.8% VS. 여성 52.0%),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남성 33.7% VS. 여성 47.9%)와 ‘스스로

자해한다’(남성 4.7% VS. 여성 12.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와 청소년부모 집단의 50% 이상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를 높이 선택하였고(각각 54.0%, 56.0%), 청소년부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스스로 자해한다’가 20.0%로 비교적 높이 나타났다<표 III-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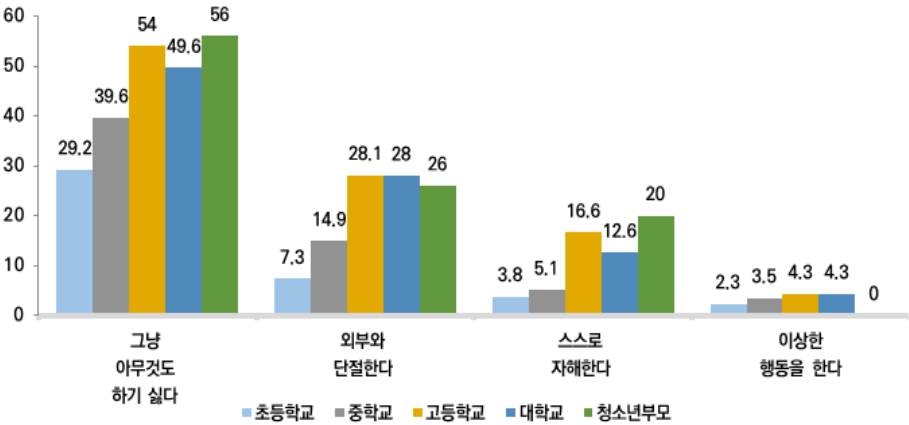


그림 V-14. 연령별 학교급에 따른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대처방법 (다중응답)

위기청소년 지원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사업, 교육부 위클래스사업,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사업과 취약위기가족사업의 대상이 모두 중첩되고 사업이 분절되어 서비스가 연속성있게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김우림, 2021; 박세경 외, 2021)<그림 II-1 참조, p. 56>.

다. 추진내용

청소년기 연령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로 재편한다.
 첫째, 초중고대 연령별 가족환경의 경험과 대처방법이 다름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로 재편한다. 둘째,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연속성 있는 정책으로 부처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절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연결한다. 셋째,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특성과 생애주기에 적합한 1:1 사례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게 재편한다. 넷째, 가족형태 중심이 아닌 청소년 상황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상황은 단순한 몇 가지 사례의 가족형태로 파악을 할 수 없으며, 상황별로 다문화 재혼가정, 여러 번의 재혼가정, 사실혼 가정(동거가족), 18세 미만 1인가족, 장애인이 있는 가족, 입양가족, 보호자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족, 정신질환자가 있는 가족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형태로 지원되는 복지서비스는 청소년들을 돌봄의 대상자로만 만들 뿐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지원 방식이며, 제3의 다른 방법을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지원 서비스 방식은 청소년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청소년 스스로가 요구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가족환경 상황에 집중한 맞춤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기존의 지원 방식에 대한 점검과 개선점들을 찾아내고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금을 청소년포괄복지지원금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개개인의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내용으로 소규모화, 1:1 개별 서비스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 24시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재편

정책과제6. 24시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재편

- 1) 오프라인과 연결된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개발 및 구축운영한다.
- 2) 가족지지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의 접근 친화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가. 필요성 및 목적

코비드와 함께 온라인 수업의 확대와 메타버스의 교육 활용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메타버스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메타버스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메타버스의 특이·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 개발단계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능동적 학습과 사회적 실재감을 기반으로 활용이 지속가능한 상담·활동·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행사 이벤트를 위한 지속가능하지 않은 메타버스 플랫폼과 차별되는 전문적 질을 담보한 메타버스 학습플랫폼을 구축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등의 철저한 설계 개발과 사전 준비를 통해 효과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면담조사결과, 메타버스를 이용한 24시간 청소년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메타버스의 필요성과 사용 의향에 대해 연령별 학교급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급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필요성과 사용 의향성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급, 고등·대학교급으로 나타났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하였던 초등학생들은 디지털 온라인 알파세대로서 메타버스 지원방식에 중고대학 연령보다 요구사항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복도가 높거나 낮을 때 메타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수준과 학업수준이 높거나 낮을 때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족지지기반이 높은 집단에서 필요성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지원방식을 필요로 하고 사용할 긍정적 의향이 과반수가 넘게 나타났다(〈표 III-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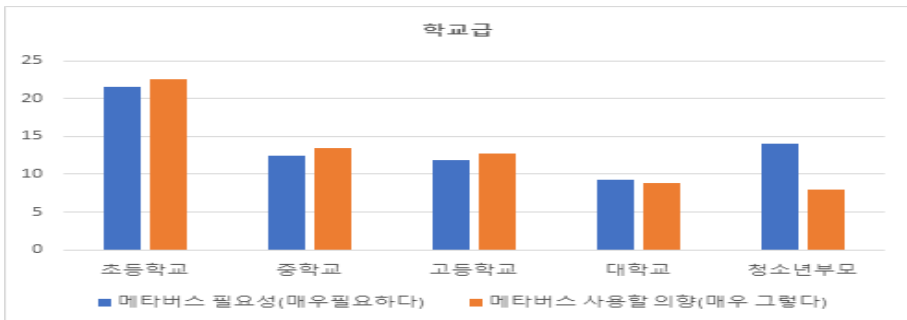


그림 V-15. 학교급-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방식 필요성 및 활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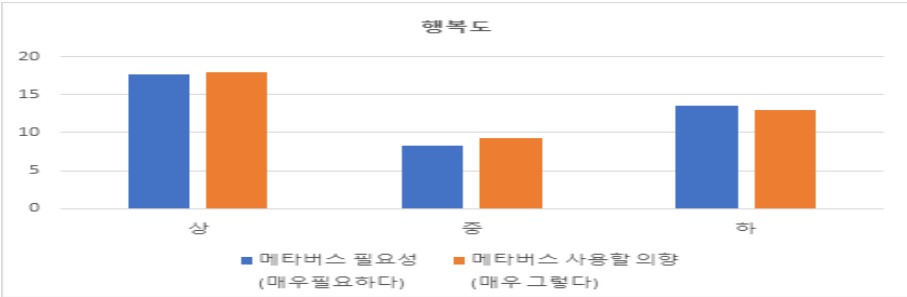


그림 V-16. 행복도 -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 지원방식 필요성 및 활용 의향

다. 추진내용

24시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재편이 필요하다.

첫째, 오프라인과 연결된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플랫폼 설계개발 및 구축·운영한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중추지원조직을 일부 담당할 수 있다.

둘째, 가족지지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의 접근 친화적 시스템을 운영한다. 가족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이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메타버스의 활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조심스럽게’는 메타버스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교육적으로 치밀한 사전 설계와 준비가 필요하며,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하드웨어와 인터넷 연결 등의 이유로 특정 집단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등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이 많이 존재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지원방식은 시간적 공간적 성격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24시간 365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실제 구축사례로서 메타버스 선거교육 플랫폼 설계개발 및 구축운영 효과성 연구사례,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를 위한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구축 및 효과성 연구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육플랫폼으로 콘텐츠의 질이 유익하고 재미가 있어 학교에서 능동적 학습 수업 사례가 있다.

가족환경 다변화와 관련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습을 통한 놀이·상담·활동·교육 플랫폼으로 구축하여서, 중추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서 현실의 서비스기관의 역할을 지원하는 형태의 종합적인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플랫폼을 제안한다.



그림 V-17. 메타버스 선거교육 플랫폼 사례

* 출처: 임지연(2022).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활성화: 메타버스 선거랜드 설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프로그램

교육과정 속 다양한 가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세요
OX퀴즈	다양하고 유익한 OX 퀴즈 풀어보세요
십자말놀이	가로 5개, 세로 5개의 정답을 체스판에서 찾아보세요
방탈출미션	힌트를 참고해서 5문제를 풀고 방을 탈출하세요
전시 마당	카드뉴스, 전시작품, 캘리그래피 등을 보러오세요
라운지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춤추며 인증샷을 찍어보세요
숨은 그림찾기	맵 곳곳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어요
교도소 접견 체험관	가족 친화적 교도소 접견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자랑 게시판	방탈출 / OX퀴즈 성공자랑 게시판에 도전하세요
상담실	심리테스트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어요

🎵 [다양한가족과 수용자자녀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https://bit.ly/seum-on> 🎵

그림 V-18. 메타버스 다양한 가족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및 중추지원조직 역할 사례

* 출처: 임지연, 최려나, 문세진(2022).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연구. 세움 아동복지 실천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추진로드맵

표 V-1. 추진로드맵 : 청소년기의 가족변화 대응 정책과제

영역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추진단계 ⁷⁰⁾	추진체계 ⁷¹⁾
가족단위 정책지원에서 청소년 개별지원	1. 청소년의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편 1) “(가칭)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대행 및 현장연결 실무자” 인력배치 2) 청소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 재편	단기과제 (1-2년)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2. 가족환경 변화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로 지원내용 재편 1) 가족내 갈등해결 사회프로그램을 재편 2) 청소년행복증진 프로그램을 재편 3) 이사, 재혼과 이혼 가정의 청소년 적응 서비스 개발		
가족환경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지원	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현장연결을 주도하는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 1) 전문기관연결 및 실행을 위한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 2) 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단기· 중기과제 (1-3년)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4. 초기대처를 위한 관련 기관담당자의 직무 재편 1) 위클래스, 방카, 상담센터 등의 기능을 상담 중심에서 서비스 정보제공과 실행연결로 직무 재편 2) 가족공동체 내의 성인과 청소년 관계에서 청소년이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지원하는 초기대처 서비스 개발		
발굴-과정- 종결까지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지원	5. 청소년기 연령에 따른 특성 서비스로 재편 1)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로 재편 2) 생애주기별 연속성 있는 서비스제공 부처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분절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연결	단기· 중기과제 (1-3년)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6. 24시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재편 1) 오프라인과 연결된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플랫폼 설계개발 및 구축운영 2) 가족지지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들의 접근 친화적 시스템 운영	단기과제 (1-2년)	

70) 추진단계는 단기과제(1-2년), 중기과제(3-4년)로 제시하였음.

71) 추진체계는 정책이나 사업 주관부처, 연계부처, 지자체를 명시하였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서울: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
- 관계부처합동 (2020a).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세종: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관계부처합동 (2020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세종: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김선기, 정준영, 채태준, 강보배, 송효원 (2019).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연구**. 서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김선숙 (2021). 코로나 19 이후 1년, 아동 삶의 변화. *아동권리 ISSUE&FOCUS*, 2021(1), 8-15.
- 김수향, 윤헌철 (2022). 맞벌이 부모의 양육효능감, 일-가정 양립 및 아동의 행복감 간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8), 237-252.
- 김승경, 배정희 (2021).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 21-R27). 서울: 여성가족부.
- 김영란, 배호중, 선보영, 성경, 류연구 (2021a). **코로나19 이후 돌봄 정책** (2021 연구보고서6).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주재선, 정가원, 배호중, 선보영, 최진희, 김수진, 이진숙 (2021b).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연구보고 2020-56). 서울: 여성가족부.
- 김우림 (2021).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연구보고서 2016-0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2020).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최수정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15-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진 (2019). 사회보장재정방식에 대한 일고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2), 1-25.
- 김혜경 (2002). 가족/노동의 갈등구조와 가족연대전략을 중심으로 본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 **가족과 문화**, 14(1), 31-52.
- 남북하나재단 (2021). 2020 탈북청소년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류정희, 이상정, 이주연, 권지성, 김진석, 이현주 (2021).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와 원가정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1-3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박복순, 박선영, 김영란, 정다운, 류민희 (2019a).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박복순, 박선영, 김정혜, 정다운, 성정숙 (2019b).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III):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2019 연구보고서7).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영, 박복순, 김복태, 고현승, 김은희 (2021).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X):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021 연구보고서13).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세경, 서문희, 강주희, 서영숙, 진미정, 노성향 (200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 체계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2005-14).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 이주연, 류정희, 김보영, 김이배, 김정현, 김영하 (2021). **사회서비스 복합·다중 욕구의 현황과 대응 전략 - 아동보호와 성인돌봄 서비스의 통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1-1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 최선영, 김유경, 변수정, 조성호, 최선영, 김주현, 노현주, 염아림 (2020).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0-54).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보은 (2022). 청소년한부모 지원의 사각지대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집: 가족변화 속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배영미 (2022). **수용자자녀의 통합적 개별지원을 위한 삶의 경험을 찾아가다**. 서울: 아동

복지실천회 세움.

변수정, 정희선, 최선영, 조성호 (2020). **가족유형 다양화에 따른 영유아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20-39).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2021). 결혼 안과 밖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한국보건복지포럼**, 293, 8-21.

보건복지부 (2022a).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2b). **2022 모자보건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2c).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복지로, 보건복지부 (2021).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세종: 보건복지부.

서용석, 최호진, 정다혜 (2011). **미래환경스캐닝을 통해서 본 가족환경변화** (2011 연구보고서-5-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정아 (2016). 지역사회 청소년·가족서비스 연계 시범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4), 691-716.

설진배 (2021). 이주배경 청소년의 차별 경험과 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17(4), 99-121.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2022). **2021 ANNUAL REPORT. 수용자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서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송효진, 황정미, 김수정, 박광동, 김은지, 김영란, 박복순, 최진희, 김수진, 홍윤선, 변혜정, 조은주, 김수완, 배지영, 김현희, 이상모, 장원규, 홍주은, 이지영, 김미현, 김동진, 김수완, 장지영 (2021).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협동연구총서 21-43-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윤, 최은정, 김청송 (2019).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부적응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6(8), 343-364.

야마다 마사히로 (2019). **가족난민** (니시아마 치나, 함인희 역.). 서울: 그린비. (원저 2014 출판).

양계민, 장운선, 임후남, 최유, 최지연, 권채리 (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협동연구총서 21-28-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성가족부 (2021a). **2021년 가족사업안내 (I)(II)**.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1b).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 (I)(II)**.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c).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d).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e).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f).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제391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2022a). **2022년 가족사업안내 (I)(II)**.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b).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c).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 (I)(II)**.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2d).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유진이 (2020).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기관의 운영현황 연구. **다문화아동 청소년연구**, 5(3), 1-37.
- 은주희, 임고운 (2019).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사)한국 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이동선 (2021).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KWDI Brief**, 제64호,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상직 (2022). 한국 청년의 성인지 역할 구조 변화, 1998-2018: 젠더와 계층 차이. **한국인구학**, 45(1), 33-72.
- 이승현, 탁희성, 류정희, 이주연, 소라미, 손여옥, 김예원 (2022).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영란 (2016). 프랑스 우선교육네트워크 데스노스 REP+ 질적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8(3), 25-50.
- 이원진, 김현경, 오옥찬, 함선유, 한겨레 (2021). **1인 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 현황 분석** (정책보고서 2021-11).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원희, 김형모, 박종혁, 이은주, 최창욱, 황정임, 권혁준 (2016). **아동·청소년·여성·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사회보장위원회-한국정책학회.
- 이재경 (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15(2), 55-86.
- 이재희, 조미라, 최은경 (2021).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21-07).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봉 (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

- 퍼 제149호,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현주, 김진, John Hudson, Stefan Kühner, 전지현 (2018).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연구보고서 2018-0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희현 (2021).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KEDI Brief 2021, 3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임지연 (2022).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활성화: 메타버스 선거랜드 설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지연, 최려나, 문세진 (2022).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 자녀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연구**.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지연, 황세영, 김도영 (2019).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 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방안 연구** (연구보고 19-R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경기: 창비.
-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終焉)?: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서울: 집문당.
- 장혜경, 홍승아, 장미혜, 황정임, 정수연 (2012). **여성·청소년·가족정책 효율화 및 연계기반 구축: 돌봄과 안전을 중심으로** (2011 정책현안사업보고서-2).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상진 (2006). 청소년 연구와 청소년상(像). **한국청소년연구**, 17(2), 5-35.
- 조경호, 문미경, 진종순, 한승주, 유수동 (2021).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발전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주은수, 류정희, 박세경, 현안나 (2020).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전문영향평가 연구**.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 최세림 (202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성 근로자 출산의 기회비용. 제26회 인구포럼: **청년의 노동과 결혼출산 자료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인재, 강경균, 송민경, 조운정 (202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20-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함인희 (2001). 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친밀성의 혁명?. **가족과 문화**, 13(2), 3-28.
- 허민숙 (2020).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허민숙 (2021a). 10대 청소년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94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허민숙 (2021b).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1800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황여정, 임희진, 정은주, 유설희, 정윤미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황정미, 김수정, 변수정, 이순미 (2020).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모형 연구**. 서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황준원 (2022). **미래출현**. 경기: 파지트.
- 히라야마 료, 후루카와 마사코 (2016). **나는 형제를 모른 척할 수 있을까**(오선이 역). 서울: 어른의시간.
- Arnett, J. J. (2007). Suffering, Selfish, Slackers? Myths and Reality about Emerging Adul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1), 23-29.
- Beck, U. & E. Beck-Gernsheim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London: Sage.
- Beck, U., Bonss, W., & Lau, C. (2003). The Theory of Reflexive Modernization: Problematic, Hypotheses and Research Programme. *Theory, Culture & Society*, 20(2), 1-33.
- Bernardi, L. (2011). A mixed-methods social networks study design for research on transnational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3(4), 788-803.
- Buchmann, M. (1989). *The script of life in modern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isneros-Cohernour, E. J., & Stake, R. E. (2014). A research experience using portfolios for assessing college teaching. *Revista Iberoamericana de Evaluación Educativa*, 7(2), 209-214.
- Coontz, S. (1992).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New York: Basic Books.
- Coontz, S. (2005). *Marriage, A History: From Obedience to Intimacy or How Love Conquered Marriage*. New York: Viking.
- Duan, H., Li, J., Fan, S., Lin, Z., Wu, X., & Cai, W. (2021). Metaverse for social good: A university campus prototype. *Proceedings of the 29th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curity*.

- onal Conference on Multimedia, 153-161.
- Farrer, L. & Lay, W. (2011). *Spotlights on Contemporary Family Life: Family Platform-Families in Europe Vol. 2*. Lulu. com.
- Furstenberg, F. F. (2010). On a New Schedule: Transitions to Adulthood and Family Change. *Future of Children*, 20(1), 67-87.
- Goode, W. J. (1963).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Glencoe, IL: The Free Press.
- Hendry, L. B. & Kloep, M. (2007). Conceptualizing Emerging Adulthood: Inspecting the Emperor's New Clothe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74-79.
- Hotchkiss, G. (2017). *Child Safeguarding Procedure: Procedure and Guidance for Reporting Allegations of Child Abuse and Related Risk Assessment*. UK: West Lothian College.
- Jones, G. & Wallace, C. (1992). *Youth, Family, and Citizenship*. Buckingham, PA: Open University Press.
- Kohli, M. (2009). The World We Forgot: A Historical Review of the Life Course. In *The Life Course Reader: Individual and Societies Across Time*. W. R. Heinz, J. Huinink, and A. Weymann (eds.). Campus Verlag, 64-90.
- MacDonald, R., Mason, P., Shildrick, T., Webster, C., Johnston, L., & Ridley, L. (2001). Snakes & Ladders: In defence of studies of youth transition.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5(4), 1-13.
- Navarro-Cruz, G. E., Dávila, B. A., & Kouyoumdjian, C. (2021). From Teen Parent to Student Parent: Latina Mothers' Persistence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spanic Higher Education*, 20(4), 466-480.
- Pearce, L. D., Hayward, G. M., Chassin, L., & Curran, P. J. (2017). The Increasing Diversity and Complexity of Family Structures for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8(3), 591-608.
- Schoon, I. (2015). Diverse Pathways: Rethink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Families in an Era of Increasing Inequality: Diverging Destinies*, P. R. Amato, A. Booth, S. McHale, and J. Van Hook (eds.). Springer, 115-136.

Shorter, E. (1975).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ew York: Basic Books.

Smelser, N. J. & Halpern, S. (1978). The Historical Triangulation of Family, Economy, and Educ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Supplement: Turning Point: Historical and Sociological Essays on the Family), 288-315.

Therborn, G. (2004). *Between Sex and Power: Family in the World 1900-2000*. London: Routledge.

Thevenon, O. (2022). Measuring What Matters for Child Well-being & Policies: Moving the Child Data Agenda Forward to Inform Better Well-Being Policies.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터넷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지역규모별 다문화 유형별 학생수.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82&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10&uppCd1=010110&uppCd2=010110&flag=A에서 2022년 6월 25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메인화면. <http://www.nyhc.or.kr/IndexServlet>에서 2022년 6월 25일 인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국민행복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http://www.voucher.go.kr/voucher/youth.do>에서 2022년 5월 11일 인출.

내 손안에 서울 (2022.3.15.). '1인가구지원센터' 24개로 확대...봄 프로그램 119개 신청.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024>에서 2022년 5월 16일 인출.

뉴스핌 (2022.4.20.). 서울시, 전국 첫 '청소년부모' 지원정책 마련한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420000229>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마이홈. 전세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

entalView.do#guide=RH107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2.7.28.).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801&CONT_SEQ=372401에서 2022년 7월 30일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22). 긴급복지지원제도. http://www.mohw.go.kr/issue/popup/policy_09.html.에서 2022년9월1일 인출.

복지로. 복지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0M.do>에서 2022년 1월 11일 인출.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wlfareInfoReldBztpCd=01>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39에서 2022년 5월 30일 인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에서 2022년 5월 4일 인출.

서상희 (2020). 인권으로서의 어린이·청소년 돌봄. <https://communebut.com/Article/?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5572721&t=board>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서울신문 (2022.3.31.). 청소년 부모 위한 지원정책 근거 마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62311?sid=102>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서울연구원 (2021.5.21.).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https://www.si.re.kr/node/64925>에서 2022년 5월 20일 인출.

서울특별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보도자료 (2022.5.11.). 5년 전과 달라진 서울시 1인가구의 일상 “만족도 높아졌으나 위급상황 대처에 어려움”. <http://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881107946>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쌍글벌글서울. 서울1인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2.8.24).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61hsid+qLf9FnutmgMVIqLcE.mogef10?mid=pl

c502&bbtSn=202에서 2022년 6월 25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4.14.). 여성가족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학습지원에 나선 다-다문화·한부모·조손맞벌이 가정에 학습도움 지원.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8224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12.22.).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502>에서 2022년 10월 20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4.28.).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학대 경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384>에서 2022년 0월 0일 인출.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20.do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여성가족위원회 (2020.12.). 제382회 국회 제6차 여성가족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381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P0G0K9Q0D1N1N1E2I7V2C8J3X1X1에서 2022년 2월 7일 인출.

여성긴급전화 1366. 메인화면. <https://women1366.kr/?menuno=222>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이데일리 (2020.10.12).父폭력 시달린 인천 미혼모, 생계위기로 아기 때려 사망까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4726625932264&mediaCodeNo=257>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출산축하금. <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ctpvCd=&sggCd=&curPage=1&srchKwd=%EC%B6%9C%EC%82%B0%EC%B6%95%ED%95%98%EA%B8%88>에서 2022년 5월 4일 인출.

직업훈련포털. 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www.hrd.go.kr/hrdp/gi/pgibo/PGIBO0101T.do>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통계청 (2015a).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에서 2022년 4월 11일 인출.

통계청 (2015b).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9&conn_path=I2에서 2022년 6월 2일 인출.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통계청 (2020a). 2020년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통계청 (2020b). 2020년 성별/연령별/점유형태별 1인가구(일반가구)-시군구. <https://kosis.kr>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통계청 (2020c). 2020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에서 2022년 5월 5일 인출.

통계청 (2020d).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22년 5월 15일 인출.

통계청 (2020e).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9&conn_path=I2에서 2022년 4월 11일 인출.

통계청 (2021).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에서 2022년 2월 18일 인출.

패밀리서울. 가족센터 가족상담안내. <https://familyseoul.or.kr/consultation-guide>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https://www.kyci.or.kr/userSite/cooperation/list.asp?basicNum=1>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1.11.17.).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2년 6월 25일 인출.

DAILY POP (2021.12.21.). [1인가구 정책] 전국적으로 도입 확산하는 ‘1인가구 지원조례’, 지자체별 현황은?.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

=56572에서 2021년 3월 15일 인출.

G-health (2020.8.5.).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https://www.g-health.kr/port 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U00182&nttId=411884&menuNo=200460&lang=&searchCndSj=1&searchCndCt=1&searchWrd=&pageIndex=3&vT ype=>에서 2022년 5월 11일 인출.

MBC 뉴스 (2020.1.22.). 임신하고도 갈 곳은 찹질방 뿐...청소년부모 실태. https://imn 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3503_32524.html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Opening Doors for Europe's children (2017), Deinstitutionalisation of Europe's Children. <https://www.eurochild.org/uploads/2021/02/Opening-Doors-QA.pdf>. 2022년 8월 24일 인출.

raisingchildren.net.au (2022). Raising Children Network(호주의 십대부모 지원프로그램). <https://raisingchildren.net.au/grown-ups/family-diversity/parents-like-me/parenting-as-a-teen>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The AAP Parenting Website (2022). Early Head Start(EHS: 영국의 십대부모 지원프로그램). <https://www.healthychildren.org/English/ages-stages/teen/dating-sex/Pages/Teen-Parents.aspx>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Wee 프로젝트. <https://www.wee.go.kr/home/main/main.do>에서 2022년 6월 1일 인출.

YTN (2022.5.10.). '고딩엄빠' 이택개, 결별 글 추가 "저도 잘한 건 없지만..."(종합). http s://www.ytn.co.kr/_ln/0117_202205101605399854에서 2022년 5월 18일 인출.

○ — 부 록

부록

1. 청소년 가족환경 실태조사지

청소년 가족환경 실태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본원에서는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재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청소년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 설문지는 각 문항마다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한국 리서치
담당자	임지연 선임연구위원 044-415-2226	황인창 부장	02-3014-0086
	한지형 전문연구위원 044-415-2244	송승연 대리	02-3014-0752
	문세진 연구원 044-415-2168		

연구 참여 설명문

연구과제명 :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본 연구는 다양한 가족의 생애주기별 청소년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보다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방안 모색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1. 무엇을 위한 조사이며 조사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본 조사는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웹조사입니다. 청소년 요구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가족환경 변화, 가족구성원, 가족관계, 청소년서비스이용경험, 요구사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소 불편한 내용(이사, 이혼, 사망 등)이 포함되어있지만 대책마련을 위한 조사임으로 필요한 문항입니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가족특성별 생애주기별 청소년지원 방식 개선 방안 마련 및 가족환경 다변화시대에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포괄적 청소년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연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본 설문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 약2000명(초등 방과후아카데미 500명, 중등 방과후아카데미 500명, 고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0명, 학교밖지원센터 200명, 대학/전문대학 학생상담센터 450명, 청소년부모 단체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바일 웹조사입니다. 조사에 앞서 연구목적과 조사내용, 연구방법을 충분히 고지한 설명문을 통해 조사대상자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나타낸 청소년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이며 제공 계획이 있습니까?

본 조사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청소년의 가족구성원, 가족관계, 청소년서비스이용경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집할 예정이며, 연구를 위해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익명화과정을 거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변환 처리 후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며, 본 연구의 목적 외 대외제공 및 공개, 활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현재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오히려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방안 개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가족단위 정책지원에서 청소년 개별단위 지원 정책으로의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조사에 대한 실비(현금)나 답례품(선물)이 지급될 예정입니까?

모바일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초중고연령은 2천원, 대학연령은 3천원, 청소년부모는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6.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연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를 그만 둘 경우 수집된 연구 대상자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7.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 참여로 수집되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이름, 연락처, 학교, 학업수준, 가족구성원, 경제형편, 부모님 학력, 서비스 이용경험입니다. 이 중 이름, 연락처 답례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활용되며, 답례품 제공 후에는 즉시 폐기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학교, 서비스 이용경험 등은 연구를 위해 수집 및 활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익명화과정을 거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변환 처리 후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익명화한 자료 및 조사결과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조사대상자의 권익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연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자 : 임지연, 전화번호 : 044-415-2226

공동연구자 : 한지형, 전화번호 : 044-415-2244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152

연구 참여 동의

조사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가족환경 실태조사>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출생연도, 가족구성, 부모(보호자) 학력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1. 배경정보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출생년도	()년 로직 : 초등 방과후아카데미는 2010년 ~ 2012년 중등 방과후아카데미는 2007년 ~ 2009년 상담복지센터(고등),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고등)은 2003년 ~ 2006년 전문대학, 4년제 대학생은 1997년 ~ 2002년 청소년부모는 1997년 ~ 2009년
3. 교육수준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 ⑤ 4년제 대학 ① 재학 중 ② 졸업 ③ 중퇴 ④ 휴학
4. 학업수준 (현재 학교 안 다 닐 경우는 학교 다닐 때의 경험 을 기준으로 표 시해 주세요)	① 매우 못하는 수준 ② 못하는 수준 ③ 중간 ④ 잘하는 수준 ⑤ 매우 잘하는 수준
5. 가족 구성원 (따로 떨어져 사 는 가족도 모두 표시) (예: 군대 간 형, 지방에 일하러 간 아버지 등)	① 친아버지 ② 친어머니 ③ 친할아버지 ④ 친할머니 ⑤ 외할아버지 ⑥ 외할머니 ⑦ 새아버지 ⑧ 새어머니 ⑨ 친남자형제 ⑩ 친여자형제 ⑪ 친척 ⑫ 새남자형제(새부모의 아들) ⑬ 새여자형제(새부모의 딸) ⑭ 어머니의 남자친구 ⑮ 아버지의 여자친구 ⑯ 기타(시설 등 (직접 써주세요. _____) ⑰ 동거가족없음
6. 현재 같이 살 고 있는 사람(모 두 표시)	① 친아버지 ② 친어머니 ③ 친할아버지 ④ 친할머니 ⑤ 외할아버지 ⑥ 외할머니 ⑦ 새아버지 ⑧ 새어머니 ⑨ 친남자형제 ⑩ 친여자형제 ⑪ 친척 ⑫ 새남자형제(새부모의 아들) ⑬ 새여자형제(새부모의 딸) ⑭ 어머니의 남자친구 ⑮ 아버지의 여자친구 ⑯ 친구 ⑰ 배우자(또는 동거인) ⑱ 자녀 ⑲ 기타(시설 등) (직접 써주세요. _____) ⑳ 동거가족 없음

7.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 청소년부모(10대 부모 등) ③ 청소년1인가구(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 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가구) ⑤ 가족을 돌봄 노동을 하는 청소년 ⑦ 다문화가족 ⑨ 확대가족(조부모+부모+자녀) ⑪ 형제자매와 사는 가족 ⑬ 가족(장애, 질병 등)을 돌보는 청소년 ⑭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② 청소년한부모(10대 미혼부/미혼모 등) ④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족 청소년,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들어왔거나 부모님중 한분이상이 외국국적인 경우) ⑥ 한부모가족(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분만 있는 가족) ⑧ 부부+자녀가족 ⑩ 조손가족(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역할) ⑫ 친구와 사는 가족
------------------------	---	---

8.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경제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① 상의 상 ② 상의 하 ③ 중의 상 ④ 중의 하 ⑤ 하의 상 ⑥ 하의 하
---	--

9. 부모님(보호자)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아버지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③ 고등학교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⑦ 모름/안 계심	어머니 () ② 중학교 졸업 ④ 전문대 졸업 ⑥ 대학원 졸업

2. 삶의 만족도

다음 질문에 대해 해당 칸에 V표하여 주세요.

10. 요즘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0-1. 평소 생활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3. 가족관계

11. 지난 한 달 동안, 부모님(혹은 보호자) 혼자 집에서 잠을 잔 날이 일주일에 평균 며칠 정도 있었나요?(초등/중등 방과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 응답자만 응답 / 전문대학, 4년제, 청소년부모 응답자는 응답하지 않음)

- ① 일주일에 1일 이하 ② 일주일에 2~3일 ③ 일주일에 4~5일 ④ 일주일에 6일 이상 ⑤ 없음
(부모님 혹은 보호자 없이 밤에 혼자 집에서 잔 날이 없었음)

12. 평소 가족에 대한 귀하의 느낌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과 동거인(함께 사는 가족으로 포함하며, 집에 살지 않는 친척은 제외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나를 지켜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과 있으면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의식주)을 받고 있다 ※ 의식주 : 살 집과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	①	②	③	④

13. 가족 중 1명이라도 나를 신뢰해 줄 뿐만 아니라, 의식주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4. 가족기능

14. 가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귀하의 느낌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공동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혈연관계는 친형제 자매, 부모를 의미함) * 혈연관계 : 부모와 자식, 형제를 기본으로 하는 관계, 보통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는 피가 섞인 관계라고 하여 혈(피)연(이 어진)관계라고 한다. * 공동주거 : 가족 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	①	②	③	④
2)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 정서적 유대 : 친구나 가족 사이의 끈끈한 정(情)	①	②	③	④
3) 나는 기본 인성교육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곳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돌봐야 할 가족(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학교(일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결석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사회관계

15. 학교/사회관계에 대한 귀하의 느낌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족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계신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가족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의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일터가기 싫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	①	②	③	④
4) 일상과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가족 문제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6)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즐겁다	①	②	③	④
7)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좋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서비스기관이용 인지도/경험

16. 다음의 청소년서비스기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로직: 인지도에서 3번 또는 4번 선택 문항만 경험여부 질문]

구분	인지도				16-1. 경험 유무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안다	있다	없다
1) 청소년전화 1388	①	②	③	④	①	②
2) 학교상담실(위클래스 등)	①	②	③	④	①	②
3) 방과후아카데미	①	②	③	④	①	②
4) 청소년센터(청소년활동수련관, 문화의집 등)	①	②	③	④	①	②
5) 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④	①	②
6)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①	②
7)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①	②
8)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①	②	③	④	①	②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②	③	④	①	②
10) 청소년치료재활센터	①	②	③	④	①	②
11)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①	②	③	④	①	②
12) 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①	②

16-2. 이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청소년서비스기관**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서비스기관인지 직접 입력해 주세요.

- ① 있다(직접 입력 :)
② 없다

7. 가족환경 변화 경험/ 어려움

17.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족환경**으로 다음과 같은 사건을 (나 또는 주변의 경우)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해당되는 곳에 모두 V표시 해 주세요.

(※ 다소 불편하게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질문이오니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① 이사 ② 실직 ③ 입원 ④ 이혼 ⑤ 재혼 ⑥ 건강악화 ⑦ 교도소 수감(투옥)
⑧ 장애 ⑨ 빚독촉 ⑩ 알코올중독 ⑪ 폭행 ⑫ 가출 ⑬ 정신질환(우울증, 무기력증)
⑭ 추방 ⑮ 교통사고 등 ⑯ 자살 ⑰ 유학 ⑱ 이민 ⑲ 해외취업 ⑳ 사망
㉑ 타지역 파견근로 ㉒ 시설보호(입소)
㉓ 기타 가족환경 관련 중요한 사건(직접 써주세요.)

18. 가족문제(이사, 건강, 불화 등)로 인한 어려움(나 또는 내 주변의 경우)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주변의 편견과 낙인 ② 심리정서적 상처 ③ 의식주 ④ 교육진로 ⑤ 가족불화 ⑥ 무력감
 ⑦ 건강 ⑧ 집안일 ⑨ 불안 ⑩ 외로움 ⑪ 도움을 요청할 곳의 부재 ⑫ 대인기피
 ⑬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19.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나 또는 내 주변의 경우) 어떻게 해결한다고 생각되시나요?
 해당하는 곳에 모두 V표시 해 주세요.

- ① 외부와 단절한다(말을 안 한다, 전화를 안 받는다) ② 친구에게 말한다
 ③ 학교 선생님께 말한다 ④ 서비스기관에 상담을 요청한다
 ⑤ 가족들과 상의한다 ⑥ 이상한 행동을 한다
 ⑦ 스스로 자해한다(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⑧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무기력증)
 ⑨ 기타(_____)

7. 가족환경 변화 경험/ 어려움

20.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최소 1개 이상
 최대 3개 이하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가족여행 ② 가족취미활동 ③ 가정 생활관리(청소, 정돈 등) ④ 가족상담
 ⑤ 진로교육 ⑥ 인성교육 ⑦ 식사 ⑧ 부모역할교육 ⑨ 가족 내 소통
 ⑩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21.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고 싶나요?
 최소 1개 이상 최대 3개 이하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청소년자원 서비스 ② 원스탑 서비스 시스템(한곳에서 모두 처리해 주는 방식)
 ③ 일상적 서비스 ④ 24시간 접근 가능한 서비스 ⑤ 초등-중등-고등-청년으로 연결되는 단절 없는 맞춤형 서비스
 ⑥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⑦ 물품지원 ⑧ 돈으로 지원
 ⑨ 방문서비스 ⑩ 온라인 서비스 ⑪ 특정 이벤트(축제, 발표회 등)
 ⑫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22.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란?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meta)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공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들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놀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가상공간에서 365일 24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청소년상담,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 상담 공간입니다.

자신의 아바타를 가지고 걸어 다니고 춤도 추고, 가상공간에서 라면도 먹고 동영상도 책도 읽으며, 게시판, 채팅, 화상,

전화 등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2-1. 여러분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청소년 가족환경 심층면담 조사지

구분	조사내용
1.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로 고민될 때 주로 어떻게 하는가? 1) 가족환경이 변했던 사건 2) 초기 대처(해결) 경험
2. 대처가 어려웠던 이유	내가 가족환경 변화(가족문제)에 대처(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1)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 대처(해결)의 어려움 2) 가족문제로 힘들었던 이유
3. 제공받은 서비스	가족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서비스) 2) 초기 대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4.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도움/서비스	가족문제(가족환경 변화)로 나에게 필요한 도움/서비스는? 1) 나에게 필요한 가족의 도움과 서비스 2) 메타버스 서비스(아바타를 이용한 가상공간 서비스)
5. 가족지지 / 가족의 의미	가족 중 나를 정서적 지지와 의식주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가? 1) 가족 중 나를 가장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 2) 내가 어려울 때 지지를 받고 있나요 3) 가족 중 1명이라도 나를 신뢰하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사람은? 4) 가족중 1명이라도 나의 의식주를 돌봐해주는 사람은? 5) 나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 가족하면 떠오르는말

3. 가족환경 생활 실태조사 상세 결과표

부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42	100
성별	남성	750	36.7
	여성	1,292	63.3
학교급	초등학교	531	26.0
	중학교	570	27.9
	고등학교	470	23.0
	대학교	421	20.6
	청소년부모	50	2.4
경제형편	상	318	15.6
	중	1,479	72.4
	하	245	12.0
부모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39	2.6
	(부모 모두) 고졸	390	26.4
	(둘중 한명) 대졸	740	50.1
	(둘중 한명) 대학원졸	307	20.8
학업수준	상	730	35.7
	중	981	48.0
	하	331	16.2
행복도	상	1,159	56.8
	중	690	33.8
	하	193	9.5
가족지지기반	평균 이상	1,053	51.6
	평균 이하	989	48.4

부표 2. 응답자 특성(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지역	서울	205	10.0
	부산	95	4.7
	대구	96	4.7
	인천	116	5.7
	광주	63	3.1
	대전	50	2.4
	울산	17	0.8
	세종	11	0.5
	경기	385	18.9
	강원	167	8.2
	충북	100	4.9
	충남	173	8.5
	전북	191	9.4
	전남	124	6.1
	경북	116	5.7
	경남	130	6.4
	제주	3	0.1

부표 3. 가족구성원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친 어 머 니	친 아 버 지	친 남 자 형 제	친 여 자 형 제	친 할 머 니	외 할 머 니	친척	외 할 아 버 지	친 할 아 버 지	새 아 버 지	어 머 니의 남 자 친 구	새 여 자 형 제	새 남 자 형 제	새 어 머 니	아 버 지의 여 자 친 구	기 타	가족 구성 원 없 음
전체		85.8	83.2	47.0	46.7	38.2	35.5	33.3	25.3	23.7	2.5	1.5	1.2	1.2	1.2	0.9	2.0	0.5
성별	남성	83.9	80.8	44.1	44.5	39.5	36.7	33.2	27.5	23.6	2.4	1.2	1.2	1.3	0.9	1.1	0.5	0.5
	여성	86.9	84.6	48.7	48.0	37.5	34.8	33.3	24.1	23.8	2.6	1.7	1.2	1.2	1.3	0.8	2.9	0.5
학교 급	초등학교	81.2	81.5	46.0	44.8	48.8	49.5	43.7	38.8	35.6	1.9	2.1	1.5	1.7	1.1	1.5	0.9	0.4
	중학교	83.3	80.5	47.0	48.1	48.1	39.6	39.3	30.9	28.6	2.6	1.2	0.4	0.9	0.7	1.1	0.5	0.4
	고등학교	90.2	85.5	47.2	45.7	29.8	28.9	27.7	17.4	16.0	2.8	1.1	1.3	1.1	1.1	0.6	0.0	0.4
	대학교	91.2	87.4	48.0	49.2	23.0	20.9	20.7	10.7	12.1	2.1	1.2	1.7	0.7	1.2	0.2	0.5	0.7
	청소년부모	76.0	74.0	48.0	40.0	22.0	24.0	12.0	16.0	12.0	8.0	6.0	4.0	6.0	8.0	0.0	62.0	2.0
경제 형편	상	82.7	81.4	43.1	45.9	42.8	43.1	38.7	33.0	31.4	2.2	1.6	1.6	1.3	0.3	0.6	0.6	0.9
	중	87.2	86.1	47.9	47.5	39.6	36.0	34.3	25.4	23.4	2.2	1.1	0.8	1.0	0.9	0.9	1.7	0.2
	하	81.6	68.2	46.5	42.9	24.5	22.4	19.6	15.1	15.5	4.5	3.7	3.3	2.4	3.7	0.8	5.7	1.6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71.8	64.1	35.9	48.7	25.6	30.8	30.8	28.2	15.4	5.1	5.1	2.6	0.0	0.0	2.6	2.6	0.0
	(부모 모두) 고졸	91.0	86.2	50.5	50.8	32.8	31.5	29.7	19.5	18.5	3.6	1.8	1.0	1.0	0.3	0.3	2.6	0.0
	(둘중 한명) 대졸	91.1	89.3	48.0	46.8	38.4	36.1	34.2	25.7	24.1	1.8	0.8	1.1	0.8	1.8	0.5	1.5	0.7
	(둘중 한명) 대학원졸	89.6	88.3	46.3	49.5	41.0	39.1	35.8	30.0	29.0	2.9	1.6	2.0	1.6	1.6	1.6	1.3	0.3
학업 수준	상	87.5	84.9	48.8	46.2	41.5	39.7	35.9	29.9	27.9	2.7	1.2	1.0	1.6	1.2	0.8	0.7	0.3
	중	85.5	82.9	45.5	47.3	37.3	34.1	31.9	23.4	21.2	2.3	1.2	0.9	0.7	0.9	0.6	2.7	0.4
	하	82.8	80.4	47.7	46.2	33.8	30.2	31.4	20.8	21.8	2.4	3.0	2.7	1.8	1.8	1.8	3.0	1.2
행복 도	상	86.4	83.8	46.0	46.9	41.1	39.9	36.9	29.2	26.1	2.2	1.2	0.8	0.9	0.7	0.7	1.2	0.4
	중	86.2	82.9	48.7	47.5	35.7	31.9	31.4	22.5	22.2	2.5	1.4	1.4	1.2	1.6	1.2	3.0	0.3
	하	80.8	80.8	47.2	42.5	30.6	21.8	17.6	12.4	14.5	4.1	3.6	3.1	3.1	2.6	1.0	3.1	1.6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85.8	84.2	46.4	45.2	41.6	40.3	37.3	30.1	26.8	2.1	1.7	1.0	1.3	0.7	0.9	0.9	0.4
	평균 이하	85.7	82.1	47.6	48.3	34.7	30.4	28.9	20.2	20.4	2.9	1.3	1.4	1.1	1.7	0.8	3.2	0.6

부표 4. 현재 동거인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친 어 머 니	친 아 버 지	친 남 자 형제	친 여 자 형제	친 할 머 니	친 할 아 버 지	외 할 머 니	자 녀	친 척	외 할 아 버 지	배 우 자	새 아 버 지	어 머 니 의 남자 친구	아 버 지 의 여자 친구	새 어 머 니	새 여 자 형제	친 구	새 남 자 형제	기 타	동 거 가족 없음
전체		80.7	74.1	42.0	39.4	9.1	4.8	4.7	3.8	3.6	2.5	2.0	1.5	1.0	0.8	0.7	0.7	0.6	0.3	0.9	4.1
성별	남성	81.3	76.1	42.9	39.3	10.4	5.5	5.7	2.4	3.7	3.2	0.9	1.7	1.3	1.2	0.8	0.3	0.7	0.3	0.9	3.6
	여성	80.3	72.9	41.4	39.4	8.4	4.4	4.0	4.6	3.5	2.2	2.6	1.3	0.9	0.5	0.7	1.0	0.6	0.3	0.9	4.4
학교 급	초등학교	84.4	81.2	45.0	44.6	12.1	7.5	8.3	2.4	5.8	4.1	0.8	1.7	2.3	1.7	1.3	0.2	0.9	0.4	1.9	0.9
	중학교	83.9	76.7	48.8	43.9	12.3	6.1	4.9	3.0	4.2	3.0	0.7	1.6	0.7	0.9	0.4	1.1	0.4	0.4	0.0	0.4
	고등학교	84.9	77.7	40.4	36.8	6.6	3.0	2.8	0.9	3.0	2.1	0.4	1.9	0.6	0.2	0.4	1.1	0.4	0.4	0.4	2.3
	대학교	74.8	65.3	34.4	33.5	5.0	2.1	2.4	0.0	1.0	0.7	1.0	0.5	0.5	0.2	1.0	0.7	1.0	0.0	1.2	15.4
	청소년부모	14.0	10.0	10.0	6.0	0.0	0.0	0.0	88.0	0.0	0.0	52.0	2.0	0.0	0.0	0.0	0.0	0.0	0.0	4.0	2.0
경제 형편	상	85.8	82.4	41.5	44.3	11.3	7.5	7.5	1.9	5.3	6.0	1.6	2.5	1.6	1.3	1.3	0.0	1.3	0.3	1.3	2.2
	중	82.5	77.3	44.0	39.8	8.7	4.3	4.3	3.4	3.4	2.0	1.6	1.3	0.9	0.6	0.5	0.9	0.4	0.3	0.9	3.6
	하	62.9	43.7	30.2	30.6	8.6	4.1	3.3	9.0	2.0	1.2	4.5	1.2	1.2	1.2	1.2	0.8	1.2	0.4	0.8	9.8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61.5	69.2	23.1	28.2	12.8	7.7	12.8	2.6	17.9	12.8	0.0	0.0	7.7	7.7	0.0	0.0	2.6	0.0	5.1	10.3
	(부모 모두) 고졸	84.4	76.7	45.4	39.7	5.9	3.3	2.3	3.6	3.1	1.0	2.8	2.8	0.5	0.0	0.5	1.3	0.8	0.3	0.8	4.9
	(둘중 한명) 대졸	86.2	79.6	43.6	40.9	6.5	3.5	4.6	3.0	2.4	2.0	1.8	1.1	0.3	0.3	1.1	0.8	0.4	0.1	0.4	3.5
	(둘중 한명) 대학원졸	82.1	79.2	38.8	45.0	10.7	5.5	5.2	2.9	3.6	2.6	1.0	1.6	1.6	1.6	1.0	0.7	0.3	0.7	1.6	4.6
학업 수준	상	83.6	77.0	40.1	40.4	10.8	6.0	5.6	2.6	4.4	3.3	1.4	1.5	1.0	0.8	0.5	0.3	0.1	0.3	0.7	5.2
	중	80.5	73.8	42.3	39.1	8.4	3.8	3.9	4.6	2.9	2.1	2.1	1.4	1.0	0.5	0.8	0.9	0.9	0.4	1.0	4.0
	하	74.6	68.6	45.0	37.8	7.6	5.1	4.8	4.2	3.9	2.1	2.7	1.5	1.2	1.5	0.9	1.2	0.9	0.0	1.2	2.1
행복 도	상	84.2	78.5	43.0	41.6	9.6	5.4	5.5	3.0	4.0	3.1	1.9	1.5	0.8	0.7	0.4	0.4	0.7	0.3	1.0	2.7
	중	77.1	70.0	42.0	37.1	7.7	3.8	3.6	4.5	3.3	1.7	1.9	0.9	1.0	0.9	0.9	1.0	0.6	0.1	0.9	5.7
	하	72.0	62.2	35.8	34.2	11.4	4.7	3.1	6.2	2.1	2.1	2.6	3.6	2.6	1.0	2.1	1.6	0.5	1.0	0.5	7.3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84.8	80.1	44.5	40.3	9.4	5.2	5.7	2.9	4.4	3.6	1.3	1.5	1.4	1.2	0.4	0.6	0.5	0.2	1.0	1.6
	평균 이하	76.2	67.7	39.2	38.4	8.8	4.3	3.5	4.8	2.7	1.4	2.6	1.4	0.6	0.3	1.1	0.9	0.8	0.4	0.8	6.8

부표 5. 청소년기 과거 또는 현재의 가족형태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양 부 모 가 족	한 부 모 가 족	형제 자매와 사는 가족	확대가 족	청소년 부모	이주 배경 청소년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1인 가구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친구와 사는 가족	기타
전체		59.1	19.6	15.1	12.5	5.5	5.0	4.7	1.8	1.4	1.4	0.7	3.3
성별	남성	55.3	16.9	13.7	10.0	6.1	5.6	3.7	0.5	1.1	1.1	0.4	4.5
	여성	61.2	21.2	15.9	14.0	5.2	4.7	5.2	2.5	1.6	1.5	0.9	2.6
학교 급	초등학교	60.3	14.1	14.1	10.5	7.3	6.2	3.2	1.1	0.8	1.3	0.6	3.2
	중학교	52.8	22.3	14.6	7.5	5.4	8.8	3.9	0.4	0.2	0.5	0.4	3.7
	고등학교	63.4	19.1	15.5	13.0	2.1	3.4	4.0	0.4	2.8	1.1	0.9	3.4
	대학교	65.1	20.0	17.3	20.7	1.4	1.0	7.6	1.0	1.9	2.9	1.2	3.3
	청소년부모	26.0	50.0	10.0	18.0	54.0	0.0	10.0	44.0	6.0	2.0	2.0	0.0
경제 형편	상	61.9	8.8	14.5	10.1	8.8	3.8	3.1	0.6	0.9	0.6	0.6	5.3
	중	62.2	17.2	16.0	12.8	4.9	5.2	4.6	0.9	1.4	1.3	0.4	2.8
	하	36.3	48.6	10.6	14.3	4.9	5.7	6.9	8.2	2.0	2.9	2.9	3.7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41.0	23.1	12.8	12.8	15.4	7.7	2.6	0.0	5.1	0.0	0.0	2.6
	(부모 모두) 고졸	67.7	15.9	15.9	11.3	5.1	4.1	4.9	1.5	1.5	2.1	0.8	3.6
	(둘중 한명) 대졸	67.6	14.1	17.6	13.5	3.6	3.5	3.4	1.2	1.8	1.2	0.9	2.0
	(둘중 한명) 대학원졸	68.7	8.8	9.8	12.1	5.5	2.9	4.6	1.0	1.3	1.6	0.7	4.9
학업 수준	상	62.6	14.8	15.8	13.2	6.0	4.7	5.5	1.1	1.4	1.4	0.5	3.0
	중	59.8	19.7	14.5	12.6	5.1	5.1	3.9	1.8	1.7	1.4	0.8	3.0
	하	48.9	30.2	15.7	10.9	5.7	5.7	5.1	3.0	0.6	1.2	0.9	5.1
행복 도	상	62.0	15.3	15.3	11.7	5.5	4.8	4.0	1.2	1.1	1.0	0.6	2.8
	중	56.1	24.3	15.2	12.3	5.8	4.9	5.2	2.3	1.3	1.4	0.9	3.8
	하	51.8	29.0	14.0	18.1	4.7	6.7	6.7	3.1	3.6	3.1	1.0	5.2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61.3	14.6	13.9	11.1	6.1	5.1	3.7	1.0	0.7	0.9	0.4	3.7
	평균 이하	56.6	25.0	16.5	14.1	5.0	5.0	5.7	2.5	2.2	1.9	1.1	2.9

부표 6. 가족기능 (공동주거 및 생계공유)

(단위 : %)

구분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t/F)
전체		7.1	17.0	46.2	29.7	2.98	0.868	
성별	남성	8.5	13.6	44.1	33.7	3.03	0.903	1.859
	여성	6.3	19.0	47.4	27.3	2.96	0.846	
학교 급	초등학교	7.7	12.2	42.2	37.9	3.10	0.895	10.974***
	중학교	5.4	13.2	48.4	33.0	3.09	0.820	
	고등학교	6.8	21.9	45.3	26.0	2.90	0.862	
	대학교	8.6	22.3	48.7	20.4	2.81	0.857	
	청소년부모	12.0	20.0	50.0	18.0	2.74	0.899	
경제 형편	상	8.8	12.9	34.0	44.3	3.14	0.953	11.959***
	중	5.8	17.9	48.3	28.0	2.98	0.832	
	하	13.1	16.7	49.4	20.8	2.78	0.924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7.7	7.7	48.7	35.9	3.13	0.864	1.842
	(부모 모두) 고졸	8.5	16.7	47.2	27.7	2.94	0.884	
	(둘중 한명) 대졸	6.1	18.1	46.5	29.3	2.99	0.848	
	(둘중 한명) 대학원졸	5.9	16.0	42.3	35.8	3.08	0.865	
학업 수준	상	9.0	15.6	40.0	35.3	3.02	0.934	8.299***
	중	4.5	16.8	51.0	27.7	3.02	0.791	
	하	10.9	20.5	45.6	23.0	2.81	0.914	
행복 도	상	6.2	14.8	42.7	36.2	3.09	0.867	23.955***
	중	7.0	18.8	52.9	21.3	2.89	0.817	
	하	13.5	23.3	43.0	20.2	2.70	0.943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6.1	14.0	37.0	42.9	3.17	0.886	10.177***
	평균 이하	8.3	20.2	55.9	15.6	2.79	0.803	

부표 7. 가족기능 (정서적 유대)

(단위 : %)

구분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t/F)
전체		4.6	17.4	46.0	32.1	3.06	0.821	
성별	남성	5.7	15.5	43.3	35.5	3.09	0.856	1.216
	여성	3.9	18.5	47.5	30.1	3.04	0.800	
학교 급	초등학교	3.8	16.0	39.7	40.5	3.17	0.830	9.307***
	중학교	2.6	16.7	48.1	32.6	3.11	0.767	
	고등학교	5.3	17.2	46.8	30.6	3.03	0.832	
	대학교	6.2	19.2	50.6	24.0	2.92	0.822	
	청소년부모	14.0	26.0	42.0	18.0	2.64	0.942	
경제 형편	상	4.1	16.7	32.7	46.5	3.22	0.867	11.306***
	중	4.2	17.1	48.3	30.4	3.05	0.800	
	하	7.3	20.0	49.0	23.7	2.89	0.849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5.1	25.6	25.6	43.6	3.08	0.957	1.466
	(부모 모두) 고졸	4.9	19.2	44.9	31.0	3.02	0.836	
	(둘중 한명) 대졸	4.6	16.1	47.4	31.9	3.07	0.812	
	(둘중 한명) 대학원졸	2.6	15.6	45.9	35.8	3.15	0.774	
학업 수준	상	4.7	16.8	41.1	37.4	3.11	0.847	5.610**
	중	4.1	16.6	48.9	30.4	3.06	0.794	
	하	5.7	20.8	48.0	25.4	2.93	0.830	
행복 도	상	3.8	15.9	41.5	38.8	3.15	0.822	23.360***
	중	4.5	18.3	53.2	24.1	2.97	0.776	
	하	9.3	23.3	47.2	20.2	2.78	0.875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3.6	14.0	38.2	44.3	3.23	0.821	10.199***
	평균 이하	5.6	21.0	54.3	19.1	2.87	0.779	

부표 8. 가족기능 (인성교육)

(단위 : %)

구분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t/F)
전체		1.9	5.6	40.0	52.5	3.43	0.685	
성별	남성	3.3	6.9	43.3	46.4	3.33	0.748	-5.040***
	여성	1.0	4.9	38.0	56.1	3.49	0.639	
학교 급	초등학교	3.6	8.7	38.8	49.0	3.33	0.781	8.418***
	중학교	1.2	6.1	46.8	45.8	3.37	0.656	
	고등학교	1.1	4.7	35.5	58.7	3.52	0.639	
	대학교	1.7	2.4	37.3	58.7	3.53	0.630	
	청소년부모	0.0	4.0	38.0	58.0	3.54	0.579	
경제 형편	상	3.5	4.7	32.4	59.4	3.48	0.744	0.853
	중	1.5	5.9	41.4	51.3	3.42	0.672	
	하	2.0	5.3	41.2	51.4	3.42	0.689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2.6	2.6	48.7	46.2	3.38	0.673	1.277
	(부모 모두) 고졸	1.0	4.6	36.9	57.4	3.51	0.636	
	(둘중 한명) 대졸	1.2	5.0	38.9	54.9	3.47	0.650	
	(둘중 한명) 대학원졸	1.3	3.9	33.9	60.9	3.54	0.637	
학업 수준	상	1.9	5.1	33.2	59.9	3.51	0.683	7.432***
	중	1.7	5.8	43.8	48.6	3.39	0.678	
	하	2.1	6.3	43.5	48.0	3.37	0.700	
행복 도	상	2.0	5.3	33.7	59.0	3.50	0.689	12.582***
	중	1.6	6.1	48.1	44.2	3.35	0.667	
	하	2.1	6.2	48.2	43.5	3.33	0.688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1.4	4.1	29.5	65.0	3.58	0.641	10.348***
	평균 이하	2.3	7.3	51.1	39.3	3.27	0.696	

부표 9. 가족기능 (경제적지원)

(단위 : %)

구분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t/F)
전체		4.9	16.2	44.8	34.0	3.08	0.833	
성별	남성	6.3	17.1	40.7	36.0	3.06	0.882	-0.618
	여성	4.2	15.7	47.2	32.9	3.09	0.804	
학교 급	초등학교	6.6	16.9	32.8	43.7	3.14	0.924	4.254**
	중학교	4.6	16.5	47.9	31.1	3.05	0.810	
	고등학교	4.0	15.7	47.4	32.8	3.09	0.800	
	대학교	3.1	14.7	53.0	29.2	3.08	0.747	
	청소년부모	16.0	22.0	44.0	18.0	2.64	0.964	
경제 형편	상	5.3	10.1	31.8	52.8	3.32	0.862	17.532***
	중	4.5	17.3	47.1	31.1	3.05	0.813	
	하	7.3	17.6	47.8	27.3	2.95	0.862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5.1	23.1	35.9	35.9	3.03	0.903	1.105
	(부모 모두) 고졸	3.6	14.6	50.8	31.0	3.09	0.770	
	(둘중 한명) 대졸	3.8	16.5	45.4	34.3	3.10	0.806	
	(둘중 한명) 대학원졸	4.9	13.0	40.7	41.4	3.19	0.841	
학업 수준	상	5.9	13.8	39.6	40.7	3.15	0.871	7.403***
	중	3.4	16.8	48.9	30.9	3.07	0.779	
	하	7.6	19.6	44.1	28.7	2.94	0.886	
행복 도	상	5.1	15.3	39.3	40.4	3.15	0.859	16.068***
	중	3.5	15.9	53.6	27.0	3.04	0.753	
	하	9.3	22.8	46.6	21.2	2.80	0.881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5.1	13.5	36.6	44.8	3.21	0.863	7.480***
	평균 이하	4.8	19.1	53.6	22.5	2.94	0.777	

부표 10. 가족기능 (가족돌봄)

(단위 : %)

구분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t/F)
전체		5.9	13.9	46.8	33.4	3.08	0.838	
성별	남성	6.5	12.5	43.5	37.5	3.12	0.865	1.634
	여성	5.5	14.6	48.8	31.1	3.05	0.821	
학교 급	초등학교	8.5	13.9	39.0	38.6	3.08	0.927	2.729*
	중학교	4.6	11.1	51.1	33.3	3.13	0.781	
	고등학교	4.0	13.4	49.1	33.4	3.12	0.785	
	대학교	6.7	15.9	50.1	27.3	2.98	0.836	
	청소년부모	4.0	32.0	32.0	32.0	2.92	0.900	
경제 형편	상	9.7	8.8	34.6	46.9	3.19	0.957	6.028**
	중	4.5	14.5	49.8	31.2	3.08	0.794	
	하	9.4	16.7	44.5	29.4	2.94	0.915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2.6	2.6	53.8	41.0	3.33	0.662	1.065
	(부모 모두) 고졸	5.4	12.1	51.0	31.5	3.09	0.803	
	(둘중 한명) 대졸	5.7	12.6	47.7	34.1	3.10	0.827	
	(둘중 한명) 대학원졸	5.5	15.3	42.3	36.8	3.10	0.857	
학업 수준	상	6.4	14.1	40.5	38.9	3.12	0.880	1.561
	중	5.9	13.6	50.5	30.1	3.05	0.819	
	하	4.5	14.2	49.8	31.4	3.08	0.795	
행복 도	상	6.0	12.6	42.4	39.0	3.14	0.859	8.151***
	중	5.5	15.2	53.2	26.1	3.00	0.796	
	하	6.2	16.6	50.8	26.4	2.97	0.826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5.5	11.3	38.4	44.8	3.23	0.855	8.318***
	평균 이하	6.3	16.6	55.8	21.3	2.92	0.790	

부표 11. 가족환경 관련 경험(다중응답)

(단위 : %)

구분		이 사	입 원	정 신 질 병	이 혼	교 통 사 고 등	건 강 약 화	사 망	가 출	폭 행	재 혼	실 직	알 코 올 중 독	장 애	자 살	빛 독 촉	유 학	타 지 역 파 견 근 로	시 설 보 호	교 도 소 수 감	이 민	해 외 취 업	추 방	기 타
전체		69.0	31.1	21.0	18.4	13.6	12.4	11.6	9.1	7.0	4.7	4.3	4.4	4.2	2.9	2.7	2.6	2.0	1.9	1.4	0.8	0.7	0.5	6.4
성별	남성	62.9	26.9	12.0	16.4	12.7	8.9	9.2	7.3	3.6	3.7	3.3	3.1	4.0	1.6	1.7	1.6	1.3	0.7	0.4	0.8	0.7	0.5	9.2
	여성	72.5	33.5	26.2	19.6	14.1	14.4	12.9	10.1	8.9	5.2	4.9	5.1	4.3	3.6	3.3	3.3	2.3	2.6	1.9	0.9	0.8	0.5	4.8
학 고 단 기	초등학교	70.2	34.1	5.1	13.9	14.1	6.0	8.9	2.4	3.2	1.7	1.9	3.2	4.0	0.4	0.8	0.9	0.9	0.6	0.2	0.9	0.4	0.4	7.2
	중학교	67.2	26.8	8.1	19.8	11.9	7.4	8.6	6.1	3.3	3.9	3.2	2.5	3.5	0.9	1.2	1.1	1.1	0.2	1.4	1.1	0.2	0.2	7.5
	고등학교	66.8	29.8	36.8	18.7	14.0	16.6	13.8	14.0	9.1	6.4	4.0	4.9	3.8	5.5	3.0	5.1	2.8	3.0	1.7	1.1	1.5	1.1	6.0
	대학교	72.2	34.0	37.5	18.3	14.5	21.9	16.6	10.9	11.6	5.2	8.8	6.9	5.9	5.5	5.7	4.5	3.8	1.0	1.7	0.2	1.2	0.5	5.0
	청소년부 모	70.0	36.0	50.0	48.0	14.0	18.0	10.0	50.0	28.0	24.0	8.0	12.0	4.0	6.0	12.0	0.0	0.0	34.0	8.0	0.0	0.0	0.0	2.0
강 제 형 편	상	70.8	28.6	9.1	10.7	11.0	5.3	8.2	5.3	2.8	2.5	1.9	2.2	3.5	0.9	0.6	2.2	1.3	0.0	0.3	0.6	0.3	0.0	9.1
	중	68.2	30.6	19.3	16.5	13.6	12.0	11.2	7.8	5.7	4.2	3.8	3.1	4.0	2.4	2.0	2.6	1.7	1.3	1.1	0.9	0.9	0.3	6.3
	하	71.4	37.1	46.9	40.0	16.7	23.7	18.0	21.6	19.6	10.2	10.6	14.7	6.5	8.6	9.8	3.3	4.5	8.2	4.5	0.8	0.4	2.4	3.7
부 모 학 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64.1	41.0	17.9	23.1	23.1	17.9	15.4	10.3	15.4	5.1	2.6	12.8	2.6	5.1	2.6	0.0	0.0	7.7	0.0	0.0	0.0	5.1	10.3
	(부모 모두) 고졸	71.0	28.5	24.9	14.4	12.1	13.1	9.5	7.7	5.6	5.6	5.4	4.4	4.4	3.1	2.8	0.8	1.3	1.5	1.8	0.8	0.3	0.0	5.9
	(둘중 한명) 대졸	71.5	33.9	21.9	14.1	15.9	13.9	13.5	8.8	6.5	4.1	5.3	3.9	3.5	2.7	2.8	3.5	3.0	1.1	1.2	0.9	1.2	0.1	5.3
	(둘중 한명) 대학원졸	74.6	30.3	16.3	10.7	12.7	9.1	8.5	4.2	4.6	3.3	3.9	2.3	5.9	1.6	1.6	5.2	2.3	1.0	0.3	1.3	1.6	0.3	6.5
학 업 수 준	상	70.3	33.3	16.8	14.4	15.2	13.3	11.0	7.3	5.6	4.0	5.9	4.8	5.1	2.3	3.4	2.5	2.3	1.1	0.7	0.8	0.7	0.5	6.3
	중	69.7	29.9	20.8	18.3	12.3	11.6	12.4	8.8	6.4	4.8	3.5	3.2	3.2	1.9	2.7	2.9	1.6	2.2	1.6	0.8	0.8	0.3	6.3
	하	64.0	29.9	30.8	27.5	13.6	12.7	10.3	13.9	11.5	5.7	3.3	6.9	5.4	6.9	1.2	2.4	2.1	2.7	2.1	0.9	0.6	0.9	6.9
행 복 도	상	70.3	30.7	10.4	15.5	13.4	7.9	9.4	6.0	3.5	3.6	2.9	3.3	3.8	1.2	1.9	1.9	1.4	1.0	0.9	0.4	0.8	0.3	7.0
	중	67.7	29.9	28.3	20.0	13.0	15.4	13.3	10.0	9.0	4.8	5.5	4.5	4.1	3.6	2.5	3.3	2.6	2.5	1.6	1.3	0.6	0.1	5.8
	하	65.8	37.8	58.5	30.1	16.6	29.0	18.1	24.4	20.7	10.4	8.3	10.4	7.3	10.4	8.3	4.7	3.1	5.2	3.1	1.6	1.0	2.6	5.2
가 족 지 지 기 반	평균 이상	69.8	30.1	9.9	14.8	11.7	8.6	9.5	4.6	2.3	2.8	2.9	2.5	3.4	1.5	1.1	2.2	1.4	0.6	0.9	0.8	0.8	0.1	7.3
	평균 이하	68.1	32.2	32.9	22.2	15.6	16.4	13.8	13.9	11.9	6.7	5.8	6.4	5.1	4.3	4.3	3.1	2.5	3.3	1.8	0.9	0.7	0.9	5.5

부표 12. 가족문제로 인한 어려움(다중응답)

(단위 : %)

구분		심리정 서적 상처	불안	외로움	집안일	가족불 화	건강	교육진 로	무력감	의식주	주변의 편견과 낙인	도움을 요청할 곳의 부재	대인기 피	기타
전체		38.5	36.7	34.3	28.5	27.4	26.4	18.9	18.1	17.8	13.9	10.4	6.1	6.9
성별	남성	30.5	36.5	33.3	33.1	24.4	30.9	20.3	18.5	16.5	13.7	8.7	4.9	8.4
	여성	43.2	36.8	34.8	25.8	29.1	23.8	18.1	17.9	18.6	14.0	11.5	6.7	6.0
학교 급	초등학교	23.0	34.1	38.6	39.5	17.7	38.4	18.5	12.4	13.6	12.8	9.6	2.3	13.2
	중학교	31.8	35.4	34.4	36.0	25.6	30.7	20.7	15.1	17.7	12.5	8.1	4.4	7.7
	고등학교	46.6	39.1	33.6	17.4	34.3	17.4	20.6	23.6	15.1	16.6	10.9	10.4	4.0
	대학교	56.5	38.2	28.0	18.3	34.9	17.6	15.2	23.5	24.5	14.3	13.1	8.6	1.7
	청소년부모	54.0	42.0	46.0	14.0	22.0	8.0	18.0	16.0	34.0	14.0	20.0	4.0	2.0
경제 형편	상	25.8	36.5	39.0	34.0	19.8	35.8	18.2	16.4	15.4	10.1	9.7	3.1	11.3
	중	39.6	36.6	34.6	28.7	28.7	26.4	19.1	17.6	16.7	14.4	10.3	5.3	6.5
	하	48.6	37.6	26.5	20.0	29.0	14.3	18.8	23.7	27.8	15.9	11.8	14.7	3.7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33.3	28.2	28.2	46.2	23.1	56.4	12.8	15.4	20.5	15.4	7.7	2.6	2.6
	(부모 모두) 고졸	39.2	38.2	35.6	24.1	31.3	25.1	17.2	18.5	20.3	13.8	9.2	7.9	6.4
	(둘중 한명) 대졸	43.5	38.8	31.6	24.2	30.3	24.3	22.0	18.6	18.0	14.9	12.0	5.4	4.5
	(둘중 한명) 대학원졸	35.2	32.2	36.5	30.3	23.8	28.7	19.9	17.6	15.3	11.7	11.1	4.6	10.1
학업 수준	상	37.0	34.5	33.7	31.5	24.1	28.4	18.9	16.3	20.5	14.1	11.0	5.3	7.7
	중	38.6	37.5	34.3	27.0	29.7	26.4	19.7	17.6	17.2	14.0	9.9	6.3	6.2
	하	41.7	39.0	35.6	26.0	27.8	22.1	16.6	23.6	13.6	13.3	10.9	6.9	7.3
행복 도	상	32.6	34.5	32.5	31.3	23.9	31.1	20.7	15.2	18.8	13.7	10.2	4.4	9.3
	중	42.2	38.8	37.4	27.5	30.9	21.0	18.0	20.1	17.1	15.1	10.7	7.0	4.2
	하	61.1	42.0	33.7	14.5	35.8	17.1	11.4	28.5	14.5	10.9	10.9	13.0	2.1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31.2	33.8	33.8	32.4	23.6	33.1	21.7	15.1	17.5	13.9	9.3	4.6	9.0
	평균 이하	46.3	39.7	34.8	24.3	31.3	19.2	15.9	21.3	18.2	14.0	11.6	7.7	4.7

부표 13. 가족문제로 고민될 때 해결방법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친구에게 말한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 (무기력 증)	가족들과 상의한다	외부와 단절한다 (말을 안 한다, 전 화를 안 받 는다)	학교 선생님께 말한다	서비스기 관에 상담을 요청한다	스스로 자해한다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	기타
전체		45.7	42.7	36.2	19.0	15.8	12.2	9.3	3.4	5.6
성별	남성	34.8	33.7	38.8	16.1	20.5	12.3	4.7	3.7	7.6
	여성	52.0	47.9	34.7	20.6	13.0	12.2	12.0	3.3	4.4
학교 급	초등학교	43.9	29.2	47.8	7.3	23.2	10.2	3.8	2.3	7.2
	중학교	44.7	39.6	33.2	14.9	21.1	9.3	5.1	3.5	6.0
	고등학교	43.8	54.0	29.6	28.1	9.6	13.0	16.6	4.3	6.2
	대학교	49.4	49.6	34.0	28.0	7.6	17.6	12.6	4.3	2.4
	청소년부모	62.0	56.0	28.0	26.0	4.0	16.0	20.0	0.0	6.0
경제 형편	상	47.8	27.4	45.3	9.7	22.3	13.5	6.3	2.8	7.2
	중	45.0	43.0	36.3	19.1	15.3	11.2	8.3	3.1	5.5
	하	47.3	60.8	23.7	30.2	10.2	17.1	19.2	6.1	4.1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56.4	28.2	30.8	15.4	23.1	5.1	12.8	2.6	7.7
	(부모 모두) 고졸	45.9	41.5	36.2	20.8	15.9	14.9	11.8	2.6	5.4
	(둘중 한명) 대졸	46.9	46.5	37.7	20.3	13.9	12.7	8.2	3.6	2.7
	(둘중 한명) 대학원졸	46.9	33.9	44.0	16.9	14.3	12.7	5.2	4.2	9.1
학업 수준	상	46.4	38.1	43.6	16.2	18.6	14.1	7.5	3.6	4.2
	중	46.7	41.9	36.6	18.8	16.6	12.3	8.6	3.0	5.6
	하	41.1	55.3	18.7	25.7	6.9	7.9	15.4	4.5	8.5
행복 도	상	50.8	31.1	46.2	12.4	18.7	11.7	4.7	2.4	6.2
	중	40.9	52.6	25.4	24.9	13.0	12.2	10.3	3.9	4.8
	하	32.1	76.7	15.0	36.8	7.8	15.5	33.7	7.8	4.7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47.3	28.0	48.9	10.7	19.7	11.4	4.4	1.9	6.3
	평균 이하	44.0	58.3	22.6	27.7	11.6	13.1	14.6	5.1	4.9

부표 14.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및 이용경험 (청소년전화 1388)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9.4	25.0	38.3	27.4	15.0	85.0
성별	남성	13.7	25.9	33.9	26.5	13.7	86.3
	여성	6.8	24.5	40.9	27.9	15.7	84.3
학교 급	초등학교	20.0	20.9	30.5	28.6	7.0	93.0
	중학교	8.8	25.8	38.1	27.4	8.3	91.7
	고등학교	3.0	22.3	41.5	33.2	27.1	72.9
	대학교	4.8	30.2	45.6	19.5	17.2	82.8
	청소년부모	2.0	40.0	32.0	26.0	20.7	79.3
경제 형편	상	13.2	16.4	32.1	38.4	16.5	83.5
	중	9.0	25.8	40.4	24.8	12.7	87.3
	하	6.5	31.0	33.9	28.6	27.5	72.5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2.6	15.4	30.8	51.3	21.9	78.1
	(부모 모두) 고졸	6.9	24.9	39.0	29.2	16.5	83.5
	(둘중 한명) 대졸	9.2	26.9	38.2	25.7	14.4	85.6
	(둘중 한명) 대학원졸	10.7	23.1	36.5	29.6	18.7	81.3
학업 수준	상	8.9	24.5	36.2	30.4	15.6	84.4
	중	9.4	24.8	40.5	25.4	13.6	86.4
	하	10.3	26.6	36.6	26.6	17.7	82.3
행복 도	상	9.2	22.8	37.0	31.0	11.8	88.2
	중	10.1	27.8	40.4	21.6	15.9	84.1
	하	7.3	28.0	38.3	26.4	32.0	68.0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10.3	20.5	35.3	33.9	11.0	89.0
	평균 이하	8.4	29.7	41.5	20.4	19.8	80.2

부표 15.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학교상담실)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4.1	10.8	35.7	49.5	57.4	42.6
성별	남성	5.5	14.4	37.1	43.1	47.1	52.9
	여성	3.3	8.7	34.8	53.2	62.9	37.1
학교 급	초등학교	10.2	12.4	30.7	46.7	40.6	59.4
	중학교	2.3	10.5	36.0	51.2	51.1	48.9
	고등학교	1.9	8.7	35.1	54.3	69.5	30.5
	대학교	1.4	10.5	43.2	44.9	68.2	31.8
	청소년부모	2.0	20.0	26.0	52.0	82.1	17.9
경제 형편	상	6.6	10.4	26.1	56.9	47.3	52.7
	중	3.8	10.7	37.7	47.9	56.8	43.2
	하	2.4	12.2	35.9	49.4	73.7	26.3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0.0	7.7	30.8	61.5	44.4	55.6
	(부모 모두) 고졸	1.8	9.0	37.9	51.3	61.8	38.2
	(둘중 한명) 대졸	3.6	10.5	38.1	47.7	56.4	43.6
	(둘중 한명) 대학원졸	4.2	10.1	32.2	53.4	53.2	46.8
학업 수준	상	4.9	10.3	33.8	51.0	51.9	48.1
	중	3.5	10.8	37.9	47.8	58.0	42.0
	하	3.9	12.1	32.9	51.1	68.0	32.0
행복 도	상	4.4	10.5	33.0	52.0	50.7	49.3
	중	4.1	11.4	40.0	44.5	61.7	38.3
	하	2.1	10.4	35.8	51.8	81.7	18.3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4.3	10.5	32.0	53.2	49.8	50.2
	평균 이하	3.8	11.1	39.5	45.5	65.5	34.5

부표 16.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방과후아카데미)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14.3	15.2	23.3	47.2	73.5	26.5
성별	남성	10.7	12.0	23.5	53.9	76.2	23.8
	여성	16.5	17.0	23.2	43.3	71.7	28.3
학교 급	초등학교	0.6	2.4	19.0	78.0	87.0	13.0
	중학교	1.1	3.5	23.9	71.6	85.3	14.7
	고등학교	32.6	31.9	21.5	14.0	37.7	62.3
	대학교	29.5	26.1	30.4	14.0	38.5	61.5
	청소년부모	14.0	34.0	20.0	32.0	42.3	57.7
경제 형편	상	7.2	10.1	18.9	63.8	78.7	21.3
	중	14.5	14.7	24.6	46.2	72.9	27.1
	하	22.4	24.9	21.2	31.4	68.2	31.8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7.7	20.5	23.1	48.7	71.4	28.6
	(부모 모두) 고졸	17.4	18.5	22.8	41.3	73.2	26.8
	(둘중 한명) 대졸	18.2	15.5	25.3	40.9	71.4	28.6
	(둘중 한명) 대학원졸	12.1	15.6	19.5	52.8	73.4	26.6
학업 수준	상	12.5	12.6	20.7	54.2	74.4	25.6
	중	13.0	16.2	25.5	45.3	74.4	25.6
	하	22.4	17.8	22.7	37.2	68.2	31.8
행복 도	상	10.3	11.8	20.9	57.0	76.5	23.5
	중	17.1	17.1	27.8	38.0	70.3	29.7
	하	29.0	28.5	21.8	20.7	58.5	41.5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11.2	10.8	18.3	59.6	76.5	23.5
	평균 이하	17.7	19.8	28.6	33.9	69.6	30.4

부표 17.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청소년센터)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5.1	15.7	35.0	44.1	57.5	42.5
성별	남성	6.8	15.2	32.3	45.7	58.5	41.5
	여성	4.2	16.0	36.6	43.2	57.0	43.0
학교 급	초등학교	5.8	8.9	27.1	58.2	63.6	36.4
	중학교	3.5	11.4	34.4	50.7	64.9	35.1
	고등학교	4.3	17.4	37.2	41.1	55.4	44.6
	대학교	7.4	27.1	43.0	22.6	40.2	59.8
	청소년부모	6.0	26.0	38.0	30.0	35.3	64.7
경제 형편	상	4.7	11.0	26.1	58.2	56.0	44.0
	중	4.9	16.2	36.6	42.3	58.0	42.0
	하	7.3	19.2	36.7	36.7	56.7	43.3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0.0	10.3	38.5	51.3	65.7	34.3
	(부모 모두) 고졸	3.6	16.7	36.4	43.3	54.3	45.7
	(둘중 한명) 대졸	5.8	18.0	35.5	40.7	56.9	43.1
	(둘중 한명) 대학원졸	4.6	11.1	34.5	49.8	57.9	42.1
학업 수준	상	4.1	14.7	32.3	48.9	57.5	42.5
	중	5.4	15.9	36.8	41.9	58.4	41.6
	하	6.6	17.5	35.6	40.2	55.0	45.0
행복 도	상	4.8	12.4	32.7	50.0	57.5	42.5
	중	4.9	19.4	38.1	37.5	57.5	42.5
	하	7.8	22.3	37.8	32.1	58.5	41.5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5.4	10.8	29.6	54.1	56.9	43.1
	평균 이하	4.9	20.9	40.7	33.5	58.3	41.7

부표 18.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사회복지관)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10.3	33.3	32.9	23.5	24.0	76.0
성별	남성	12.3	32.4	31.1	24.3	26.3	73.7
	여성	9.1	33.8	34.0	23.1	22.8	77.2
학교 급	초등학교	12.6	26.7	32.6	28.1	29.2	70.8
	중학교	7.5	33.2	33.2	26.1	22.5	77.5
	고등학교	14.0	43.0	27.0	16.0	20.3	79.7
	대학교	7.4	32.8	38.7	21.1	21.4	78.6
	청소년부모	6.0	18.0	40.0	36.0	31.6	68.4
경제 형편	상	11.6	25.2	28.0	35.2	21.9	78.1
	중	9.6	34.2	34.8	21.4	23.3	76.7
	하	12.7	38.4	28.2	20.8	32.5	67.5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2.6	28.2	28.2	41.0	37.0	63.0
	(부모 모두) 고졸	9.5	29.2	33.8	27.4	24.7	75.3
	(둘중 한명) 대졸	12.2	37.6	31.1	19.2	20.4	79.6
	(둘중 한명) 대학원졸	6.8	35.8	32.9	24.4	23.9	76.1
학업 수준	상	10.0	30.4	32.7	26.8	25.5	74.5
	중	9.6	34.1	34.6	21.7	23.7	76.3
	하	13.0	37.2	28.4	21.5	21.2	78.8
행복 도	상	8.9	29.8	33.8	27.5	24.1	75.9
	중	11.2	35.7	33.6	19.6	25.1	74.9
	하	15.5	46.1	24.9	13.5	18.9	81.1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8.9	29.6	31.2	30.2	24.7	75.3
	평균 이하	11.7	37.2	34.7	16.4	23.2	76.8

부표 19.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해바라기센터)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44.3	27.5	16.5	11.7	13.6	86.4
성별	남성	46.9	27.6	12.7	12.8	9.9	90.1
	여성	42.8	27.5	18.7	11.1	15.4	84.6
학교 급	초등학교	55.9	19.0	14.3	10.7	6.8	93.2
	중학교	43.5	28.6	13.9	14.0	11.9	88.1
	고등학교	46.2	28.9	14.7	10.2	19.7	80.3
	대학교	30.9	34.9	24.5	9.7	12.5	87.5
	청소년부모	26.0	30.0	18.0	26.0	40.9	59.1
경제 형편	상	44.3	20.8	15.7	19.2	12.6	87.4
	중	43.9	29.7	16.2	10.2	12.6	87.4
	하	46.5	23.3	19.2	11.0	20.3	79.7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20.5	23.1	17.9	38.5	18.2	81.8
	(부모 모두) 고졸	41.8	27.9	18.2	12.1	13.6	86.4
	(둘중 한명) 대졸	46.2	28.8	15.9	9.1	11.4	88.6
	(둘중 한명) 대학원졸	39.4	31.3	16.3	13.0	12.2	87.8
학업 수준	상	43.2	27.1	15.8	14.0	13.4	86.6
	중	43.4	28.0	17.9	10.6	13.9	86.1
	하	49.5	26.9	13.6	10.0	12.8	87.2
행복 도	상	44.6	26.7	15.5	13.2	11.1	88.9
	중	42.9	30.0	17.0	10.1	16.0	84.0
	하	47.7	23.8	20.2	8.3	20.0	80.0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46.2	24.6	14.3	14.8	11.4	88.6
	평균 이하	42.3	30.6	18.7	8.4	16.0	84.0

부표 20.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60.1	22.9	10.2	6.8	11.8	88.2
성별	남성	56.1	22.4	11.7	9.7	14.3	85.7
	여성	62.5	23.1	9.4	5.0	9.7	90.3
학교 급	초등학교	64.2	15.1	11.1	9.6	8.2	91.8
	중학교	54.6	23.2	12.6	9.6	13.4	86.6
	고등학교	67.4	22.3	6.6	3.6	16.7	83.3
	대학교	52.5	33.3	10.9	3.3	10.0	90.0
	청소년부모	76.0	20.0	2.0	2.0	50.0	50.0
경제 형편	상	55.7	17.9	11.6	14.8	13.1	86.9
	중	60.2	24.4	9.8	5.6	10.5	89.5
	하	65.7	20.0	11.0	3.3	17.1	82.9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41.0	15.4	17.9	25.6	23.5	76.5
	(부모 모두) 고졸	62.1	20.5	10.8	6.7	14.7	85.3
	(둘중 한명) 대졸	63.8	23.2	8.5	4.5	11.5	88.5
	(둘중 한명) 대학원졸	53.1	25.7	10.4	10.7	12.3	87.7
학업 수준	상	58.6	21.1	10.8	9.5	12.2	87.8
	중	59.0	24.8	11.0	5.2	13.2	86.8
	하	66.8	21.1	6.6	5.4	5.0	95.0
행복 도	상	59.4	23.1	9.2	8.3	11.3	88.7
	중	59.3	22.5	12.3	5.9	14.3	85.7
	하	67.9	22.8	8.8	0.5	0.0	100.0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59.6	20.2	10.1	10.1	13.2	86.8
	평균 이하	60.7	25.7	10.4	3.2	9.6	90.4

부표 21.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30.5	26.6	19.5	23.3	45.1	54.9
성별	남성	31.3	26.1	20.9	21.6	36.7	63.3
	여성	30.0	26.9	18.7	24.3	50.0	50.0
학교 급	초등학교	43.7	23.5	18.1	14.7	19.5	80.5
	중학교	31.6	33.5	20.7	14.2	18.6	81.4
	고등학교	8.1	15.1	20.2	56.6	79.5	20.5
	대학교	37.1	34.7	19.2	9.0	19.3	80.7
	청소년부모	34.0	22.0	18.0	26.0	63.6	36.4
경제 형편	상	34.0	23.6	13.8	28.6	32.6	67.4
	중	29.7	28.0	20.8	21.5	45.3	54.7
	하	30.6	22.4	19.6	27.3	59.1	40.9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10.3	23.1	23.1	43.6	53.8	46.2
	(부모 모두) 고졸	28.5	27.9	19.2	24.4	44.1	55.9
	(둘중 한명) 대졸	33.6	25.0	19.5	21.9	50.0	50.0
	(둘중 한명) 대학원졸	24.8	29.6	17.9	27.7	37.9	62.1
학업 수준	상	32.9	24.5	17.8	24.8	35.0	65.0
	중	29.2	28.8	21.1	20.9	47.3	52.7
	하	29.3	24.8	18.7	27.2	59.9	40.1
행복 도	상	30.2	27.0	19.2	23.6	39.9	60.1
	중	31.3	25.9	21.0	21.7	46.1	53.9
	하	29.5	26.9	16.6	26.9	72.6	27.4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31.4	23.3	18.5	26.8	39.8	60.2
	평균 이하	29.5	30.2	20.6	19.6	51.5	48.5

부표 22.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15.2	27.7	31.6	25.5	33.0	67.0
성별	남성	19.5	26.1	30.1	24.3	31.1	68.9
	여성	12.7	28.6	32.4	26.2	34.0	66.0
학교급	초등학교	23.0	29.8	25.4	21.8	24.7	75.3
	중학교	15.4	31.1	32.5	21.1	22.6	77.4
	고등학교	4.7	16.0	37.0	42.3	50.4	49.6
	대학교	16.9	32.8	32.8	17.6	27.4	72.6
	청소년부모	14.0	36.0	26.0	24.0	32.0	68.0
경제 형편	상	17.6	24.2	27.0	31.1	25.4	74.6
	중	14.5	28.8	32.9	23.8	32.6	67.4
	하	15.9	25.7	29.8	28.6	45.5	54.5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7.7	15.4	25.6	51.3	53.3	46.7
	(부모 모두) 고졸	14.9	25.1	32.6	27.4	32.5	67.5
	(둘중 한명) 대졸	14.7	29.1	31.4	24.9	34.9	65.1
	(둘중 한명) 대학원졸	12.4	29.3	33.6	24.8	26.8	73.2
학업 수준	상	15.6	26.2	31.2	27.0	30.1	69.9
	중	15.1	28.6	32.1	24.2	32.2	67.8
	하	14.5	28.4	30.8	26.3	41.8	58.2
행복도	상	13.8	27.7	32.0	26.5	27.7	72.3
	중	17.8	27.8	31.7	22.6	36.5	63.5
	하	14.0	27.5	28.5	30.1	53.1	46.9
가족지 지기반	평균 이상	16.0	24.8	29.4	29.8	30.1	69.9
	평균 이하	14.4	30.8	33.9	20.9	36.3	63.7

부표 23.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43.6	31.2	15.2	10.0	9.5	90.5
성별	남성	41.6	28.1	18.5	11.7	11.5	88.5
	여성	44.7	33.0	13.3	9.0	8.0	92.0
학교 급	초등학교	44.1	25.6	16.8	13.6	9.9	90.1
	중학교	37.2	31.2	18.9	12.6	10.6	89.4
	고등학교	48.9	34.9	8.1	8.1	6.6	93.4
	대학교	43.7	34.7	17.1	4.5	9.9	90.1
	청소년부모	60.0	26.0	8.0	6.0	0.0	100.0
경제 형편	상	38.4	23.0	19.2	19.5	9.8	90.2
	중	43.5	32.9	14.8	8.8	9.5	90.5
	하	50.6	31.8	12.7	4.9	9.3	90.7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35.9	17.9	15.4	30.8	27.8	72.2
	(부모 모두) 고졸	41.3	30.5	15.9	12.3	6.4	93.6
	(둘중 한명) 대졸	47.7	30.8	13.9	7.6	9.4	90.6
	(둘중 한명) 대학원졸	36.8	35.8	15.6	11.7	8.3	91.7
학업 수준	상	42.6	30.1	14.8	12.5	9.5	90.5
	중	42.2	32.7	17.0	8.1	10.6	89.4
	하	49.8	29.0	10.9	10.3	5.7	94.3
행복 도	상	40.0	31.9	16.1	11.9	10.5	89.5
	중	47.0	30.0	14.9	8.1	9.4	90.6
	하	52.8	31.1	10.9	5.2	0.0	100.0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41.9	29.2	15.0	13.9	11.5	88.5
	평균 이하	45.4	33.3	15.5	5.9	6.6	93.4

부표 24.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49.6	28.2	13.5	8.8	11.0	89.0
성별	남성	50.3	25.9	13.2	10.7	11.2	88.8
	여성	49.2	29.5	13.6	7.7	10.9	89.1
학교 급	초등학교	51.8	21.7	14.9	11.7	15.6	84.4
	중학교	46.5	28.4	14.6	10.5	9.1	90.9
	고등학교	58.7	28.1	8.1	5.1	11.3	88.7
	대학교	42.5	34.9	16.2	6.4	6.3	93.7
	청소년부모	36.0	38.0	14.0	12.0	15.4	84.6
경제 형편	상	41.8	24.5	14.8	18.9	13.1	86.9
	중	51.1	28.9	13.1	6.8	10.2	89.8
	하	50.6	28.2	13.9	7.3	11.5	88.5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28.2	28.2	23.1	20.5	23.5	76.5
	(부모 모두) 고졸	49.0	31.0	11.0	9.0	9.0	91.0
	(둘중 한명) 대졸	53.8	27.0	12.6	6.6	6.3	93.7
	(둘중 한명) 대학원졸	44.0	28.7	15.6	11.7	11.9	88.1
학업 수준	상	49.3	26.0	12.9	11.8	12.8	87.2
	중	48.2	30.3	14.8	6.7	11.4	88.6
	하	54.4	26.6	10.9	8.2	4.8	95.2
행복 도	상	47.3	29.1	13.0	10.6	10.9	89.1
	중	51.9	26.8	14.3	7.0	12.9	87.1
	하	55.4	27.5	13.0	4.1	3.0	97.0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48.3	26.2	13.5	12.0	12.7	87.3
	평균 이하	51.0	30.2	13.4	5.4	8.6	91.4

부표 25. 청소년서비스기관 인지도 (서울시1인가구지원센터)

(단위 : %)

구분		처음 들었다	이름만 안다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있음	없음
전체		62.7	21.3	9.9	6.0	9.8	90.2
성별	남성	61.3	19.1	12.0	7.6	11.6	88.4
	여성	63.5	22.6	8.7	5.1	8.4	91.6
학교 급	초등학교	66.3	13.6	11.1	9.0	7.5	92.5
	중학교	57.7	22.8	11.9	7.5	10.8	89.2
	고등학교	69.6	22.3	4.7	3.4	10.5	89.5
	대학교	56.1	28.0	12.4	3.6	10.4	89.6
	청소년부모	74.0	20.0	4.0	2.0	33.3	66.7
경제 형편	상	58.5	18.2	9.4	13.8	13.5	86.5
	중	62.9	22.4	10.2	4.5	8.3	91.7
	하	67.3	18.8	9.0	4.9	11.8	88.2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43.6	17.9	15.4	23.1	26.7	73.3
	(부모 모두) 고졸	64.9	18.7	10.8	5.6	7.8	92.2
	(둘중 한명) 대졸	64.5	22.2	9.2	4.2	11.1	88.9
	(둘중 한명) 대학원졸	55.4	24.8	11.4	8.5	9.8	90.2
학업 수준	상	62.2	20.3	9.2	8.4	13.3	86.7
	중	61.9	22.1	11.4	4.6	8.9	91.1
	하	66.5	21.1	7.3	5.1	2.4	97.6
행복 도	상	60.4	22.3	9.8	7.5	11.4	88.6
	중	64.8	20.1	10.6	4.5	8.7	91.3
	하	69.4	19.7	8.3	2.6	0.0	100.0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62.6	19.5	9.2	8.7	11.6	88.4
	평균 이하	62.9	23.3	10.7	3.1	7.3	92.7

부표 26. 지역사회로부터 받고 싶은 가족 관련 서비스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가족 여행	가족 취미 활동	식사	가족 내 소통	가족 상담	진로 교육	가정 생활관리 (청소, 정돈 등)	부모 역할 교육	인성 교육	기타
전체		74.0	46.3	25.3	22.3	20.4	18.5	17.3	10.8	8.2	6.1
성별	남성	72.4	43.3	30.7	19.7	15.3	19.2	15.3	6.8	8.8	7.7
	여성	75.0	48.1	22.2	23.8	23.3	18.0	18.5	13.2	7.8	5.2
학교 급	초등학교	84.6	49.7	32.8	22.4	12.1	16.9	13.7	3.8	7.7	4.9
	중학교	81.1	51.4	26.5	19.1	13.7	19.3	18.1	4.9	6.3	6.3
	고등학교	64.9	39.6	25.3	18.7	20.6	21.9	16.2	13.0	8.7	8.7
	대학교	61.3	43.5	14.7	30.6	37.8	15.7	21.1	24.5	11.4	4.0
	청소년부모	76.0	40.0	22.0	22.0	36.0	16.0	26.0	18.0	2.0	10.0
경제 형편	상	80.5	46.5	25.8	22.0	16.0	16.7	14.5	6.6	9.4	5.3
	중	73.7	47.7	24.5	23.5	20.6	18.9	17.1	10.0	8.0	5.5
	하	67.8	38.0	29.4	15.9	24.9	18.4	22.4	21.2	7.3	11.0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79.5	38.5	30.8	20.5	15.4	12.8	23.1	5.1	12.8	5.1
	(부모 모두) 고졸	73.1	47.9	21.5	27.2	22.3	20.0	17.9	11.5	9.0	5.4
	(둘중 한명) 대졸	72.3	48.5	24.5	22.6	22.7	20.1	17.7	12.4	8.6	4.3
	(둘중 한명) 대학원졸	76.2	50.2	24.1	18.2	19.9	19.2	16.3	8.1	8.5	5.9
학업 수준	상	74.8	50.8	25.5	22.2	19.5	18.5	17.7	11.1	7.4	5.2
	중	75.1	46.2	24.6	22.5	21.5	18.1	16.1	10.7	8.4	6.0
	하	69.2	36.9	27.2	22.1	19.0	19.3	20.2	10.6	9.4	8.5
행복도	상	79.9	51.9	28.3	20.7	16.7	17.5	17.3	7.2	7.4	4.6
	중	69.3	41.0	21.9	23.5	22.5	20.4	17.0	13.8	8.3	7.8
	하	56.0	31.6	19.7	28.0	35.2	17.1	18.7	22.3	12.4	9.3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82.9	54.7	28.2	20.0	13.7	17.1	16.9	4.7	6.8	4.7
	평균 이하	64.6	37.4	22.2	24.8	27.5	19.9	17.8	17.4	9.6	7.7

부표 27. 지역사회로부터 우리 가족이 받고 싶은 서비스 방식 (다중응답)

(단위 : %)

구분		돈으로 지원	물품지 원	일상적 서비스	특정 이벤트 (축제, 발표회 등)	가족 단위가 아닌 개별 청소년 지원 서비스	초등- 중등- 고등- 청년으 로 연결 되는 단절 없는 맞춤 서비스	24시간 접근 가능한 서비스	원스탑 서비스 시스템 (한곳에 서 모두 처리해 주는 방식)	온라인 서비스	방문서 비스	온라인 - 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기타
전체		73.4	46.5	22.9	18.2	16.3	15.7	11.7	10.1	10.0	8.2	4.5	3.4
성별	남성	71.6	44.0	21.6	16.4	13.9	15.5	10.8	8.9	11.7	9.3	4.4	4.4
	여성	74.5	47.9	23.7	19.2	17.7	15.9	12.2	10.8	9.0	7.5	4.5	2.9
학교 급	초등학교	67.0	44.4	22.2	26.7	10.5	17.1	12.1	6.6	11.5	9.4	4.0	5.5
	중학교	77.2	51.6	22.1	19.8	11.8	15.3	6.8	4.4	9.6	7.4	4.0	3.2
	고등학교	78.5	50.2	22.3	13.6	25.3	12.1	9.1	9.8	9.8	5.5	2.1	1.9
	대학교	68.6	34.2	26.6	11.4	19.0	19.7	20.2	20.9	9.5	10.0	8.3	2.9
	청소년부모	90.0	78.0	14.0	8.0	22.0	6.0	16.0	24.0	4.0	14.0	4.0	4.0
경제 형편	상	66.4	38.4	23.0	27.0	12.6	16.7	18.2	6.9	11.0	9.1	3.8	5.7
	중	73.8	46.8	23.5	18.0	15.7	15.3	10.5	10.4	10.0	8.0	4.4	3.2
	하	80.4	55.1	19.6	7.8	24.9	16.7	10.6	12.2	8.6	8.2	5.7	2.0
부모 학력	(부모 모두) 중졸이하	71.8	30.8	10.3	7.7	15.4	12.8	10.3	15.4	15.4	17.9	2.6	2.6
	(부모 모두) 고졸	76.9	49.7	23.6	15.6	21.3	17.9	11.0	10.8	8.2	6.4	4.9	2.1
	(둘중 한명) 대졸	72.8	44.9	25.1	18.2	15.1	16.2	13.1	10.8	9.3	10.0	5.5	2.2
	(둘중 한명) 대학원졸	70.7	43.3	21.2	23.5	15.0	16.0	16.3	10.4	12.1	6.8	3.9	4.6
학업 수준	상	70.1	43.7	21.9	22.9	13.8	15.8	13.4	11.2	10.8	9.6	4.4	3.6
	중	73.6	47.1	23.8	17.4	16.3	17.2	11.7	9.6	10.3	7.7	4.0	3.0
	하	80.1	50.8	22.7	10.0	21.8	11.2	7.9	9.1	7.3	6.3	6.0	4.5
행복 도	상	73.1	48.1	24.2	22.0	12.9	15.9	11.0	9.0	9.7	7.9	3.5	4.1
	중	72.8	44.3	22.6	14.3	18.4	16.2	12.6	11.0	10.3	7.8	4.9	2.9
	하	77.7	44.6	16.6	8.8	29.5	13.0	13.0	13.5	10.9	11.4	8.3	1.6
가족 지지 기반	평균 이상	74.7	50.1	22.9	21.7	12.2	15.7	11.3	8.2	10.5	7.0	2.8	4.1
	평균 이하	72.0	42.6	23.0	14.5	20.7	15.8	12.1	12.1	9.4	9.4	6.2	2.7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본 연구는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청소년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의 생애주기별로 만9-24세(초중고대 연령) 학교 안팎의 청소년 총 2,04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하여 1:1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며, 가족구성원의 형태는 친부모, 친·외조부모, 친형제·자매, 친척 및 새 부모, 새형제·자매, 부모의 여자 또는 남자 친구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가족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가족지지 기반(정서+의식주)이 낮은 집단에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가족환경의 다양한 사건 및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와 입원 등 일상적 생활 사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정신질환, 이혼, 가출, 폭행, 재혼, 알코올중독, 자살, 빚독촉 등에서 비교적 차이가 두드러졌다.

가족문제로 고민시 대처 방안으로 고등학교와 청소년부모 집단의 절반 이상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청소년부모의 '스스로 자해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기력증, 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에 대한 조사결과, 행복도별 차이가 가족지지기반별, 경제수준별, 성별, 연령 학교급별, 학업수준별 차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복도가 낮을수록 무기력증과 외부단절, 자해, 이상한 행동을 가족환경 변화로 고민할 때 대처방안으로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이는 정책지

원으로 자존감, 인정, 소통을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의 지원방식 재편이 필요하다.

면담조사 결과, 이사, 이혼과 재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 정보 경로를 몰라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며, 가정적 어려움을 청소년들이 먼저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은 집안일과 형제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고등학생은 인터넷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대학생은 전문상담진료, 청소년부모는 서비스지원 신청절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가족환경 변화 경험 및 초기대처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며 가족 내 지지기반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가족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스스로 부인하거나 외부의 자원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환경은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발달된 청소년기에 무기력증이 심하게 나타났다. 가족 환경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 초기대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지지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가족변화 대응력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1) 가족단위 정책지원에서 청소년 개별적 지원, 2) 가족내 어려움 대처에 신속한 발견 및 대처, 3) 생애주기적 초,중,고,대 특성에 따른 지원을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로 청소년의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편, 가족 환경 변화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내용으로 재편,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현장 연결을 주도하는 중추지원조직으로 재편, 초기 대처를 위한 관련 기관 담당자의 직무 재편, 청소년기 연령에 따른 특성 서비스로 재편, 24시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지원방식으로 재편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가족 변화, 청소년 지원

ABSTRACT

Reorganization of youth support method according to diversification of family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reorganize the youth support method by identifying the reality and needs of adolescents by life cycle accord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family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mobile survey targeting a total of 2,042 adolescents in and out of school between the ages of 9 and 24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ge) by life cycle across the country.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re are various types of families due to changes in the family environment surrounding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type of family members, there are various types such as biological parents, paternal and maternal grandparents, biological brothers and sisters, relatives and stepparents, new brothers and sisters, and parents' girlfriends and boyfriends. As a place of character education, the family function is recognized as important. The group with a low family support base (emotion + food, clothing and shelter) tended to experience relatively more various events and difficulties in the family environment experienced during adolescence. While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daily life events such as moving and hospitalization, relative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mental illness, divorce, runaway, assault, remarriage, alcoholism, suicide, and debt collection.

As a countermeasure for family problems, more than half of the high school and adolescent parent groups responded that they “just don’t want to do anything,” and in particular, the response of adolescent parents that they “harm themselves” was relatively high.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lethargy, disconnection, self-harm, and strange behavior, the difference by family support base, economic level, gender, age, school level, and academic level showed the highest difference. The lower the happiness level, the higher the rate of choosing lethargy, external disconnection, self-harm, and strange behavior as coping measures when worried about changes in the family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upport methods of schools and community service organizations that promote self-esteem, recogni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policy support that enhances the happiness of youth.

As a result of interviews, they want support for emotional difficulties caused by moving, divorce, and remarriage. It was found that when difficulties within the family occur, they are in difficulties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service information path, and adolescents do not talk about family difficulties to others first. Elementary school students find it difficult to do housework and care for their siblings, high school students try to solve their problems on the Internet, out-of-school youth take the GED, college students receive professional counseling and treatment, and parents experience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service support. If you feel very difficult in experiencing changes in your family

environment and coping with them in the early stages, and you feel that you do not have a support base within your family, you either deny yourself the difficulties in your family problems or do not trust external resources very much. Since the family environment is not a situation in which adolescents can choose in most cases, lethargy was severe during adolescence when sensitivity was developed. It was recognized that emotional support and information on services that can receive help are needed in order to cope well in the early stages when experiencing difficult situations due to family environmen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ability to respond to family changes in adolescence as policy directions: 1) individual support for adolescents in family unit policy support, 2) prompt discovery and response to difficulties within the family, 3) life cycle elementary, middle, and Suppor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and high school was proposed.

Keywords : family change, youth support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황여정·임희진·오승근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 연구Ⅴ: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해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 박광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해정·김미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 박환보·최종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욱·오육찬·조양진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22.12.21.)
-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크숍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22.8.4., 22.8.12.)
-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최 선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배 영 미 (서울여대 겸임교수)

김 지 수 (전 군포청소년재단 상임이사)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8-89-7816-917-2

연구보고 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57-2